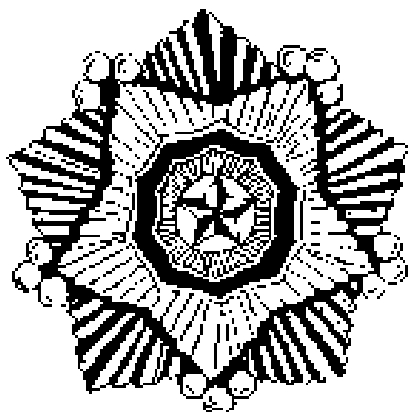


10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4)년 제10호

(루계 제 684 호)

◆◆◆◆◆◆◆◆◆◆ 차 례 ◆◆◆◆◆◆◆◆◆◆

그이는 우리 당의 총비서	3
대지의 음향.....	4
우리 어머니	14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15
어머니당의 탄생일에	15
수령님 추억속에	16
10 월 17 일.....	16
옥좌에 비끼는 밝은 빛	17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깊이있는 서사시적형상	20
명언해설	24
우리 당이 걸어온 그 자욱우에	24
전사의 일편단심 영원하리	25
나를 지켜보는 그 눈빛.....	25
선군의 태양.....	26
안개속에서 찍으셨건만.....	27
내 고향의 백양나무	27
뜨거운 눈	28
피줄기	40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일출)	41
선군 8 경가	41
백두일출에 대한 생각	42
내 한생 해돋이순간에 살리 (외 1 편)	43
철령의 철쭉꽃이 붉은것은	43
내 고향의 들장미	44
민요	55
선군 조선	56
조용한 골짜기	58
장군님 뵈온 병사 제일 행복해 (외 3 편)	69
태양의 제일성새 공군이라네	69
고지의 비둘기	69
해병은 선군갈매기	69
위대한 당의 품속에 영생하는 삶, 불멸하는 노래	70
당원에 대한 생각	72
뜨거운 쇠돌	73
백두가 보이는 마루에서	74
나는 조국의 불을 단다	74
새로운 풍경	75
류 행 가	76
원한의 부두가에서	77
장령의 경례	78
시상의 벗	79
비방자에 대한 공격	79
미친사람의 충고	80

그이는 우리 당의 총비서

리명근

그이이시다
인민이 사랑하고
군대가 사랑하고
조국이 가장 아끼는분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당 총비서!

이 세상 그 어떤 칭호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공직보다도
더 친근해진 그 부름이다
그이는 우리 당 총비서!

조용히 불러보아도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흐르고
천만이 불러보아도
해빛같은 사랑이 흐르는
더없이 귀중한 부름이다
그이는 우리 당 총비서!

못잊을 그해, 10월 8일
이날에 시작된 부름이여도
오래전에 벌써 인민의 마음속엔
그이께서 우리 당 수위에 계셨다
당이란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그 나날로부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들이 흘렀던가
이 땅의 그 하루하루속에
당은 우리 삶의 숨결로 고동쳤고
승리의 기발이 되어 나뒹눴다

당중앙청사의 그 불빛
야전차불빛으로 이으시여
최전연 한끝에서 동서해로

저기 북변의 산간오지까지
우리 장군님 걸으신 그 자욱자욱은
성스런 군민의 행군길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된
어머니당의 해빛같은 사랑이었다

저기 외진 섬마을사람들도
지하천천 막장의 광부들도
철령과 초도의 병사들도
우리 당과 심장의 혈맥을 잇고살며
언제나 하나같이 말한다
그이는 우리의 총비서
우리는 그이와 한식술

천만가닥 해살과도 같이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로
천만군민의 가슴에 뿌리내린
당이며 조선로동당이며

강철의 령장이 이끄시여
그대는 강철의 당
백두의 령장이 이끄시여
그대는 백두의 녀를 지닌 당
백승의 령장이 이끄시여
그대는 백승의 당

장군님 계시여
우리 당의 앞길은 창창하다
백전백승의 기치가 되어
우리 당은 더 큰 승리에로
군민을 이끈다 조국을 부른다

오, 영광을 드린다
우리 당의 위대한 향도자 **김정일**동지!
우리 당의 총비서 **김정일**동지께!

대지의 음향

박운

1

고향이란 그 땅에 바친것이 없고 그 땅 떠나 이
런것이 적다면 추억하기조차 피로운 곳인가.

작곡가 서명준은 가지가지 추억이 깃들어있는 낮
익은 동구길에 들어서자 마음속에 짜릿한 정회가
밀물처럼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이 길에서 그는 어머니의 바래움속에 군용배낭을
지고 초소길에 올랐고 병사시절을 마친후에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속에 트렁크를 들고 대학길에 나섰었
다. 그 못잊을 사람들속에는 싱싱한 들꽃뭉음을 한
아름 안은, 눈동자 검은 처녀(지금의 안혜)도 있었
다.

그때로부터 그는 오랜 세월 이 소중한 동구길에
발자국을 찍지 못하였다.

저녁이었다. 기러기떼들이 황혼의 질푸른 하늘로
날아가고있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서명준은 우뚝 멈춰서서 류다른 감회속에 그 노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지은 군민관
계를 주제로한 민요였다. 가을걷이를 도와주려 농
장에 찾아온 병사들이 하모니카로 그 노래를 반주
해주고있었다. 서명준에게는 그 소박한 노래소리가
고향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변모된 마을, 앞을 보면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
지어 서있고 옆을 보면 살진 송아지떼가 파아란 풀
밭을 뛰어다니고있다.

그는 옛 고향집이 있던 산기슭 시내가로 다가갔
다.

인생의 시작과 성장을 지켜주고 품어준 고향집,
그의 첫꿈도 희망도 연약한 첫 노래도 그 토방에서
시작되었었다.

서명준은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며 주절대는 시내
가잔디밭에 멈춰섰다.

어머니 기다려 해가 저물던 추억의 징검다리도,
해바라기가 울바자너머로 가웃이 머리를 내밀던 옛
고향집도 그의 눈앞에는 없다.

동요시절 물장구를 치며 뛰놀던 내가의 징검다리
대신 산뜻한 세멘트다리가 물우에 비껴섰고 할아버
지의 툽소소리가 축향기 풍기는 저녁 대기속에 녹
아들던 옛토방자리엔 빨간 기와를 얹은 유치원이

자리잡고있다.

정깊기도 하고 낮설기도 한 고향의 변모된 모습
...

서명준은 멀리 설천봉이 비껴보이는 시내가에 주
저앉아 저녁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선가 프락포르동음소리가 들려왔다. 질어가
는 어둠속에서 불타는 석양을 원경으로 프락포르의
검은 동체가 용암속에 그의 눈에 안겨온다.

프락포르는 들의 훈향을 그의 얼굴에 풍기며 다
리를 지나 마을길로 들어섰다. 운전칸에는 두 남녀
가 앉아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있다. 그 낭만적인 폭
조가 서명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노래소리는 점점 멀어져갔다.

서명준은 문득 가슴속에 이룰할수 없는 충동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깃드는것을 느꼈다.

(그래 고향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가꾸어 보지
못한 서명준이 너는 좋은 노래도 지을수 없었다.

아, 우리 식의 선률창조도 이 땅, 고향에 대한 사
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위대한 진리의 깊은 뜻을
너는 이제야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서명준은 멀어져가는 프락포르를 한동안 바라보
았다.

(만약 그때) 하고 그는 격동된 상태에서 상념을
툭아갔다. (창작의 부진상태에서 방황할 때 그 뜨거
운 손길이 심어준 창조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추억, 먼 추억의 나래가 퍼득인다....

2

대동강유보도 기슭에 잔디풀이 파랑게 돌던 지난
봄철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서명준은 4. 25문화회
관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방안의 불도 켜지 않은채
창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창밖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있었다. 흐릿한 비발속에 가로등불빛이 부영
게 빛나고 이따금씩 무궤도전차가 창밀을 지나가군
했다. 그는 피아노우에 팔을 짚고 상념에 잠겨 묵묵
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왜 아직 불도 켜지 않았어요?》

문득 안혜의 목소리가 들리는바람에 그는 흠칫
놀라 상념에서 깨여났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안

해의 손길이 스위치를 찾느라고 벽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다.

《불을 켜지 마오. 이대로 있게 해주소…》

안해의 손에서 가방과 저자구력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서명준은 몸을 돌리었다.

순간 그의 눈이 안해의 눈길과 부딪쳤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장식등불빛에 고요하고 생각질은 안해의 눈길이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서명준은 그 눈길을 외면해버렸다. 안해의 눈을 마주볼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눈이었다.

안해가 소리없이 곁으로 다가왔다.

《여보, 날 리해해주오.》 하고 서명준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난 지금 몹시 피롭소. 창작을 시작한후 지금처럼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긴… 처음이요.》

《전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비판받은 일도… 하지만… 앞으로 창작에서 교훈을 찾으면 되지 않아요.…》

안해의 말은 마치 상처에 붕대를 감는듯 부드럽게 느껴졌다.

보슬비가 굽어져 창문에 비방울이 듣는 소리가 점차 커져갔다.

서명준은 눈을 감았다.

민요를 버리고 현대가요를 창작하려고 결심한 그 잊을수 없는 저녁… 그때였는가? 나의 창작생활에서의 갈림길의 시작점…

이태전부터 그가 창작한 곡들은 점점 평범해지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한때 민요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서명준을 잘 알고있는 심의성원들과 창작지도일꾼들은 그의 곡을 두고 난처한듯 머리를 긁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진작곡가로 차츰 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고 명예는 가뭇없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다.

창작에서의 침체기, 부진상태는 달을 지나 해를 넘어 계속되었다.

서명준은 신심을 잃게 되었고 한편 조급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천평의 량쪽에 놓인 마음의 짐은 금방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였다. 드디어 조급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창작실안의 작곡가들은 벌써 현대음악선물창작에서 일제히 성과를 내고있었다. 선물의 흐름은 이미 방향을 바꾼것 같았다.

(아, 저 하늘과 숲과 피아노음계는 달라진것이 없

건만 무엇인가 중요한것이 변했구나. 나에겐 지금 무엇이 모자라는가?…)

늦은 저녁이면 그는 이런 생각에 잠겨 4.25문화회관앞 보통강운하기슭을 걷곤 했다. 드디어 그는 자기가 남들보다 멀리 뒤흔어졌다는것을 절감했다.

홍분은 제나름의 성격을 가지고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들처럼 현대 선물창작에로 대담하게 넘어가자! 민요곡조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는 자기의 심신을 사로잡는 그 병적인 예민성을 굳이 령감이라고 믿어버렸다.

서명준은 몇달전 고민끝에 대담하게 5음계를 탈피하여 복잡한 음역을 가진 선물을 창작했다. 가요반주에서도 주로 소고를 기본으로 형상하였다.

이따금 창작지도일꾼인 하경수대좌가 6,000석무대를 찾아와 형상되고있는 곡을 유심히 듣다가는 머리를 흔들었다.

《서동무, 난 동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누만.》

《대좌동지, 무슨 우려라도…》

서명준은 안경너머로 불안스레 빛나는 대좌의 눈을 지긋게 바라보았다.

솔직하고 자기의 감정을 감출줄 모르는 성미인 하경수대좌는 눈길을 떨구었다.

《글쎄… 내가 낡았는지… 그러나 동무의 그 유순하고 특색있는 민요장기는 어디 갔소? 동무의 이번 곡에서는 현실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 난 아직 모르겠소!》

서명준에 대한 은근한 불만의 목소리와 눈초리는 협주단배우들속에도 있었다. 대중의 귀는 언제나 공정한 법이다. 형식만을 앞세운 서명준의 곡은 결국 무대우에 올랐으나 실패하고말았다. 최종시연회에서 기각되었던것이다.… 곧 미학토론회가 열렸다. 한때는 자기가 창작한 곡의 성과를 두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버릇하던 그 연탁에 그는 다시 나섰다. 비판들은 날카로왔다. 누군가의 흥분한 손길에 의해 연탁우의 물고뿌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어질 때 그는 두눈을 감았다. … 어떻게 되어 내가 현실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탁상곡을 만들어냈는가? 재능이 부족해선가? 탐구의 열정이 없어서인가? 민요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인가? … 서명준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자기의 결함, 그 실패의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이튿날 **김정일**동지께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지

도하시기 위하여 인민군협주단에 나오시였다. 서명준은 차마 그이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설수 없었다. 자신에 대한 죄의식에 손발이 얼어들고 눈길은 발 밑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자책감에 모대기던 그는 언제 협의회가 끝나고 장군님께서 방을 나서시였는지 알지 못했다.

현관을 나서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홀로 서있는 서명준을 발견하고 놀라신듯 자리에 멈춰서시였다.

《아니, 이게 서동무가 아니요? 왜 방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서있었습니까?》

서명준은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는 이 순간 사람이 자기의 손을 건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

《왜, 비판을 받아서 그러오?》

《...면목이 없습니다.》

서명준의 고뇌에 찬 목소리를 들으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낮빛을 흐리시며 그의 앞으로 다가오시였다.

《명준동무, 집단이 동무를 비판한것은 잘못된 창작태도를 바로잡자는것이건지 인격을 무시한건 아닙니다....》

그이께서는 피로우신듯 자리를 뜨지 못하시며 서명준의 어두운 얼굴을 일별하시였다.

《...》

《작가동무, 어머니가 자식을 질책하는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비로소 서명준은 자기가 경애하는 그이께서 근심을 하시기 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서명준은 안해를 바라보았다.

《여보, 용기를 내세요. 병사시절의 그 열정은 어디에 갔어요. 초소의 눈길에서 음악의 힘에 대해 부르짖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그때 제가 배우가 되어 첫 순회공연의 길에 올랐을 때였지요... 참...》

서명준은 안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고맙소. 하지만 이젠 내가... 무능한가 보오. 보답을 못하니... 괴롭구려...》

《여보, 난 당신이 꼭 자기를 찾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예술단 성악조에선 아직 당신이 이전에 창작한 곡을...》

안해는 눈물이 글썽하여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명준은 안해의 눈길을 외면했다.

《여보 어제날의 창작성과에서 위안을 찾을수는 있어도 그게 지금 나에게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려...》

《장군님께서 당신의 곡을 명곡으로 내세워주시던 그때를 벌써 잊었어요? 당신은 정말...》

안해는 안타까운듯 입술을 깨물었다.

서명준은 얼굴을 책 돌렸다. 그리고는 안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행복의 그 순간, 자기의 인생행로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시각...

3

서명준이 해병생활을 거쳐 음악대학을 졸업한후 신입작곡가로 첫 창작생활을 시작하던 때였다.

서명준은 영광스럽게도 **김정일** 동지께서 세심히 지도하시는 혁명가극창조집단에 속하여 창작전투를 벌렸었다.

어느날, 인민군협주단 창작실에 앉아 그동안 그가 안개속의 파역을 향해 날려보낸 화살처럼 아무런 결과도 없이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은, 그 누구의 눈길도 끝수 없었던 악보들을 주섬주섬 뒤지며 우울한 생각에 잠겨있을 때 하경수대좌가 급히 서명준에게로 찾아왔다.

《서동무, 빨리 가지요. 극장에 나오신 장군님께서 곡들을 들으시다가 동무를 찾으시오!》

대좌의 진중한 눈에는 흥분의 빛갈이 번뜩이였다.

서명준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쩔줄을 모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중하고 강직한 성격인 서명준은 평소에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하건만 이 순간 그는 자기를 주체할수가 없었다.

서명준은 오선지들을 품에 안고 하경수대좌의 흥분한 얼굴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경수대좌는 못박힌듯 굳어진 그를 이끌고 극장의 동쪽대기실로 향했다.

매염제를 바른 커다란 참나무문이 소리없이 열리었다.

일군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얼굴을 돌리시였다.

저도 모르게 방안의 숨막힌 분위기에 위압된 서명준은 평소의 침착성을 잃고 몸둘바를 몰라 하며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서명준을 눈여겨보시다가 반가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아니, 이게 군항에서 만났던 병사작곡가동무가 아니요? 참 반갑습니다. 내 오늘 창작된 곡들을 듣다가 어쩐지 선율양상이 귀익다 생각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명준의 손을 다정히 잡고 일군들을 돌려보시였다.

《구분대예술소조무대에 올랐던 이 동무의 선율은 참 인상깊은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동무를 보니 기쁩니다.》

서명준의 눈앞에는 파도세찬 군항의 기슭, 그이께서 함선을 찾으시여 해병의 소박한 작품을 보아주시던 그 영광의 순간이 우렁이 떠올랐다. 서명준은 그후 그이의 은정깊은 사랑의 해빛을 안고 음악대학으로 떠났었다.

그이께서는 서명준을 친근한 눈길로 이윽도록 바라보시더니 조용하신 어조로 문득 물으시였다.

《서명준동무는 농촌태생이 아닙니까?》

뜻밖의 물음에 긴장하게 서있던 서명준은 그만 어리둥절해버렸다.

《군대에 입대하기전에 시골에 있는 외가집에서 자랐습니다.》

서명준은 머뭇거리며 서둘러 대답을 올리였다. 《달 밝은 저녁이면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통소를 불러주면서 고향의 전설도 들려주곤 했습니다.》

서명준은 그이앞에 속을 다 터놓고싶은 류다른 충동을 느꼈다.

《내 짐작이 옳았습니다. 난 동무의 곡을 들으며 쫄레꽃이 하얗게 핀 고요한 동구길이며 모기불연기가 피어오르는 농촌마을을 생각했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창문쪽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만큼 표현합니다. 체험이란 그래서 귀중한거요.》

《장군님, 서명준동무는 음악대학시절에도 민족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하경수대좌가 버릇처럼 안경테를 왼손으로 올리고 나서 정중히 말씀을 드리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작된 곡들을 들으니 작곡가동무의 력량이 알립니다. 나는 태백산병동장면에 나오는 서동무의 곡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재능있는 창작가를 발견했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서명준은 순간 눈곱이 축축해 오는것을 느꼈다.

이 세상에 자기의 미숙한 곡을 알아주시는분이

있다는, 그분이 다름아닌 **김정일** 동지이시라는 이 꿈같은 현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이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서명준을 여겨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는 계속 민족적인 양상을 살려나가야 하오.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곡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술적재능이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높은 창작적열정, 나는 여기에 바로 창작가의 재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명준의 눈앞은 뿌옇해졌다. 그이의 말씀은 해면우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서명준의 심장에 아로새겨졌다.

서명준은 이 순간 자기자신이 방금전보다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 갑자기 더 성장했다는 뚜렷한 느낌이 들었다.

이날은, 이 순간은 그의 창작생활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된 운명적인 시각이였다. 그는 신심은 가지고 민요창작에 들어섰다. 그는 순풍에 돛단듯 눈부신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 출판된 작곡집과 소리판들, 병사들이 보내온 편지들, 조명등에 눈이 시울던 텔레비죤좌담회장들...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환희가 지금 봄날의 눈석처럼 가뭇없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던것이 다.

(장군님의 사랑속에 성장한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다니...

아, 내게 지금 무엇이 모자라는가?

집단과 동지들의 충고를 받고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분에서 걱정을 하시게 하다니... 심장아, 대답해다오!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서명준은 회상에서 깨어나 눈을 감았다. 눈앞이 현훈증이라도 온듯 캄캄해진다. 무서운 공허, 다시 자기를 비판하던 준절한 목소리들이 들린다. 아니, 지금 창문가에는 비바람소리만 소연하다.

서명준은 두눈을 감은채 안해를 향해 피롭게 중얼거렸다.

《여보, 이젠 다른 부문으로 돌아야 할것 같구려... 이건 진실이요.》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지나갔다. 가로수들이 쇠쇄 태질하듯 설레이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4

창밖, 해넘이가 시작된 서편하늘에는 장미빛락조가 불타오르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타자지를 집무탁에 놓으시고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석양노을이 봄물오른 은행나무숲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있다. 정원에서는 고요한 저녁의 대기를 가득 채우며 꽃향기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지금 그이의 집무실에는 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협주단지도성원들이 와있었다.

(그러니 서명준동무가 이번 전국음악무용예술축전에 참가하지 못한단 말이지...)

김정일 동지께서는 피로우신듯 창가에서 돌아서시여 집무탁우에 무드기 쌓여있는 서류들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맨우에 놓인 타자지를 다시 집어드시였다.

해당 기관에서 올려온 예술부문사업과 관련한 문건이였다. 그이께서는 문건을 채삼 검토하시다가 다시 마지막페이지의 글줄우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거기에는 오래동안 부진창작가로 있다가 이번에 집단과 동지들의 비판을 받은 인민군협주단 작곡가 서명준을 군대안의 예술양성기관으로 조동시키려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문건을 들여다보시다가 문득 물으시였다.

《그래 동무들, 서명준작곡가를 기어코 조동시킬 계획입니까?》

그러자 몸이 갠장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들은 협주단 정치부와 토론하고 그 동무를 00학원 민속기악강좌 교원으로 조동시킬것을 합의 보았습니다.》

《민속기악강좌 교원이라...》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히 뇌이신후 하경수쪽을 돌아보시였다.

《경수동무, 이번에 진행하는 예술축전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하경수는 정중한 자세로 일어섰다.

《며칠전부터 창작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신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축전에서도 협주단이 일등을 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하지만 예술경연에서도 첫자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군병사들에게 힘을 줄수 있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일군들을 둘러보시다가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래 경수동무, 서명준동무를 꼭 교원으로 돌려야겠소?》

《이젠... 그 동무가 신심을... 잃고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문에 돌려 새 출발을 시키는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동무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그럼 서명준동무를 다른 부문으로 돌리면 협주단에서 우리 식의 새로운 명곡이 나올수 있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하신 어조로 물으시였다.

하경수대좌는 그이의 물으심에 당황하여 눈길을 떨구었다.

《서명준작곡가를 조동시키면 시대의 미감에 맞는 인상적인 명곡이 나오는가 말입니다. 어디 대담해보시오!》

《?...》

그제야 하경수와 해당 일군들은 말씀의 뜻이 이해되어 머리를 숙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창문쪽으로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어둠질은 창밖 정원숲을 내다보시다가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였다.

《나는 동무들의 심장이 그렇게 뜨겁지 못한데 놀랐습니다. 그래 한 인간의 운명문제를 놓고 동무들이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할수 있는가? 그 동무에게서 오선지를 빼앗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 동무는 어린 시절부터 작곡을 희망으로 삼고 반생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늘 순풍에 돛단듯 성공의 길만 걸을수는 없습니다. 창작은 생산이 아닌만큼 고충도 있고 때로는 답보도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망탕 췌버린다면 우리가 누구와 손잡고 주체예술을 건설하겠습니까? 재능을 찾아야 하며 키워야 합니다. 훌륭한 명곡을 찾아내기에 앞서 인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명곡이 우리의 보통생활속에 있는것처럼 재능도 평범한 우리 인민들속에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소박한 우리 인민들을 믿으시고 그들속에서 혁명의 핵심들을 키워내시여 우리 혁명을 오늘에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수수한 농촌소녀를 혁명영화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시고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시여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전의 일만 봤지 한 인간의 운명을 놓고 자신의 일처럼 심사숙고하지 못했습니다.》

하경수대좌가 자책어린 목소리로 나직이 말씀을 올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대화를 이윅도록 바라보시다가 그들쪽으로 다가가시었다.

《나의 심정을 리해했다면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며칠전에 본 서명준동무의 수척한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동무가 이전에 창작해서 우리 인민을 기쁘게 했던 명곡들을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장군님, 집단이 달라붙어 그가 이번 예술경연에 좋은 작품을 내놓도록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장령의 말을 들으시고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우리 함께 방도를 생각해봅시다. 우리 식의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민요창작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 문제는 서명준동무의 부진의 원인을 찾아내는거요.》

5

일군들이 물러간 다음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방안을 거니시다가 음향설비앞으로 다가가시었다. 그이께서는 몇해전에 나온 서명준이 창작한 민요들을 틀어 놓으시고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시었다.

은근하고 민족적색채가 강한 인상적인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와 집무실안을 가득 채웠다.

그이께서는 결상에 앉으시여 손으로 책상을 짚으신채 명상에 잠기시었다.

(물론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만큼 표현한다. 서명준작곡가의 경우도 예외로 될수 없다. 그는 현실을 멀리하다나니 발전하는 시대에 자기의 예술적심장을 따라세우지 못했다. 결코 재능이 사라진것이 아니다. 저 곡들에는 그의 체험과 향토에 대한 사랑이 맥맥히 굽이치고있지 않는가! 그 열정과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 이 민요장끼를 발전시킬수는 없는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찌기 서명준이 창작한 수십편의 곡들을 일일이 다 들으시었다.

창밖, 정원숲에는 어둠이 깃들고 검푸른 하늘에는 별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고요한 선율과 함께 밤이 깊어갔다.

이윅고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무드기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시다가 수화기를 드시었다.

자신께서 짐작하신대로 하경수대좌는 아직 창작실을 뜨지 못하고있었다.

《경수동무, 동무생각엔 어떻게? 서명준동무가 지금 잠들었을것 같소?》

창밖의 물으심에 하경수는 한참만에야 대답을 올렸다.

《제 생각엔... 잠들지 못할것 같습니다.》

《웁소. 내 가슴이 이렇게 피로운데 당사자인 그 동무야 오죽하겠소! 난 서동무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아야 발편잠에 들것 같소.》

창밖에 먼동이 떠오려는듯 희끄무레한 새벽기류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있었다.

《장군님, 밤이 꽤 깊었습니다.》

《일없습니다. 밤이 아니라 새날이 시작될것 같소. 동지가 피로워하고있는데 밤을 천번 새운들 뭐라오? 좋은 봄날인데 서명준동무랑 함께 시원한 대동강기슭을 걸어봅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고 곁에 다가온 일군에게 서명준의 고향가까이에 있는 군부대번호를 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 송수화기를 드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군부대교환을 찾으시었다.

6

서명준은 야전복차림으로 대동강유보도에 서계시는 **김정일** 동지를 일별하는 순간 자리에 우뚝 굳어졌다.

《며칠새 얼굴이 더 축간것 같구만.》 하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명준의 인사를 받으시고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유보도를 걸으시며 보슬비 내리는 대동강쪽을 바라보시었다.

멀리 장안을 따라 번들거리는 비웃을 입은 밤낱시군들의 모습이 어슴푸레 눈에 안겨왔다. 고요하였다. 아직은 평양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려명전야였다.

이따금 정기빠스들이 가벼운 동음소리를 내며 옥류교를 지나 동평양쪽으로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서명준의 무거운 얼굴표정을 얼핏 일별하시고나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었다.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열정을 쏟아부을 때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는 법이요. 저 낯시군들을 보시오》 그이께서는 강반쪽으로 한손을 추켜드시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이렇게 비를 맞으며 밤을 밝히고있소. 만약 이 아름다운 강반에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들과 저 꾸준한 낯시군들이 없다면 그

게 무슨 대동강의 풍치겠소! ... 동무들도 저 행복한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명곡들을 창작하기 위해 밤을 새는게 아니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활발하신 걸음으로 비물에 젖은 유보도길에 발자국을 찍으시었다.

서명준은 한결 마음이 밝아지는것을 의식하며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난 동무가 비판받은 곡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소. 얼핏 듣기에 그 곡은 재치있는것처럼 느껴질수 있소. 경수동무, 아마 예술위원회에서도 그래서 통과시켰겠지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하경수를 돌아보시었다.

《예...》

하경수대좌는 솔직히 대답을 올리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그 곡은 우리 식의 곡이 아니었소! 현실의 숨결이 전혀 없는 남의 장단에 춤을 춘것이였소. 동무는 이걸 랭철히 깨달아야 하오. 민족성을 잃은 예술은 벌써 예술이 아니요.

서동무, 조선사람인 우리가 무엇때문에 유순하고 우아한 우리의 노래를 버리고 남의 장단에 놀겠는가. 이건 단순한 민족적자존심문제가 아니요. 특히 군복을 입은 혁명군대의 예술인들은 자기 조국과 인민으로부터 출발한 자기의 미학관,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하오이건 단순한 민족적자존심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영화나 소설 그리고 무대예술부문을 지도하면서 이 문제를 중시했소. 나는 혁명가극을 창조하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철학의 심오성과 그 생활력을 다시한번 확인했소.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 자기 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창조에서도 이 철학을 가질수 없는거요!》

《!...》

열정에 불타시는 **김정일** 동지의 준절한 말씀은 두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령님께서는》 하고 그이께서는 다시 조용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일찌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하여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것이라고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소. 난 고리끼, 레닌의 저서에서도 이와 같은 명백하고 집약적인 명제를 찾아보지 못했소. 결국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의 사실주의는 민족성과 현대성에 대한 혁명적인 견해를 우리앞에 제기하고있소.

그러면 혁명군대의 예술인들, 창작가들은 시대에 맞을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한순간 반짝이다 사라지

는 섬광같은 곡조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재부와 높은 직무인가?...》

음악과 인생철학에 대한 그이의 비범하고 해박한 분석앞에서 서명준은 머리가 수그러졌다. 그이의 심원한 미학세계를 감득하게 되는 이 순간 서명준은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환멸이 보잘것없는것으로 느껴졌다. 과연 자기는 피아노앞에 앉으면서 혁명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웠는가, 혁명군대의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선 자각을 가졌는가, 자기의 명예, 그 명예의 유지, 습관된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욕망과 위구, 경쟁심그이의 심원한 미학세계를 감득하게 되는 이 순간 서명준은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환멸이 보잘것없는것으로 느껴졌다...

서명준은 새로운 의미로 비쳐지는 자신에 대한 환멸을 다시 절감하며 짧은 순간 상념속을 헤맸다.

그는 유보도이음짚에 군화가 걸쳐여 몸을 비청거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어깨를 부축해주시었다.

서명준은 가쁜 호흡으로 말이 토막나는것을 느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자기의 창작을 두고 개인적인 고민에 머물러있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얼핏 그를 돌아보시더니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서동무, 동무의 창작에서의 부진과 결함의 원인은 시대의 선물을 탐구하려는 열정이 부족한것이요. 다시 말하면 현실을 떠났기때문이요. 현실은 창작의 어머니요. 예술가에게 필요한 감성적인식은 오직 현실에서만 얻을수 있소.

서명준동무, 혁명군대의 가수가 되려면, 군인들을 교양하는 우리 시대의 선물을 찾아내려면 이런 감성적인식이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되어야 하오. 우리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이 불타야 하오. 교수대에 오르면서도 혁명가를 격조높이 부를수 있었던 투사들의 그 불타는 심장에 자기 심장의 고통을 맞추어야 하오.》

서명준은 그 무엇인가 위대한 발견의 계시를 받았을 때처럼 이 순간 자기 가슴의 흥벽을 팡팡 두드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뚜렷이 듣게 되는것이였다.

7

보슬비에 축축히 젖은 야전차 한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와 유보도기슭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중

키에 회색가방을 든 한 일군이 성급히 뛰어내려 반달음쳐왔다.

《무슨 일이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일군이 다가오자 조용히 물으시었다.

《외국에 나가있는 군사대표단동무들이 긴급히 결론받을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선서부 부대에 서 중소형발전소조업을 앞두고 지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 일군은 초조한 낯빛으로 서류철을 만지작거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우리는 지금 새벽을 맞고있는데 외국에 나가있는 동무들은 이미 점심준비를 서두를거요. 국제전화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8시에 전선으로 출발합시다.》

그 일군은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짓고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보더니 가방에서 포장한 꾸레미를 꺼내들었다.

《출발을 오후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얼마간이라도 휴식을…》

《일없소. 야전차에서 몇분 눈을 붙이면 되지. 야니 그보다도 요즘 협주단동무들이 창작한 노래를 들으면 피곤이 다 풀릴거요. 그래 가져왔소?》

《새로 발굴한 민요음악자료들입니다.》

일군은 들고있던 꾸레미를 그이께 드리었다.

《수고했소. 내 곧 가겠소.》

그이께서는 서명준과 하경수에게로 돌아서시었다.

《시간만큼 무자비한것은 없구만. 오늘 동무들과 함께 혁명군대의 예술을 발전시킬 방도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겠소. 자, 서명준동무, 이걸 받소. 참고가 될거요.》

서명준은 그이께서 자기의 창작적 개진을 위해 돌려주신 그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은정에 목이 메이느것을 느꼈다.

그이께서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동무들, 우리가 주체음악을 건설하면서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결합한 배합관현악을 창조했듯이 동무들이 우리 식의 가요창작에서도 이 경험을 연구해볼것을 권고하오. 우리 시대의 선률창작과 형상에서도 우리 식의 민성과 양성을 결합할수는 없는가.…》

(우리 식의 민성과 양성의 결합!…)

서명준은 불현듯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난 동무들이 우리의 이 미학적리상을 리해하리라 봅니다. 서동무는 민요창작에서 경험이 있으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예술의 새로운 경지, 미지의 세계였다. 서명준은 앞이 탁 트이는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힘이 생깁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명준의 대답을 들으시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었다.

《자기의 힘들 믿어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지. 창작실에만 박혀있으면 제 무덤을 파는것과 같소. 병사들이 즐겨부를수 있는 우리 식의 노래를 창작하자면 반드시 현실속으로 들어가야하오.》

병사들이 생활과 투쟁의 길동무로 삼을 그런 시대의 선률을 찾아내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 조국, 우리 현실을 뜨겁게 대해야 하오!》

《당장 병사들속으로 떠나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로운 결심의 빛이 내비친 서명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내 생각엔 서명준동무가 고향가까운 구분대로 가는게 좋을것 같구만.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면 얻어지는게 있을거요. 그곳 구분대 군인들이 요즘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도와주고있소! 내 구분대장동무에게 전화를 했으니 인차 떠나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서명준은 군복깃을 여미고 그이를 우러러 섰다.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빙그레 웃으시었다.

《서명준동무의 목소리가 확신있게 울리니 내 마음도 가벼워지오. …비가 멎으니 대동강의 경치가 더 아름답소. 날이 밝소! 참 좋구만!》

서명준과 하경수는 그이의 눈길을 따라 대동강을 바라보았다.

푸릿한 동쪽하늘에 불그레한 노을이 점차 짙어오면서 물위에 금빛을 휘뿌리기 시작했다. 비구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평양상공은 약동하는 새날의 숨결로 충만되었다.

서명준은 자기의 마음속에도 그 노을이, 환희에 찬 새날의 숨결이 밀려들음을 느끼며 승엄한 마음으로

로 그이를 우려했다.

《장군님, 또 이렇게 밤을 새시면...》

김정일 동지께서는 하경수대좌의 절절한 말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고맙소. 하지만 난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 새벽을 맞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두사람은 야전차가 대동강기슭을 떠나 새벽거리로 벌어져 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있었다.

서명준의 가슴은 이 순간 활화산처럼 타번졌다.

(그 무슨 힘이 지금 나의 가슴속에 이런 격동과 생동한 활력을 심어주었는가? 크나큰 심장, 위대한 인격의 힘이란 이런것인가? 사람들은 저분을 별에, 태양에 비긴다. 이 세상, 온 우주에 비기자 해도 이 세계, 이 천지가 모자라누나! 아!...)

서명준의 얼굴은 아침노을에 붉게 물들었다....

8

서명준은 회억에서 깨어났다. 시내가 푸른 언덕의 들꽃들이 고향의 저녁바람에 가볍게 설레이고있었다.

날과 날이... 흘러갔다.

어느날 서명준은 들판에 나와있었다.

바람과 별에 그늘어 그의 얼굴은 적동색으로 변해버렸다. 그사이 그는 주변구분대에 숙소를 정하고 내내 고향의 들에 나가 살았다.

흙의 훈향과 들바람은 그의 마음속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었다. 그는 반생을 살아오면서 호미와 낫의 감촉을 처음으로 류다르게 느껴 보았고 벼수확기를 타고 지평선을 향해 달리면서 구수한 낱알향기를 가슴 흐뭇하게 맛보았다.

모닥불 타오르는 전야의 밤, 그는 두엄냄새 풍기는 벼나래우에 걸터앉아 병사들과 농민들의 구성진 노래를 들으며 탐구와 모색의 세계를 달렸었다.

해질녘이었다. 해넘이가 시작된 땅끝, 서편하늘에는 피빛락조가 물들어있다.

기러기떼가 날아올라 금노을속에 나래를 퍼덕이며 아득한 공간으로 사라진다.

변함없는 대지는 자기의 풍만한 표정을 바꾸지않은채 무거운 벼나락들을 살진 품에 부여안고 은근하고도 장중한 음향으로 대기를 가득 채우고있었다.

서명준은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고있었다. 장엄하고 신비한 그 곡조가 그의 마음속으로 흘러들고있었다. 그는 아예 땅우에 엎디어 귀를 대고 대지의 그 음향을 듣고싶었다.

축축한 풀잎이 그의 입언저리를 간지럽히었다. 그는 그 푸르누레한 풀대를 꺾어 질근질근 씹으며 두눈을 감아버렸다. 령감은 기억도 없이 심장의 문을 팡팡 두드렸다.

황금물결 받들어 이 땅은 변함없고

내 조국을 받들어 병사를 변함없네

...

서명준은 문득 오선지가 들어있는 군복웃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한순간 그는 손길을 멈추었다. 자기가 체험한, 느끼고 받아안은 그 거창한 선물의 세계를 작은 오선지에 담기에는 그 무엇인가 모자라는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례의 그 불안한 조급증이 다시 깃들기 시작했다.

서명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떠나는 들판끝을 바라보았다.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 누가 배워주지도 않은, 그 무엇의 구애도 받지 않은 구성지고, 흥겹고, 랑만적인 곡조. 누가 말했던가, 예술은 노동에서 나왔다고. 아니, 이 순간 그는 예술론의 론리학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복의 선물, 삶의 속삭임을 듣고있었다.

서명준은 벼종합수확기 곁에서 낫을 번쩍이며 주둔지역 병사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하는 하경수의 모습을 일별했다. 노을빛에 대좌의 안경알이 번쩍였다. 어제저녁에 도착한 대좌의 가방에는 서명준이 현지에서 창작하여 보낸 작품들에 대한 협주단 예술위원회의 긍정적인 지지와 의견을 적은 사업수첩이 들어있었다.

서명준은 다시 명상에 잠겼다. 그는 문득 가까이에서 야전차발동소리가 들리는바람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한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수한 야전복을 입으신 **김정일** 동지께서 군관들과 함께 활달하신 걸음으로 들길을 걸어오고계시었다.

서명준은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서둘러 그이께로 다가가 인사를 올리였다.

《들바람을 쏘이더니 그 사이에 서동무의 얼굴도 몰라보게 되었소. 구분대전투원답소. 누가 동무를 작곡가라고 보겠소. 어디 손이나 잡아보지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서명준의

적동색얼굴을 바라보시었다.

서명준은 당황하여 낫을 들었던 두손을 모아쥐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허허, 내 그래서 잡아보자는거요.》 하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허물없이 손을 잡아주시었다.

《이 손이 어떤 손이요. 창조하는 손이고 총대를
진 손이 아니요. 굳은살이 다 배겼구만. 내 방금 군
부대정치부에서 동무이야기를 들었소. 혁명군대의
예술가답게 군인들과 농민들속에 좋은 영향을 주었
소.련합부대훈련을 보아주러왔던김에 동무를 만나
보고싶어 들렀소. 동무의 고향도 돌아볼겸…》

서명준은 그이께 손을 맡길채 몸돌바를 몰라했다.

《저는 고향땅에 와서 많은걸 배웁니다. 저는…
고향사람들의 생활에서 어제날의 할아버지의 통소
소리와 오늘의 우리 인민의 밝은 노래소리를 들었
습니다.》

《서명준동무가 좋은걸 배웠소. 내 그래서 동무를
여기 고향으로 보낸거요. 우리 인민은 속마음을 감
추지도 않고 수식어를 달지도 않소. 내 오늘 이곳
구분대 한 병사동무를 만나 얘기해보니 동무들이
지는 노래에 대해서 견해가 명백했소. 부르는 노래
가 따로 있고 듣는 노래가 따로 있다는거요.》

김정일 동지의 말씀에 서명준과 곁에 달려와섰던
하경수대좌의 얼굴이 금시 붉어졌다.

《서명준동무, 군인들의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하오.
그들은 좋은 노래는 부르고 싫은 노래는 부르지 않
소. 노래는 책이나 화면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심
장속에 간직되거든. 그래서 우리 당은 음악예술발
전에 힘을 넣는거요!》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9

《그래 서명준동무 들에 홀로 앉아 무슨 생각을
하했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며 들판을 둘러
보시었다. 그이의 안광에서 뿜어나오는 빛발을 받
자 대지도 금나락도 노을도 숨을 죽이고 새로운 색
조로 변해버리는듯 싶었다.

《전… 대지의 음향을 듣고있었습니다.》

서명준은 가볍게 얼굴을 붉히며 솔직히 말씀을렸
다.

《대지의 음향이라… 역시 서동무다운 대답이
요!》 하고 그이께서는 명쾌하게 웃으시더니 이윽

도록 전야를 부감하시었다. 《좋은 곳이요. 수령님
께서는 이런 풍요한 들길로 벼단을 가득 실은 트랙
포르들이 달리는 풍경을 보시면 10년은 젊어진다
고 말씀하시곤 하시었소.

땅이 꺼질것 같구만!…》

《!…》

《그래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지.…
왜 그 소리만 들리겠소. 저 장쾌한 트랙포르의 동음
과 병사들의 흥겨운 노래소리를 들어보오. 저게 우
리 시대의 선률, 생활의 노래거든. 수천년을 누워있
던 이 대지의 음향도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우리
인민에 의해 새롭게 울리고있소. 이걸 예술로 포착
해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의 현실을 뜨겁게 대해야
지. 그래야 창조의 열정이 생기거든!…》

기러기떼들이 무리지어 락조를 향해 날개를 번뜩
이며 날아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손을 이마가까이에 가져가
시고 명상에 잠기시여 노을비낀 들판의 하늘을 바
라보시었다.

(대지의 음향,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와 병사들의
노래, 트랙포르의 동음… 민성과 양성의 결합이란
무엇인가?

시대의 선률! 그래! 이 장엄한 대지의 교향곡도
김정일 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 주체혁명위업의
건설자들이 창조하고있다!…)

이 순간 서명준의 가슴속으로는 크낙한 감정의
격류가, 아름다운 선률의 세계가 거 창한 화음속에
융합되어 태동하고있었다.

그는… 심장의 《오선지》 위에 그 열정의 선률을
적어 나갔다.…

10

김정일 동지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서명준이 작
곡한 선률을 몸소 보아주시었다

서명준은 보물인 오선지를 이윽도록 들여다보시
는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며 문득 은백양나무가지에
눈송이가 쌓이던 저녁 자기의 첫 작품이 울려나올
라지오앞에 앉아 기다리던 그때를 생각했다. 유년
시절부터 키워오고 품어온 희망이 실현되어 자기의
첫 생명, 첫선률이 이제 온 세상에 울려퍼진다고 생
각할 때 그의 가슴은 바위에라도 짓눌린듯 옥죄여
들고 그런가 하면 현물바래가 뿜어올라 기슭을 치
는 해안에 나섰을 때처럼 마음속이 서늘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회한과 새로운 열정이

가져다준 운명의 첫 곡을 보여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마음을 조이는 이 순간의 팽배한 정신적앙양과 압축에는 그 모든 인상깊은 추억들도 도저히 비길수 없었다.

문득 서명준은 **김정일** 동지의 청청하신 음성을 들었다.

《서명준동무, 훌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선물입니다. 민성과 양성을 결합한것은 하나의 발견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내용에 민족적형식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잘 반영되어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당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서명준은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오는것을 의식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명준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었다.

《서명준동무, 수고했소. 군복입은 창작가답게 새 출발을 잘했소. 우리 인민, 구체적으로 고향과 향토에 대한 뜨거운 애착은 우리 식의 서물을 창작하는 창조의 열정을 낳는 법이요. 난 동무게 우리의 기대에 꼭 보답하리라 믿었했소. 고맙소! 서명준동무.》

김정일 동지께서는 눈가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하경수쪽을 돌아보시었다.

《어떻습니까? 경수동무, 이 곡을 형상해서 이번 축전에 내놓아야겠소. 전번에도 말했지만 인민군대

가 1등을 해야 합니다.

민성과 양성의 결합, 이것은 하나의 발견입니다. 우리 식의 발견이란 말입니다. 향토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식의 선물을 낳았습니다!》

《장군님, 인민군대가 꼭 1등을 하겠습니다!》

하경수가 격동된 어조로 대답을 올렸다.

서명준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샘줄기처럼 솟아올라 볼을 적셨다.

발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발견이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한 인간의 작은 싹을 먼저 발견해주시고 전사의 심장속에 힘과 재능을 키워주셨기때문입니다. 한 보통전사의 식어버린 찬 심장에 시대와 현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심어주셨기에 민성과 양성을 결합한 우리 식의 선물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아! 이 땅에 명곡풍년은 어떻게 드는것인가! 바다가의 모래밭에서 금싸래기를 고르듯 수천권의 곡에서 명곡을 찾아내시여 주체시대의 대 교향곡을 창조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야전차는 들쭉이 뮐 내가를 지나 들길 멀리 달려가고있었다.

금나락이 물결치고 땅이 숨쉬고있었다.

노을이 불타고 어머니대지가 목메여 노래하고있었다.

우리 어머니

홍철진

등에 업은 자식 자라
손목을 쥐면
또 다른 자식을 업어야 했고
손목을 쥔 자식이 어른되어도
끝까지 따라서며 보살펴주는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자식이
제일 많은 까닭에
걸어서는 다 줄수 없어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불같이 달리며 사랑을 준 어머니
살아서 못다준 사랑이라면
죽어서도 품에 안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

이 땅에
고난이 닥쳐왔던 나날엔
슬하의 천만자식
더 억세게 끌어안은 어머니
자기를 태운 뜨거운 열로
얼어붙은 하늘땅을
봄날처럼 녹여준 우리 어머니

한평생 열과 빛을
다 뿌려주고도
자기의 심장마저
자식의것, 인민의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위대한 어머니가
다름아닌 조선로동당
아, 우리의 **김정일** 동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우리 당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이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성
 이며 기본특징이다.》

어머니당의 탄생일에

리진철

삼가 옷깃을 여미고
 이 새벽을 맞이한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하늘
 새날은 여느때처럼 밝아오건만
 밤새 깊어진 생각과 더불어
 보통날처럼 맞이할수 없는 이 새벽

조용히 거니노니
 나처럼 잠못들던 그 마음들이 피어난것인가
 창가며 네거리 그 어데나 꽃의 바다
 꽃의 바다우에 풍선을 안은 경축관들
 주홍빛 하늘가에 나뭇기는 당기발
 아, 10월 10일 어머니당의 탄생일이여!

이날은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쳐
 해방의 새봄 안고오신 우리 수령님
 당이 없이는
 건국도 새삶도 없기에
 해방된 땅에 선참으로 당을 창건하신 날

이날은
 선렬들의 붉은 피로 물든 기폭에
 마치고 낮과 붓을 새겨안은 우리 당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친근한 어머니가 되어
 내 나라에 영원한 번영을 약속한 날

그날부터 언제 한번 만시름놓고
 깊은 잠에 든적 있었던가
 자식들의 아픈 눈물 다 닦아주고
 눈비도 불구름도 다 막아주느라 긴긴 밤...
 폐허우에 일떠세울 락원의 높이를 가늠하며
 산에 들에 인민의 기쁨 흐르게 하려 긴긴세월...

그렇게 60년 가까이
 조국을 닦고닦아 보석처럼 빛내주고
 인민을 품에 안아 영웅으로 키워준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
 선군의 총대 높이 든 그 모습 우러를 때
 더더욱 숭엄해지는 우리의 마음이여!

아, 애국애족으로 뜨겁고
 선군으로 굳세인 어머니시여
 그대를 잘 만나 흥하는 조국이고
 그대를 잘 만나 복많은 인민일진대
 이 새벽 그대에게 감사의 인사 올리는 마음들
 어찌 뜨거운 맹세로 불타지 않으랴

그렇다! 어머니의 생일날 자식들 마음속엔
 오직 어머니에게 기쁨만을 드릴 맹세뿐이거니
 당이여, 어머니시여
 우리를 굽어보는 그대의 눈빛앞에서
 그대의 아들딸들인 우리는 언제나
 선군의 총대높이 영광만을 펼치리!

수령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ㄷ. <>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혁명적당 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었다. 모든것이 <ㄷ. <>로부터 시작되었다.

<ㄷ. <>가 발전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되고 공청으로 되었다.

공청이 키워낸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반제청년동맹이 이루어놓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곧 당 창건의 기초로 되었다.》

10 월 17 일

한광춘

이날에 떠났다
피땀은 열혈의 청춘들
우리 혁명의 첫 대오가
자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닳을 올린
10월 17일

손에 손을 덧놓으며
수령님 따라
투쟁의 천만리를 맹세하던
그 눈빛들이
하늘가 노을에 붉게도 어려오는 이날

삼가 우러르면
우리 당 기발은
그 세찬 퍼덕임으로 이날을 속삭여주고
휘발하강가의 고요를 흔들어
누리를 잠깨우던
그 열정의 노래를 들려주나니

이날이여라
우리 당의 뿌리가 내려졌고
조국의 오늘이 마련된 날
이 땅에 뜨고 진 해와 달

그 세월의 흐름우에
더욱더 밝게 빛나는 이날

이날의 맹세는
불바다를 건너 총검의 숲을 지나
당창건의 10월로 이어졌고
이날의 기치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나뭇기나니

조국과 혁명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아버이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신 날
이날부터 조선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을 맞이한
혁명의 분과 초로 시작되지 않았던가

아 10월 17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당의 역센 뿌리가 되여
태양을 받드는 억만잎새들을
무성하게 자래우고있어라

목좌에 비낀 밝은 빛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몇 해전이었다.

서울장안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여 리발을 하시고 가셨다》는 소문이 번개뒤편의 우뢰소리처럼 퍼져서 사람들을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장군님께서 평양면옥에 찾아오시여 국수를 드시고 가셨다는 이야기라든가 지어는 부산의 고급리판에 들리시여 하루밤을 쉬어가셨다는 소문이 터져서 조선 팔도강산이 바람부는 날 갈숲처럼 술렁거리고 있는 때에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총독부가 틀고 앉아있는 서울 한복판에까지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시였었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들끓게 하였겠는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것이다.

그 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그날 서울장안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고급리판의 손님칸에는 대 여섯명의 고관들이 폭신한 결상에 제끼고 앉아서 신문들을 뒤적이고있었다.

이 리발관으로 말하면 서울바닥에서 두번째라면 섭섭하다고 할만큼 급이 높고 이름이 나서 내노라하는 고위관리들과 신사뎡쟁이들이 다투어 찾아드는 곳이었다. 어쨌든 이 리발관의 인기가 얼마나 컸던지 멋을 부리기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내들이라면 이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는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될 지경이었다.

그러니 지금 손님칸에 앉아있는 작자들도 허술히 볼 인물들이 아님은 명백하였다.

그 가운데는 누런 금줄장식을 한 군복쟁이도 보이고 하얀 목깃에 까만 나비넥타이를 맨 코수염쟁이 신사도 눈에 띄었다. 분명 총독부의 《나오리》들과 무슨 사령관이요 대장이요 하는 거물급들이 틀림없었다.

그들이 신문장들을 뒤적이다가 이제는 더 볼것이 없는지 그것들을 앞상우에 내던지고 하품을 하며 등받이에 몸을 제낄 때였다.

출입문이 열리더니 젊고 점잖은 손님 한분이 들어서시었다. 좌중의 눈길이 일시에 그리로 쏠렸다.

순간 손님칸안에 앉아있던 작자들은 저도 모르게 일시에 일어섰다.

방금 들어서신 손님의 인품이 어찌나 뛰어나고 위풍당당하였던지 대번에 기가 숙어지고 위압당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손님이 결상에 앉으신 다음에야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제자리에 앉았다.

새로 들어온 손님은 천천히 신문을 집어들더니

조용히 거기에 눈길을 주시었다.

고위관리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못내고 쥐죽은듯이 앉아있었다. 손님칸에서는 새로 들어온 손님이 신문장을 번지시는 소리만이 들릴뿐이었다.

바로 이 시각 리발실에서 손님을 맞을 차비를 서두르던 리발사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도는것을 느꼈다.

어데선가 밝은 채광이 방안으로 비껴들고 까닭모르게 가슴이 설레이고 벽차지면서 온몸이 환희에 휩싸이는것을 느꼈다. 저절로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고 눈앞이 밝아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끝없이 샘솟았다.

어찌된 일일까? 무슨 까닭에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고 가슴이 이렇게 높뛰는것일까?

리발사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짊어는데가 있어서 서둘러 별실로 달려갔다.

이 별실은 리발사가 몇십년동안 하루도 번지지 않고 남몰래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 까닭은 누구도 모른다.

바로 이 별실에는 그 어느 손님도 앉혀보지 않은 결상 하나가 보관되어있다.

이것은 리발사의 아버지가 온녓을 다 바쳐 만든 것이었다.

조선봉건왕조말엽 궁중에서 쟁인바치로 목수일을 하던 리발사의 아버지는 황제에게 새로운 룡상을 만들어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제나름으로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걱정해서였다.

어쩐 일인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가 점점 국력이 쇠진해지고 밀려드는 외적의 무리들앞에 언제 꺼꾸러질지 모를 위기에 처했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던것이다.

《임오군변》이 터져 대렬안팎이 팔죽끓듯 하더니 뒤미처 《갑오동학란》이 터져 온 나라가 바람맞은 갈숲처럼 설레이고 그 돌개바람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뒤번져져 삼천리강토가 황소싸움을 겪고난 배추밭처럼 짓무개지고 백성들은 도란에 빠지고말았으니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아닐수 없었다.

사모를 뒤집어쓰고 나라를 줄먹으며 백성들의 등가죽을 벗겨 제 배를 채우는 세도재상들과 량반벼슬아치들을 생각하면 패심하기 그지없이마는 동지가 뒤집히면 성한 일이 없는 법이니 빈대, 벼룩 죽는것이 씨원하다고 불이 달리는 집을 그대로 내버려둘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갓 궁중목수파위가 기울어져가는 나라

를 무슨 힘으로 번쳐낸단 말인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각을 굴리던 리발사의 아버지는 어느날 귀가 솔깃해지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인즉 룡상은 임금의 옥좌에 앉은 옥좌이고 옥좌의 위세는 곧 임금의 위풍이요, 임금의 위엄은 곧 나라의 위엄이라 임금에게 보다 더 훌륭한 룡상을 만들어 올리면 떨어졌던 임금의 위엄이 다소나마 다시 높아지고 더불어 나라의 위세 또한 얼마간이라도 높아지리라는 것이었다.

(옳거니!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리발사의 아버지는 그 길로 새 룡상을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자고 하니 룡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임금의 위세를 돋구고 나라를 추켜세우는데 보탬이 되겠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전궁궁하는데 이런 말이 또 들려왔다.

임금은 곧 나라와 백성의 령수인즉 마땅히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천년목은 향나무를 베어내고 향산의 금돌과 금강산의 옥돌을 캐내며 동서해의 산호진주를 건져내어 룡상을 만들어야 격에도 어울리고 효험도 높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리발사의 아버지는 즉시로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산밭을 헤치고 벼랑을 뚫으면서 천년목은 백두산의 향나무를 찾아내고 향산, 금강산의 바위돌을 까내고 땅을 파헤치면서 금돌, 옥돌을 캐냈으며 천길 물속에서 산호진주를 건져냈다. 이렇게 천신만고하여 새 룡상을 완성해서 정히 수레에 싣고 서울로 돌아오니 그만에야 나라를 왜놈들에게 먹히우고말았다. 리발사의 아버지는 그만 너무도 절통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열흘동안이나 침식을 전폐하고 통곡하던 리발사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가 망했으니 이 옥좌에 누구를 앉히겠느냐? 차라리 리발관에 가져다놓고 머리카락 깎아라.

그러나 명심하거라. 이젠 내가 십여년을 두고 심혼을 깡그리 바쳐 만든 것이니 절대로 아무나 앉혀서는 안된다. 오로지 이 나라를 이끌어주고 천하에 빛내일 위인이라고 생각되는 분에게만 내드려라.》

말을 마친 리발사의 아버지는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고말았다.

그의 품속에서는 이런 유서가 나왔다.

《아, 절통하구나! 룡상은 있으되 모실 위인이 없고 나라와 백성은 있으되 이끌어줄 령수가 없구나! 이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주실 절세위인은 언제면 나타날까?...

옥좌에 새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금은보석들이 별처럼 빛을 뿌릴 때 그것은 위인이 왕립하신 조짐이거니 내 아들아, 네가 그 위인을 실수없이 받들어모셔다오.》

유서를 읽고난 리발사는 아버지의 간절한 념원이 깃들어있는 룡상을 리발관의 별실로 옮겨왔다.

그는 어느때든지 반드시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 줄 걸출한 위인을 옥좌에 모실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은 과연 언제이며 그런 위인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리발사는 일구월십 그런 위인을 모실 날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옥좌에 모실만 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말하여 옥좌에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향기를 풍기는 신기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웬일인가!

리발사가 별실로 들어가니 룡상에 새겨진 새들이 고운 소리로 지저귀는 소리가 꿈속에서처럼 은은하게 들려오고 꽃송이들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풍겼으며 기기묘묘하게 박아넣은 보석들은 불꽃처럼 반짝 반짝 빛을 뿌렸다.

(꿈결에도 보유했던 위인이 어디에 나타나셨을가?)

리발사는 저절로 경건해지고 숭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별실에서 나와서 옷차림새를 바로 한 다음 손님칸의 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왜 방안이 다른 때없이 밝아지고 가슴이 설레었는지를 대번에 깨달았다.

결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계시는 젊은 손님을 보았던 것이다.

존안은 태양이요 몸매는 산악인듯 근엄한데 안광에는 천리도 순간에 꿰뚫을듯 영채가 뿜어나왔다.

리발사는 저도 오르게 그분앞으로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어서 들어가시자고 안내를 했다. 기다림칸에 앉아있던 고관들은 리발사가 젊은 손님을 정히 모셔가는 바람에 더욱 기가 질려 놀라운 눈길로 바라볼뿐이었다.

젊은 손님이 리발사의 안내를 받으며 리발실로 들어가시자 손님칸에 앉아있는 작자들은 조심스레 그쪽을 결눈질로 가리키면서 수군거렸다.

《누구시오?》

《글쎄...》

밖에서 이렇게 수군거릴 때 리발실안에 들어선 리발사는 더욱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한없이 겸허소탈한 젊은 손님은 리발사가 미처 별실로 안내할 사이도 없이 지금껏 써오던 보통결상에 스스로없이 올라앉으시는 것이었다.

《저쪽 별실로...》

황당히 다가가서 말씀올리려던 리발사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세상천지에 이렇게도 인품이 뛰어난분도 있던 말인가!

고루한 봉건세습에 반발하고 장마철 홍수처럼 범람하는 현대류행에 공감하여 길게 따들었던 머리태

를 제손으로 잘라버리고는 리발기를 들고 친구들의 머리를 하나 둘 깎아주던것이 인연이 되어 아주 《까까쟁이》가 되어버린 그는 조선봉건왕조말엽 궁중리발사로까지 탁발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임금을 위해 룡상을 만들 그 무렵에도 궁중리발사로 일했다.

그는 사실일행을 따라 여러곳을 다녀보며 내노라하는 인물들과 영웅호걸들, 고위요직의 정객들과 사회활동가들, 이름높은 외교관들과 명성높은 학자들, 신사명쟁이들과 풍류남아들... 어쨌든 아니 깎아본 사람이 없고 아니 만나본 명인재사들이 없다는 정도로 소문이 났지만 이 짧은 손님처럼 출중하신 인걸을 뵈기는 처음이었다.

왜놈들이 기여든 다음에도 아버지가 만든 옥좌에 앉힐만 한 인걸을 갈망하며 상해요 하바롭스크요 하고 소문난 곳은 다 돌아다녔지만 이처럼 뛰어난 인걸은 만나지 못했었다. 그래서 다시 서울에 돌아와 지금껏 리발사로 일하면서도 《천황》이 파견했다는 무슨 《령사》요 《특사》요 《파견관》이요 하는 거물급의 작자들을 적지 않게 앉혀놓고 떡주무르듯 하며 그 모양새를 다스려오던중이었다.

결상에 조용히 앉아서 창문밖 어데인가를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겨있는 손님을 이윽도록 우러르던 리발사는 이분을 별실에 정히 보관해온 결상에 모시고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서 더 참을수가 없었다.

리발사는 정중히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손님에게 말씀올렸다.

《제가 어리석고 불민하여 위인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그 실수 자못 크오나 너그러이 용서해주소이다.》

그리고는 어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청을 올렸다.

《왜 그러십니까?》

짧은 손님은 영문을 알수 없으신듯 리발사를 바라보며 여기도 좋으니 어서 머리를 깎자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여기는 귀인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못됩니다. 어서 가십시오.》

리발사는 짧은 손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짧은 손님은 리발사가 너무도 절절하게 청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그가 하자는대로 따르시었다.

짧은 손님을 별실로 안내한 리발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써본 일이 없는 《룡상》에 그분을 모셨다.

그분께서 《옥좌》에 앉으시자 방안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새들의 지저귂소리는 더욱 은은하게 울리었다.

《옥좌》에 거룩하게 앉아계시는 손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리발사의 마음은 저절로 숭엄해지고 경건해졌다.

리발을 끝냈을 때 귀빈은 정말 수고했다고 거듭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뜨시었다.

순간 리발사는 저도 모르게 손님에게 이런 청을 드리었다.

《무엄한 소청이오나 귀빈께서 명함장을 넘겨주시면 우리 리발소의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허허... 그거야 어렵겠습니까!》

짧은 손님은 안실에 손을 넣더니 명함장을 꺼내여 리발사의 손에 쥐여주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가시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고난 리발사는 손에 들고있는 명함장에 눈길을 주었다.

《뉘시오?》

그 순간 고관들도 우르르 밀려와서 그의 손에 들려있는 명함장을 들여다보았다.

《?!》

모두들 눈이 사발만큼이나 커졌다. 명함장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이라고 써여있었다.

《**김일성**사령관?!》

리발사도 고관들도 동시에 놀라서 돌부처처럼 굳어졌다.

당시 총독부기관지 《경성일보》에까지 **김일성** 장군님의 용모가 출중하다는 기사가 실려 서울장안이 술렁거렸었는데 직접 목격하고 보니 상상을 초월했던것이다.

《오늘따라 방안이 밝아지고 채운이 서리며 옥좌에 새겨진 새들이 노래한것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찾아오실 조짐이었구나! 그러니 장군님은 분명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실 절세의 위인이시다!》

리발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옥좌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아직도 장군님께서 그 옥좌에 앉아 계시는듯 오래도록 우러렸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린 왜놈들은 전화를 건다, 《수사포치》를 한다 덤벼쳤지만 그것은 때늦은 소동이였다.

서울장안에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여 리발을 하고 가셨는데 그이께서 앉으시자 결상이 옥좌로 변하였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왜놈들을 아연케 하고 인민들에게는 신심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실 분은 오로지 **김일성** 장군님밖에 없다》는 신념이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지흥길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깊이있는 서사시적형상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에 대하여-

김순림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오영재)는 조선로동당창건 50돐에 삼가 드린 노래이다.

서사시가 나온지 근 10년이 되어오지만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는 시형상으로 폭넓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을수 없는 표상을 남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문학에서는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민을 힘있게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웠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놓은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노래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미학적요구의 하나는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당으로 그리는 것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을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당,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통일단결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으로 보여줄수 있다.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는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견지해야 할 이 원칙적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서사시적으로 폭넓게 일반화하여 노래하고있다.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는 당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사색의 깊이가 충분히 보장된 성과작이다.

서사시가 품위있게 형상된것은 당의 위대성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서 무게있게 노래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 시대와 생활과 현실에 대하여 뜨겁게

호흡하고 체험한 사색의 세계가 깊이 젖어있으며 그로부터 우리 당을 따라 끝까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려는 시대의 의지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위대한 그 심장에 피줄을 잇고
내 한생이 흘러온 못잇을 그 나날
끊을수 없는 인연으로 깊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
세월은 흘러 장장 반세기
오늘은 내 그대 탄생 선뎡을 맞이하거니

뜻깊은 10월의 이 아침
그대의 기치이며 상징인
당중앙청사에 나뭇기는 저 당기에
내 불을 비비며
감사의 더운 눈물로 붓을 적시며
그대 피어린 붉은 기폭에
나의 이 시가를 적어가노라

우리는 머리시의 이 구절들에서부터 어머니 우리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당과 함께 혁명의 머나먼 길을 걸어온 우리 시대 인간의 뜨거운 체험 세계를 안아보며 서사시형상의 세계에 심취되는것이다.

1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는 시대정신을 통감한 시대적감정의 분출이다.

돌이켜보면 당창건 50돐을 맞는 우리 인민의 심정은 류다른 감정속에 휩싸였다. 얼마나 모진 눈비를 헤치며 당창건기념일을 맞는 이 아침이 굵이쳐왔는가.

당창건기념일을 맞는 그 아침 우리 인민은 수많은 혈전의 언덕을 헤치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며 승리의 자욱을 새기며 걸어온 우리 당의 빛나는 로정을 돌이켜본다. 그 나날 우리 인민은 당을 자기의 숨결, 자기의 운명, 모두의 행복한 한생이라고 체험으로 감수했고 당은 곧 우리의 노래이고 감정이며

우리가 살고 우리의 아들딸이 살고 후손들이 살 미래라고, 눈물겨운 사랑을 다 안겨주는 정깊은 어머니라고 피와 땀으로 간직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고 미래이고 희망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당창건기념일을 맞게 되었으니 우리 인민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서사시는 우리 인민이 체험한 이 모든 사색과 감성과 심장의 울림을 절감하며 뜨거운 걱정을 터치고 있다.

아, 세월이 간다고 지워질소나
이 반세기에
어머니당의 창건자를 우리는 잃었나니
너무도 크나큰 상실의 그 아픔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해주며
10월의 이 아침이 왔어라

우리 당의 령도자 **김정일** 동지
아버이수령님 생각 더욱 간절하시여
온밤 잠을 잊으시고
떠나실 줄 모르시는 그 창문가에
이 아침이 밝아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위대한 창건자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기념궁전과 만수대언덕을 찾아 말없이 숭엄히 거리를 메우며 흐르는 그 끝없는 물결속에, 인민의 마음속에 함께 계셨다.

…한해만 지나면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창건 50돐을 맞게 된다고 인민들이 그리도 기뻐하며 10월의 축전장으로 달려왔는데… 실로 위대한 장군님의 그리움의 심연은 끝이 없으시였다. 당창건기념탑을 우뚝 세워놓고 당창건 50돐을 맞는 이날 수령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 수령님께서 가셨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이 어떠했으랴.

서사시는 이처럼 당창건 50돐을 맞는 시대감정을 뜨겁게 부여안고 시대와 인민, 력사의 의지를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걱정해 넘쳐 노래하고 있다.

2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에 대한 전인민적 감정의 분출이다.

서사시는 당창건사적관에 시적계기를 두고 정서적마당을 펼치면서 조선혁명의 기치, 주체의 기치로 우리 당의 붉은기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솟아 오른 먼먼 송화강기슭에 시상을 넓혀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당이 걸어온 력사적로정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땅에 개선하신 수령님께서 당이 있어야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고 당이 있어야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줄수 있다시며 지척인 만경대고향집도 찾으실사이없이 제일먼저 당부터 창건하시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일반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서사시가 특별히 강조하여 걱정을 터친것은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로정우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모신 민족의 대행운에 대한 격찬이다.

그것은 진정
우리 당의 50년 그 영광중에서도
가장 크고 빛나는 영광

수령에 대한 충효의 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창건자를 받들어오신
우리의 **김정일** 동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자신은 인민과 함께 그이의 전사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신 지도자동지

그렇다. 서사시에서 감동과 흥분을 가지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는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같다하시며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그 빛과 따사로움을 더해드리신, 고금동서에 전후후무한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하기에 장군님께서서는 너무도 애석하게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을 때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숭엄히 꾸리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아버지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업적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서사시는 감동에 젖어 노래하고있는것처럼 위대한 우리 당은 인민과 한가마밥을 나누며 추우면 두터운 이불이 되어주고 더우면 시원한 그늘을 지워주며 사랑의 한품으로 인민을 안아주는것이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민을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건져주고 폐허속에서 구원해주고 우리의 생활이며 생명인 사회주의를 안겨준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인것이다.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인간천지개벽
사회천지개벽
자연천지개벽을
내 조국땅우에 이룩해준
아, 조선로동당
인민을 위해 인민과 함께 걸어온
영광의 50년 빛나는 그대 자욱이여

그 자욱자욱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령도로 빛나는 당이여
어버이수령님 창건하신 우리 당을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주체의 당으로
영원히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령도자
참으로 위대한 인간이시여!

서사시는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당의 승리의 로정을 승엄한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업적을 드높이 칭송하는데로 승화되었다. 여기에 바로 서사시가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노래한 중요한 근거와 감화력의 담보가 있다.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민족의 운명이고 인민의 생명이라는것을 다양한 생활과 감동적인 시적세부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격정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서사시가 감동을 주는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운명인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의 감정이 우리 인민 누구나 느끼고있는 체험된 감정으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우리 당이 없었더라면 내 조국은 폐허가

되고 우리 인민은 조국을 잃은 교아가 되고 류랑민이 되어 길가에 쓰러져 죽었을것이라는것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간직하고있는 인민이기에 당을 따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인것이다.

서사시는 이러한 신념화된 감정을 감동적인 역사적사실의 한 화폭을 통하여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그날은 수령님서거 1돐을 앞둔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인민을 위해 놓으신 궤도전차에 소문없이 오르셨을 때 언뜻 차창에 비친 그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격에 목매여 만세를 부르며 달리는 전동차를 따라갔다.

순간
가슴들에 넘치는 격정
엎어질듯 달려갔노라
우리는 따랐노라
우리가 믿고 살분 오직 장군님밖에 없기에
늘 장군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살기에
얼마나 얼마나 그리웠으면
궤도전차를 따라 달리었으랴

아, 이렇게 인민이 반세기를
당을 따라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래일도 영원히 따를 우리 인민이 아닌가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전동차의 차창너머 그 모습을 보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하신 그날의 장군님말씀

이 감동적인 화폭은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념화된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축도이다.

3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을 통하여 우리 당이 혁명의 붉은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당으로 강철같이 다져진 그 요인에 대하여 시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서사시는 여기에서 빠리콥문으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의 투쟁사를 력사적으로 더듬으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혁명의 붉은기를 수호하는 로동계급의 당으로 되었는가 하는것을 보다 폭넓은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이 행성우에 혁명하는 당들이 저마다 붉은기를 추켜들었지만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혁명의 배신자들로 하여 그것은 잡탕색으로 변하여 붉은기를 내리우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였다. 서사시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 줄 모르면 인민의 머리우에서 행세하고 호령하는 관료의 당으로 전락되게 된다는 가슴아픈 력사의 교훈을 되살리면서 인덕의 향기가 없어 인민이 따르지 않고 동지의 사랑이 없어 인민과 생사를 함께 하지 못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줄 모르고 강압으로 인민을 지배하는 당은 이 붉은기를 들고나갈수 없다고 단언하고있다.

서사시는 주체의 기치밑에 인덕으로 무어지고 인덕으로 전진해온 《이민위천》의 특수한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 당을 이끄시는 인민의 령도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칭송으로 시를 승화시켜나가고있다.

아, **김정일**동지

독창성이 없으면 새것을 창조할수 없다는것
그것은 우리 령도자의 철리
그이는 독창적인 정치철학을 지니시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시여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견줄수 없는
가장 거대한 힘을 마련하신
실력가형의 조선로동당의 령도자
우리 당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고 우리 당의 혁명무력을 이끄시며 사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인민을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신다. 진정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곧 우리 당이며 우리 당은 곧 최고사령관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신것이다.

서사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사회주의붉은기 수호전을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대한 감동깊은 사실들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선군령장의 거룩한 위인상을 힘있게 부각하고있다.

서사시에서 뜨겁게 노래하고있는것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변만화하고 비범하신 령도로 끊임

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병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위훈으로 고무해주시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 우리 군대를 령도하고계시기에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붉은 기발은 세월이 흐를수록 퇴색을 모르고 반혁명의 역풍이 모질고 사나울수록 더욱 붉게 타오르는것이다.

서사시는 이러한 신념의 메아리로 세상을 찡찡 울리면서 우리 당의 위대한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력사와 미래앞에 하늘땅 가득히 새겨주고있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번영하지만

래일도 영원히 룡성번영할것입니다

-21세기는

김정일세기입니다

모든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김정일동지는

21세기의 태양입니다!

이것이 서사시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핵이며 필승 불패의 우리 당의 빛나는 전도에 대한 확신이다.

이러한 사상정서적주장을 가지고 서사시는 당창건기념탑에로 정서적마당을 넓히면서 우리 당이 걸어온 50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50년을 이어 500년, 5,000년 후손만대 길이길이 당을 따르고 받들어 이 땅의 세월이 영원히 로동당의 세월로 흐르게 하리라는 시대와 력사와 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한껏 분출시키고있다.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드린다》는 당과 수령에 대한 송축서사시로서 서사시적구도의 폭넓은 구상과 우리 당이 걸어온 력사적로정에 대한 시적일반화, 시대정신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감정의 승화, 신축성있는 시어의 구사 등 송가형의 서사시 창작에서 일련의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데서 큰몫을 맡고있는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

명언해설

《한형타에 찍어낸 도식적이고 류형적이며 무미건조한 백편의 문학예술작품보다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산 인간의 개성화된 형상을 통하여 예리하고 생동하게 그려낸 한편의 문학예술작품이 더 값있고 귀중하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값있고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자면 도식주의적경향과 류사성을 철저히 없애고 산 인간을 개성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창작에서 도식과 류형은 죽음이다. 도식과 류형은 한 형타에 찍어낸 제품처럼 무미건조한것이며 이런 작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인식교양적가치가 없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산 인간의 개성화된 형상을 통하여 예리하고 생동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한편의 작품이라도 이렇게 창작된 작품은 도식과 류형으로 한형타에서 찍어낸 백편의 작품보다 더 값있고 귀중한것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그 자욱우에

황명성

우리 당이 창건된 그해에
나는 철부지 어린 소년
내 모르며 자랐더라
아버이수령님 그 어이하어
그리운 만경대교향집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셨는지

정녕 내 모르며 자랐더라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우리 수령님
이름없는 산촌의 당세포를 찾으시어
분여받은 새땅의 주인된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신 그 사연도

세월은 흘러...
내 알았노라
온 나라가 다 아는 거룩한 그 자욱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그날에는
락원의 10명당원들의
세포회의에도 참석하시어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불러주신 길

잊지 못해라
내각의 어느 한 성당에 소속되시어
그곳 당원들과 한세포에서
분공도 받으시고 당비도 바치시며
당생활을 하신 우리 수령님

가슴 사무치게 우러르니
눈시울 뜨겁게 어려오누나
그것은 당원들의 심장속으로
수령님 가신 길
가시여선 해빛같이 안겨주신 사랑
가시여선 역척같이 세워주신 믿음

그렇듯 수령님 초소에 가시여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당중앙을 무장으로 사수할 대오의 앞장에
군인-당원들을 내세워주시었나니

눈덮인 청산리 들길이라
키낮은 리현리 당총회장소이라
경건히 세월의 언덕너머 귀를 기울이니
들려와라 당의 두리에
천만대오를 묶어세우시던 그 음성
사랑과 믿음의 영원한 메아리가

뜨겁게 이 가슴에 새겨주는구나
인민을 위해 걸으신 헌신의 자욱
그 길에서 백배천배로 강해진 일심의 우리 당
백전백승을 떨치는 혁명의 기치로
존엄높은 불패의 우리 당

나는 알았노라
우리의 심장인 당은 수령님!
우리의 운명이신 수령님은 조선로동당!
그 품에서 나의 희망, 나의 삶이 꽃피고
주체의 궤도를 따라 조국번영의 력사가 흘러
세상에 부럼없는
오늘의 이 행복이 가꾸어졌나니

은혜로운 태양의 한품에 인민을 안아
인간사랑의 화원을 펼치며
오, 우리 당이 걸어온 성스런 자욱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
장군님 펼쳐가시는 선군의 위업속에
수령님은 천세만세 영생하시여라!

전사의 일편단심 영원하리

리용래

그날은 명절중의 명절
내 인생길에 행운을 맞은 날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중앙에 모신
그날의 그 감격, 그 행복은
가슴에 그냥 젖어있어...

장군님을 따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부르던 그때처럼
오늘도 그날의 목소리로
부르며 찾으며
이 마음은 달려가노라

내 처음으로 그이를 가까이 모시였던
만수대언덕의 잊지 못할 집이여
그날은 평범한 내 인생의 갈피에
영광의 새봄이 찾아든 날이었어라

그리도 젊음이 넘치시고
그리도 예지로 빛나는 그 영상
아, 그날에 벌써 그이를
나는 마음의 태양으로 모시였어라

하여 내 한생에
영원한 삶의 빛을 준 40년은
태양을 따라온 길
그 길에는

자신께서 손수 수표하신 붉은 당원증을
이 가슴에 안겨주시던
한생토록 못잊을 그날도 있고

그 길에는
그이를 창조의 일터에 모시고
문학예술혁명의 대강을 받아안던
끝없는 감격의 날도 있어라

내 한생의 걸음걸음
헛디딜가 에돌을가
따뜻이 보살펴주며
혁명의 먼길 끝까지 같이 가자
따뜻이 손잡아주시던 운명의 은인

위대한 태양은 사랑의 해빛으로
내 한생의 걸음걸음을
따뜻이 비쳐주나니
이 영광속에 신 전사
어찌 세월에 몸을 맡길수 있으랴

혁명의 길 천만리로 멀다 해도
변할수 있으랴 전사의 량심과 의리
땅이 갈라진대도
몸이 흩어진대도
이 전사의 일편단심 영원하리라
주체93(2004). 6. 9

나를 지켜보는 그 눈빛

신문경

나를 지켜보는 그 눈빛을
나는 보고있어라
당이어 어머니당이어
그대가 배워준 걸음으로
내 어떻게 삶의 자욱 새겨가는지
내 운명의 걸음걸음 살피주는 그 눈빛

험한 령 굽이마다
준엄한 순간마다
천만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전선길 가고가는 그대

그 앞길에
단 한점 그늘이라도 낀다면
이 한몸 불길이 되어 어둠을 태우며
그 눈빛만을 우러르리

그대 눈길 떠나면
그 순간에 스러져버릴 나의 생명
마지막피 한방울로 이 땅을 적신다 해도
나의 심장이 식었다 함을 믿지 마시라
나의 생이 끝났다 함을 믿지 마시라

가렬한 백병전에 내 쓰러져

전우들의 부름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더는 나를 일으켜세우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당이어, 그대 눈빛이 나를 지켜보고있기에
내 열번 다시 일어나리라

어머니당이어, 내 생명의 영원한 빛이어
삶의 순간마다 그 눈빛을 안고
내 그대의 아들로 영원히 살리라

주체 93(2004). 6. 9

오, 이 세상의 빛이 다 꺼진다 해도

선군의 태양

오영재

나는 알고있노라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 했지만
영웅이 또한 시대를 낳는다는것을
물어보자 력사여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던 때에
너 환희로운 격랑의 물보라를 날리며
맞이했느냐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거침없이 밀려든 제국주의의 밀물에
부서져나간 정의와 량심의 조각들을 안고
력사가 통분에 몸부림칠 때
천지를 진감하는 백두의 우리로
력사의 역회전에 차단봉을 내리신
그이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그이의 선군은 깨우치고있어라
힘이 없는 정의는
짓밟힌 노예의 억울한 눈물임을
힘이 없는 진리는
시궁창에 묻힌 한갓 구슬알임을
하여 그이 높이 드신 총대
오직 그것만이 정의의 수호신
진리의 수호신임을

세계사회주의가 끝났다는 그 지점에서
그이는 이 총대를 드시고
사회주의에 심장의 고통을 높뛰게 해주신분
방황하는 세계정치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불멸의 진리를 리정표로 세워주신분

그이는 총대로 지구를 들어올려
자주의 궤도우에 바로 놓으셨나니
위인의 지략과 예지
무비의 담력과 배심
만민을 포용한 총대사랑을 인력으로
오늘의 지구는 돌고있다
21세기의 거창한 력사는 흐른다

하여 거인의 모습으로

그이 서계시는 곳은
지구의 중심
그이 딛고 선 땅은
하늘에 닿은 조선의 백두산

그이의 빛나는 안광
위도와 경도우에 번개칠 때
온갖 전횡과 살륙을 일삼는 미제
그 징벌이 무서워 전율하나니

수천년 인류사에
피비린 전쟁은 많았고
무장은 그 수단으로 되어왔건만
이 지구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만민에게 선물하는
그런 총대가 이날까지 있었던가

오늘의 력사가 기다려 추대한
백두의 령장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류의 구원자
새 세기의 향도자
그이를 우리의 령도자로 모시여
인민도 우리 당도 위대하고
조선은 지구의 한복판에 빛을 뿌리나니

선군의 태양
21세기의 태양
그 빛발아래
《**김정일** 열풍》으로 휩싸인 대륙과 대륙에
아름다운 꽃들은 만발해
다함없는 흙모의 향기는 넘치고
칭송의 송가는 끝없이 울려 퍼지도다

아, 그 이름 **김정일**
지구의 대기를
선군의 붉은빛으로 물들이며
인류의 축원속에 영원히 빛나리
위대한 우리의 **김정일** 동지!

주체 93(2004) . 6. 9

안개속에서 찍으셨건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적들과 마주하고 있는 오성산에 오르신 력사의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언제나 그이의 신변안전을 위해 마음써오던 일군들과 군인들에게는 짙은 안개가 더없이 고마운 안개였다.

그러나 사진을 찍기에는 매우 불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부대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전반적인 파업을 밝혀주시고나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하여 촬영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오시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자욱한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일군들과 군인들의 가슴은 조마조마하였다. 이런 날 사진이 잘 안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보통사진도 아닌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찍는 기념사진이 안개로 하여 잘 안되면 어떤단 말인가.

주위를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촬영가에게 날씨가 나빠 사진이 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촬영가는 신심이 없어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그대로 말씀올렸다.

촬영가까지 사진이 잘 안될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일군들의 속근심은 더더욱 커졌다. 일군들도 일군들이지만 오성산을 지켜선 병사들의 마음은 더욱 더 안타까웠다.

당장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날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날것 같지 않았다.

바로 이때였다.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꼭 사진을 잘 찍어 군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우렁우렁한 음성이 오성산을 울렸다.

촬영가만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대고 명령이라도 하시는듯 싶은 그이의 힘있는 음성을 들은 일군들은 이날도 하늘땅을 놀래울 그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것을 예감하면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은 또 하나의 기적을 낳았다. 촬영가까지도 신심이 없어하면서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맑은 날에 찍은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잘된것이다.

하기에 가슴을 조이면서 기다리다가 해빛밝은 날에 찍은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뜻깊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받아안게 된 부대일군들과 군인들속에서는 이런 반향이 일어났다.

오성산은 적들과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곳이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때문에 오성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보위하느라고 대자연도 이날만은 조화를 부려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이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군인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빛을 뿌려주었다, 그래서 맑은 날에 찍은것처럼 사진이 잘될수 있었다. 정말이지 이 땅위에 선군정치의 위대한 력사를 새겨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하늘이 알아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더라고...

박봉운

가사

내 고향의 백양나무

최충웅

내 고향 길가의 백양나무를
쳐너는 더없이 사랑하였네
푸르른 잎새에 깊은 정 없고
어이하어 그토록 사랑했는지
아 몰랐네 아무도 몰랐네

노을핀 농장길 같이 걸으며
고운 꿈 함께 키운 친한 그 동무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던 처녀

별빛아래 함께 심은 나무인줄을
아 몰랐네 아무도 몰랐네

세월의 년륜을 새겨안으며
백양나무 쉽없이 설레이었네
초소의 그 동무 영웅되기를
쳐너가 바라는 마음인줄을
아 몰랐네 아무도 몰랐네

뜨거운 눈

송출웅

1. 싱거운 인연

(은경의 이야기)

《대대 폭풍!》

밥술을 놓기 바쁘게 소동이 일어났다.

로동안전원이 예견한대로 갱도가 봉락되었다는 것이다.

모두 작업공구들을 들고 뛰어갔다.

봉락은 갱가운데서 일어났다. 아직도 이따금 락석이 떨어지고있었다.

긴장으로 예리해진 눈길들이 소리없이 부딪쳤다.

이제 굴진을 계속하자면 봉락구간에 기둥을 세우고 천정높이까지 동발을 쌓아야 한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최대의 긴장을 요구하는가 하는것을 누구나 알고있었다.

중대장은 오늘 계획대로 계속 휴식할것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편안히 쉬지 못했다.

한낮이 되어 누구의 발기에 의해서인지 봉락구간돌파조가 조직된다고 하였다.

조장은 중대장 김진철!...

그가 조원들을 선발한다고 하였다.

나는 중대장을 찾아갔다.

나보다 먼저 봉식이가 와있었다. 자기도 돌파조에 받아달라고 떼질한 모양인데 승인된것 같지 않았다. 남자도 그럴진대 녀자를 받아줄가?

그는 오늘 아침에 내가 떡이 아니라 죽을 쑤것 때문에 매우 불쾌해한다.

더우기 우리 사이는 서로 넘어설수 없는 감정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랭전》상태에 있지 않는다.

《동무도 돌파조에 받아달라는것이겠소?》

《예.》

중대장은 빙그레 웃었다.

《우리 남자들은 녀동무들까지 위험한 곳에 서는걸 바라지 않소. 공연히 떼질할 생각은 마오.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과업을 맡기려고 했는데...

내가 그새 일만 일이라고 내밀다나니 대원들의

생활을 잘 돌보지 못했소.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자는것이 우리 건설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소. 그래서 동무에게 동무들의 병실을 도배하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그렇게 해주오.》

나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니 갱도의 봉락과 관련된것인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일이었다. 누구나 봉락구간돌파전을 준비하고있는데 너무도 하찮고 부차적인 일을 하라고 한다.

결국 나 같은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는듯이 책상우에 머리를 박고 제할 일만 계속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제 방에서 나왔는지 잘 기억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말은 아량있게 하였지만 실은 어제날의 개인감정을 아직도 품고 있다는것이 확인하였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의 한 구간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건설에 바친다면 얼마나 긍지가 높겠는가.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백두산! 나무 한그루, 이름없는 돌 하나에도 선렬들의 피와 숨결이 배여있는 혁명의 성지!...

거기서 아낌없는 땀을 바치자, 이것이 그곳 건설이 시작되면서 내가 품은 생각이였다. 그러나 너도나도 탄원하는 바람에 인차 소원이 성취되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전에 승인되어 오늘은 내가 떠났다.

누구나 다 백두산을 생각하면 모진 눈보라가 먼저 떠오른다. 텔레비존에서 날씨를 알릴 때면 내가 사는 고장만을 새겨들던것이 그때부터는 백두산지구 날씨에 더 관심을 두었다.

숨웃이며 털모자, 솜신발, 장갑, 지어 조끼까지 준비했다. 회초리같이 날씬한 몸에 뒤축높은 구두로 포장도로를 때각때각 두드리며 다니던 모습은 간데없고 갑자기 불모양없는 똥보가 되었다.

삼지연에 도착하니 내가 가게 되어있는 중대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있었다. 마침 그 중대에서 올라온 차가 있어 나는 적재함에 매달렸다.

《헛, 동작이 꽤 불만 하네.》

적재함우에서 내가 오르는것을 도와주던 청년이 편잔을 주었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직 코밑에 면도 자리도 없는 애송이총각이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눈과 코며 모든것이 담담히 배겨있다.

《여기서 중대가 있는 곳까지 멀어요?》

나는 애송이동행자에게 물었다.

《거의 40리 돼요.》

(멀구나.)

나는 부러운 눈길로 삼지연 읍거리를 바라보았다. 무릉도원이란 바로 이런 곳인가?

각이한 모양을 가진 살림집들이 빼곡이 들어있고 천지원, 러관, 소년궁전이 빨간색, 파란색, 감색지붕을 쓰고 덩실하게 앉아있다.

다 지은 건물도 있고 한창 공사중인 건물도 있다.

미출하게 곧게 선 이팔나무와 하얀 봇나무들이 서있는 가운데로 포장도로가 시원히 뻗어있고 평양 청류다리와 같은 줄다리도 있다.

시내 변두리와 요소요소마다에 대형직판판들이 하나의 거리를 형성했다. 거기에는 우리 대대의 이름이 새겨진것도 당당히 서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일하지 못하고 멀리 따로 떨어져있는 중대에 배치받아 가고있다.

그곳 중대는 대대에서 기동중대인데 발전소물길굴을 뚫는데 동원되었다는것이다.

《너무 서운해할게 없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때 우리 중대장동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여 봉식이, 우리가 가는곳도 중요한 초소야. 여기 삼지연군에 전기불을 주는 일이야. 전기로 조명을 밝히고 밥도 하고 방도 덥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말하자면 빛과 열을 주는 일이지. 때문에 몸은 비록 멀리 가도 우린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것과 같애.> 어때요. 무슨 시갈지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가 내 마음을 넘겨짚는 것도 놀랍지만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도 어지간히 풀리었다.

《중대장동무가 참 좋은 말을 했군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게지요?》

《글쎄 감정도 풍부하지만 보다는 내밀성이 더 있지요. 지난해에 도로공사때 우리 중대가 3일동안에 할 과제를 하루에 끝낸 일이 있었지요.

그때 중대장동지가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나를 따라 앞으로!> 구령을 치면서 일을 제겼는데... 차, 불만했어요. 다른 중대동무들이 와보고 입을 딱 벌렸다니가요. 그때부터 우리 중대는 경쟁에서 매번 1등이에요.》

나는 무등 기뻐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해 나온 건설자가 된 바에는 남보다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뭐니뭐니해도 지휘관을 잘 만나야 한다.

지성이 높고 과감하고 열정적인 사람!- 나는 그런 인간을 존경하려고 애쓴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중대장이라니!...

《중대장동무가 원래부터 배짱이 세고 전개력이 있는 사람인게지요?》

《아니예요. 그는 처음에 여기 와서 일할 땐 조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지요. 2년전에 그와 나는 밀림속에서 길을 잃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이동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지름길을 탄다는게 그렇게 되고말았지요.

낮에 내린 눈이 무릎우에까지 차올랐는데 길도 발자욱도 모두 메워버렸던거예요. 우리는 급히 이리저리 헤매며 길을 찾았으나 허사였어요.

밤이 오자 우리는 할수없이 밀림속에서 쉬기로 했지요. 그날 밤 고생하던 일을 어떻게 다 말하겠나요. 불을 피우고 또 나무를 해오고... 나는 그때 사람이 추우면 점점 가드라들면서도 움직이기 싫어한다는것을 알았어요. 좌우간 벋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란 책에서나 읽던것이 실지 체험을 통해 깨달았지요. 그런 정황에서 자기를 구원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중대장동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봉식이, 이런 순간을 맞고 보니 항일혁명투사들이 생각나. 우린 하루밤도 견디기 힘든데 그분들은 오랜세월 이곳에서 일제와 싸웠어. 그때 그분들의 마음속엔 조국을 구원할 일념밖에 없었어. 그래서 조국해방을 위한 길에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왔거든. 난 지금이야 비로소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찾아주고 지켜준 우리 조국의 귀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고있어.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조국!》

이 조국을 영원히 받들어 가야 할 우리 세대와

후대들의 의무는 투사들이 지녔던 고결한 혁명정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수 없는거야.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그런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우라고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것이지...>

그때부터 중대장동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섭게 일했지요. 그는 그때 대원이었는데 그후에 분대장을 거쳐 소대장, 중대장이 되었지요.》

나는 봉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대장이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 중대장의 밑에서 나도 새롭게 성장할것만 같았다.

자동차는 기본도로에서 벗어나 중대로 가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백두산지구라면 높은 산들이 와 들어찬줄로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무연한 등판이다.

저 멀리 혜산쪽으로 어렴풋이 산줄기들이 보인다.

도로옆으로 큰 발들이 무연하게 펼쳐져있다.

백두삼천리벌이라고 하더니 바로 여기를 보고 하는 소리인것 같았다.

자동차는 어느덧 중대에 도착하였다.

《저기가 우리가 사는 돌격대병실이에요.》

통나무로 쌓아지은 귀틀집이다.

《이런 돌격대집에서 사는 인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가슴에 무엇을 간직하고 여기 성지건설에 참가하는가?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야요.》

《어마나, 소설을 쓸려고 그래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종자도 주인공도 못찾았어요. 이제 이름난 영웅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는 멧적은듯 뒤통리를 긁으며 얼굴을 붉혔다.

병실앞에 다가서자 안에서 돌격대원들이 떠들 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봉식이가 안에 들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잠시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어 문이 벌럭 열리더니 몇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순간 나는 아연해졌다.

중대장이라고 하면서 맨 처음으로 나온 사람! 털모자를 쓴 그밑에 검실검실하게 탄 철색의 얼굴, 짝 버그러진 어깨...

한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는 내가 이미 전에 알고있는 김진철이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란 사람이였다.

내가 봉식의 말을 들으며 감동속에 그려본 중대장이 과연 이 사람이었던 말인가. 어이가 없었

다.

《안녕하셔요, 중대장동무.》

나는 애써 자신을 다잡고 머리를 가볍게 숙였다.

《오늘 신입대원이 온다고 하더니 동무가 왔구만. 참 잘 왔소. 같이 일해봅시다. 여 봉식이, 너 성병실로 안내하라구.》

그는 혼연히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과연 저 사람의 밑에서 일해야 하는가.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 좋지 못한 일도 있겠는데 그때마다 서로의 감정은 얼굴 뜨거웠던 지난날을 생각할것이다.

그것은 곧 고통은 의미한다. 나의 생각은 저도 모르게 2년전 그날로 거슬러올라갔다.

그날은 청년절이었다. 저녁에 군문화회관 앞마당에서는 청년들의 야회가 있었다.

여러 공장 청년들이 밝은 조명아래에서 손을 손을 잡고 춤을 추고있었다.

내가 다니는 피복공장은 모두가 처녀였다. 반대로 군농기계작업소는 온통 남자들이였다.

그래서인지 두 공장은 볼머티가 없었다.

군농기계작업소 청년비서가 우리 공장 처녀들과 짝을 지으라고 눈짓했다. 한 청년이 내 짝패와 쌍을 못자 나는 외로리가 돼버렸다.

나는 망설이다가 밖에 서서 구경하고있는 한 청년에게로 주춤주춤 다가갔다. 키가 크고 선이 굵은 얼굴인데 통머리를 넘긴것이 무척 점잖아 보였다.

나는 얼마전부터 그가 군농기계작업소에 출근하는것을 보았다. 다른 고장에서 새로 온것 같았다.

《함께 춤을 춥시다.》

《?》

《어서요.》

《히, 난 춤을 출줄 모르는데.》

청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두...》

《헛참, 춥시다. 까짓거...》

청년은 정말 춤을 출줄 몰랐다. 제판에는 춤을 추느라고 애쓰지만 워낙 배우지 못한지라 내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허둥거린다.

나는 그의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어린애 걸음마를 떼주듯 《이렇게... 이렇게...》 하며 춤가락을 대주었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내가 이

끄는대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내 발등을 꼭 밟았다.

《아야 파-》

나는 우정 엄살을 부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아니 이거...》

청년은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른다. 나는 그 모양이 재미있었다. 총각이 처녀앞에서 찢찢맨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런데 또 밟았다.

나는 더 크게 엄살을 부리며 청년을 곱게 흘겨보았다. 그러나 청년은 얼굴이 빨개지고 성이 났다.

《에잇, 이 손을 놓소. 내가 뭐 동무손에 쥐여진 공기돌인가, 난 내 식으로 출테요.》

나는 그 모양이 재미있어 깔깔거리며 웃었다.

꼭 심술쟁이같았다.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우리는 자주 출근길에서 만나곤 하였다. 그때마다 웃음으로 인사를 가볍게 나누곤 하였다.

어느날 그가 나를 찾아와 옷감을 주면서 옷을 좀 지어달라고 하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나는 며칠 동안 째깍이 밤을 새워가며 옷을 지었다.

청년은 옷을 받아안고는 기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주 나에게 일감을 가지고와서 부탁하곤 하였다.

그 회수가 찾아짐에 따라 나의 머리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가 나에게 련정을 품고있는것이 아닐까.

한번은 작업반의 한 동무가 나에게 그 청년이 말이 적고 성실하며 성미가 온순하고 마음이 곱다고 칭찬하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나는 왜서인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그런 형의 청년은 지금껏 배우자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는 내자신을 잘 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남들이 결눈질하며 훑쳐본다는것을 잘 안다.

전문학교졸업생이며 공장에서 회계원을 한다.

나는 사나이다운 기풍과 높은 지성을 가진 남자에게 끌려 한생을 살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 그런데...

성실성과 순박성만으로 남자의 장점을 다 대변할수는 없지 않는가. 보다 과감하고 열정적이며 즐기찬것이더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확실히 소심한데가 있었다. 춤을 추지 못하면 배울것이 아니라 밖에서 구경만 한것이며 한 처녀에게 마음을 두고도 말은 못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만들어 이상하게 접근하는거며...

나는 그가 더 마음을 먹기전에 애당초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은 소심하여 말 한마디면 쉽게 포기할수 있는것이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에 그는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미안해요. 저는 아직 할 일도 많고 더우기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답니다. 그 희망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포로되어 구속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세요.》

순간 청년은 얼굴이 빨개진채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러다가 애써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알겠소. 동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디 희망을 성취하길 바라오. 안녕히.》

그다음부터 나는 군에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날줄이야. 이런것을 보고 운명의 회룡이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나는 한동안 식당일을 거들어주면서 점심때마다 작업장에 식사를 날라가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날은 봉식이와 함께 날라가게 되어있었다. 점심때가 될무렵 나는 큰 목통에 밥과 찬을 차곡차곡 넣고 다른 냄통에는 국을 담았다. 그것을 큰 목고채에 꿰여메고 봉식이와 함께 갱도를 향해 떠났다. 눈이 무릎까지 친다.

눈보라가 어찌도 몰아쳐오는지 얼굴을 들수가 없다. 한손은 목고채를 잡고 다른 한손은 얼굴을 가리면서 메워진 오솔길을 더듬어나갔다.

어깨가 떨어져나가는것 같고 등이 구부러들기 시작하였다.

《어마나!》

나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눈우에 나가넘어졌다. 눈밑에 깔린 얼음판에 미끄러진것이다.

마침 뒤에서 따라오던 봉식이가 넘어지는 통들을 붙잡았다.

《누나, 내가 앞에 서자요.》

눈을 털고 일어나니 엉치가 막 얼얼하였다.

다시 길을 떠났다. 등골에서는 땀이 흐르고 목에서는 겨불내가 났다. 얼마 못가서 또 넘어졌다.

눈밑에 얼어붙은 버럭더미에 발이 걸채인것이

다.

이번에는 《악》 소리 를 지르며 덩굴었다. 밥은 그런대로 쏴아지지 않았으나 국물은 절반이나 쏴아졌다. 내 신발과 바지가랭이가 화락하니 젖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국도 변변히 없이 어떻게 동무들앞에 나선단 말인가.

《일없어요. 동무들이 리해해주겠지요. 이제야 쏴어놓은 죽인데 할수 없지요 뭐. 에익, 이 버럭더미들을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도 버럭더미에 밭길질을 하며 억이 막히는지 목소리를 떨었다.

갱도앞에까지 가는 동안 나의 바지가랭이와 신발은 퐁퐁 열었다. 소가죽처럼 찝찝하여 발끝부위가 제대로 꺾이지 않았다.

여러개 단위가 한 물길굴을 뚫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굴은 중간부위에 있었다.

기본굴로 들어가는 작업갱이라고 한다. 산중턱에 좁은 굴이 생겼는데 금시 삐죽삐죽 나온 돌들이 떨어져 내릴것만 같았다.

《일없어요. 우리가 항상 다니는 곳인데요 뭐.》

나는 한걸음한걸음 끌려들어갔다.

한참만에야 기본굴에 들어섰다. 꽤 넓고 높다.

여기저기 전등불이 켜져있지만 밝지 못했다.

천정에서 석수가 툇렁툇렁 떨어졌다.

저쪽앞에서는 여러명이 함마로 정대를 때리며 발파구멍을 뚫고있다. 석수에 옷이 다 젖었다.

《저런, 오늘은 뜨끈한 국이 없으니 언 밥덩이를 썬게 됐군.》

밥이 도착한것을 보고 먼저 국통을 받아든 청년이 하는 소리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밥 옷면이 하얗게 열고 국은 식다못해 얇은 열음까지 덮었다.

《그만하오. 우리가 추위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게 아직도 그런 투정질인가. 언밥도 먹어봐야 해.》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한 대원이 나를 두둔하여 나무라는 소리이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그었다.

이때 누군가 등뒤로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돌아보니 중대장이였다.

그는 잠시 말없이 국통과 나를 돌아보더니 아무런 표정변화도 없이 입을 열었다.

《앞으로는 주의해야 하겠소. 오늘은 처음이니 그럴수 있다고 보오.》

나는 오래도록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심상히 주의를 주는 중고였으나 나에게는 왜서인지 값싼 동정처럼 들렸다. 콧 된 욕이나 했으면 웅색한 마음이 후련히 풀릴것 같았다.

진정으로 대하고 같은 돌격대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것에 대하여 응당한 추궁을 해야 할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 누구의 동정을 바라지 않아.

《그릇들은 우리 동무들에게 보낼테니 동무는 빨리가서 옷부터 말리오.》

돌아서서 숙소로 오는 동안 마음이 한결 풀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혹시 그의 진정에 너무 서입견을 가지고 대하는게 아닐가.

지휘관은 매 대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인차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는 아직도 어제날의 감정을 품고있어.

물론 그는 많이 달라졌다. 놀라울 정도로 성격이며 기질이 달라졌다. 조용하고 순박하기만 하던 어제날의 그의 모습은 여기 백두산지구에서 전개력있고 열정적이며 호방한 지휘관으로 모습을 달리했다. 비록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말과 행동, 사색에서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보면 어제날에는 확실히 내가 경솔하였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너무 쉽게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하지만 때가 늦은 후회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막을 내린지 오래지 않는가.

그렇다. 그는 달라졌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있다. 그것은 나에 대한 개인감정이다.

나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있다. 그의 눈빛에서, 행동에서... 그래서 앞날이 더욱 걱정스러웠다. 세월은 흘러 가슴속 상처는 아물수 있어도 허물은 지워버리기 힘든것이다.

2. 은경이와 나

(진철의 이야기)

은경이의 출현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곳에서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물론 즐거운 추억은 못되었다. 가슴아픈 일이었다.

나는 그때 그 처녀의 무엇에 반했던가.

아름다운 용모였던가? 아니면 발랄하고 대바른 성품이었던가. 그 모든것이 다 매혹으로 느껴졌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야희때 나를 찾아와 춤을 추자고 한 그때의 일은 오늘까지도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있다. 그것이 출발점으로 시작된 나의 첫 사랑이 실패로 끝날줄이야.

그는 나와 같은 성격을 좋아하지 않았다.

평범한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본래의 성격이 그 처녀를 위해 하루아침에 달라질수야 없지 않는가. 물론 지금은 여기 백두산 성지건설에 와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나는 어이가 없이 쓴 입을 다시었다.

그 처녀를 눈만 뜨면 보아야겠으니 그 마음속 고충을 어떻게 견디여낸단 말인가.

다음순간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괴롭지만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된다. 나는 중대장이 아닌가. 나의 어깨우에 중대의 전투성파가 달려있다.

모든것을 갱안통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날도 나는 갱안에서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검푸른 청석암반에 착암기를 대고 모질게 눌러댔다. 파라락... 파라락...

기관총소리와 같은 착암기소리가 온 갱안을 메아리쳤다. 가끔 가다 누구든지 교대하자고 하여도 넘겨주지 않았다. 오늘처럼 압축공기가 셀 때 한치라도 더 뿜어야 한다. 기능으로 말하면 나보다 나는 동무들도 있었으나 그래도 내가 잡아야만 더 능률이 난다고 생각하였다.

《중대장동지, 화약을 아껴드립니다. 창고에두이젠 거덜이 난답니다.》

려단 창고에 갔던 봉식이 말했다.

《그리고 아까 려단장동지가 밖에 있는 큰 버럭덩이들을 멀리 치우지 않는다고 야단했습니다.》

《젠장, 그 버럭은 누가 가져가는데가 없나? 그러면 귀잡고 질할텐데.》

《버리는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됐어. 끝이 아파.》

나는 손을 뺐 저었다.

그날 점심때 은경이는 따끈한 밥과 국을 가져왔다. 알고보니 목통 두개에다 두툼한 《숨웃》을 입혀가지고 온것이다. 저절로 생각이 깊어졌다.

다음순간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런 일은 웅당한것이다. 갱에서 한치의 암반을 뜯어내기 위해 석수를 맞으며 줄땀을 흘리는 동무들을 위하여 그쯤한 일은 웅당 해야 한다. 이 건설장에는 그보다 아름다운 소행이 얼마나 많은가.

며칠이 지난 어느날 나는 갱밖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은경이가 웬 사람들과 마주 서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있었다.

《이건 안돼요. 우리 동무들이 땀흘리며 캐낸 돌이예요.》

《헛참, 별난 처녀로군 버럭을 우리가 처리해주는데 고맙다고 할게지 이걸 오히려...》

《우린 이 돌을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쓴다? 어디에?... 나는 이마살을 찡그려었다. 나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 애가 나는데...

은경이는 과연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나는 갱도에 들어와 봉식이를 찾았다.

《밖에 나가서 은경이를 빼돌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돌을 다 가져가라고 해. 이거야 어디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봉식이는 밖에 나갔다 오더니 환성을 질렀다.

《돌과 바꿨어요. 돌과...》

《응, 그건 무슨 소리야?》

사연은 이러하였다. 살림집건설을 하는 어느 대대에서 기초를 하는데 막돌이 모자랐다. 이 겨울에 돌은 이미 눈속에 차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우리 갱앞에 버려진 큰 돌들을 실어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처음보는 처녀가 따벌처럼 버티고 서서 가져가지 못하게 했던것이다.

서로 한참 싱갱이질끝에 은경이가 말하였다.

《할수 없군요. 그대신 폭약을 좀 달라요. 물론 퇴관이나 도화선도 같이...》

《뭐요? 이 동무가... 돌과 화약을 바꿔?》

《왜 자기의것만 크다고 생각하세요. 동무들은 돌이 필요하고 우린 폭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동무들은 지금 폭약이 팔려 애를 먹고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폭약이 있겠소.》

《아니예요. 내가 려단폭약창고에 갔을 때 동무네한테 막돌채취 용폭약이 있는것을 보았어요. 동무들은 우리 갱 버럭을 살림집건설에 리용하니 폭약때문에 애를 먹는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도 앞으로 힘껏 돕겠어요.》

그들은 은경의 남다른 진정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 동무들은 은경동무가 기특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폭약을 지원했어요.》

모두 환성을 올렸다. 엉뚱하고 지혜로운 처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졌다. 중대를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하려고 애쓰는 처녀를 내가 곁에 보지 않는것이 아닌가.

《중대장동지, 요즘 갱건설지휘부에서 압축기운전공을 할만 한 처녀를 물색한다는데 우리 중대에서 은경동무를 추천하면 어떨까요. 압축공기때문에 저마다 승벽내기를 하는데 우리 중대에서 선출하면 그만큼 유리할게 아니나요. 말하자면 <파견원>이나 같지요. 압축기를 보면서 폭약도 더 구하러지요 뭐.》

나는 봉식의 뒤머리를 꼭 쥐어박았다.

저마다 웃고 떠들며 그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나도 어지간히 귀맛이 돌아왔다. 은경이가 지금처럼 식당에서 보장성원으로 있기보다는 기본전투원으로 있는것이 더 당당하고 좋지 않을까.

그날저녁 나는 갱건설지휘부를 찾아갔다.

다음날 은경이가 압축기공으로 선발되었다.

중대는 환성을 올렸다.

은경이는 우리의 요구를 어김없이 집행하였다.

그것은 나와 은경의 사이를 어느정도 해소시켜주는 화해의 과정인듯 싶었다.

어느날 휴식시간이었다.

《오락회하자요.》

봉식이가 자리를 일며 말했다.

그러자 저마끔 좋다고 떠들어댔다.

하긴 앉아서 쉬는것보다 랑만적으로 노래를 부르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남자들끼리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은경동무를 데려오자는걸 제기하면서 그를 데려오는 과업을 중대장동지에게 맡겼으면 합니다.》

《박수-》

저마다 좋아라 떠든다.

나는 꿈쩍 놀라 눈을 부릅떴다.

《그건 안돼.》

《우리가 가면 코흘리개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중대장동지가 가야 데려올수 있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이들이 나와 은경의 관계를 모르니 그럴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여 불미스러웠던 그 사연을 말해줄수도 없다.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하는 수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동지들을 위하여 가야 한다.

그러나 은경이를 어떻게 데려오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그는 나만 나타나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일으켜세우고 경계한다.

나는 압축기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그 묘안을 찾느라고 머리를 상당히 굴리었다.

압축기장은 갱도를 좀 벗어나 산턱에 있었다.

관자로 지은 가설막안에서 빨간 수건을 동여썬 은경이가 계기를 닦고있었다.

청초한 얼굴이 전예보다 더 아름다와보인다/

나는 문손잡이를 몇번이나 쥐었다가 놓곤 하였다.

한참후에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어마나!》

은경이는 어망결에 와플 놀라 두어걸음 물러섰다.

《가기요.》

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어디루요?》

《가보면 알게 되오.》

《싫어요. 리유를 대기전엔...》

《그렇소?!... 그럼 대주지. 압축공기가 새는관이 우리 갱안에 두개씩이나 있소. 그통에 우린 지금까지 몇구멍 뚫지 못했소.》

《그건 수리공들이 할 몫이에요. 난 압축기운전공이에요.》

《동무, 그 말 하기가 부끄럽지 않소? 난 우리 돌격대에서 동무같은 사람은 본 일이 없소.》

《뭐라구요?》

은경이는 입술을 짓씹으며 나를 야멸차게 쏘아보았다. 그러더니 뺨 돌아서며 문쪽으로 나간다.

《가자요.》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씩 웃었다.

갱안에 들어서자 한창 오락회를 하던 동무들이 환성을 올렸다. 나이 어린 축들이 저마끔 달려나와 은경의 팔을 붙들고 자리에 앉혔다.

모든것을 알아챈 은경이는 나를 흘려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르는것처럼 우정 천정을 보며 아닌보살을 했다.

《자, 계속하자요. 은경동무까지 왔으니까 더 흥이 날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부르고싶은 노래를

부르는것이 아니라 지정해주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맨 처음으로 동석동무! 박수-》

그것도 흥을 돋구는데는 한가지 묘안이였다.
은경이도 웃음을 참지 못한다.

《자, 이번에는 중대장 김진철동지와 압축기운전공 류은경동무의 혼성2중창-》

《좋습니다.》

짝자그르 박수소리가 일어 났다.

《여, 그건 안돼.》

나는 눈알을 굴리며 울러댔다.

《안되다니요. 이걸 중대장동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이에요.》

《차 이런.》

나는 이마살을 찡그렸다. 공연히 이런 판에 끼여들어 곤경을 치르게 되었다.

《중대장동지, 너자는 가만있는데 남자가 시시하게 뭘 그러니까.》

하는수없이 일어섰다. 은경이는 뻔해야 소용없다는것을 알았는지 조용히 일어섰다.

《부를 노래는 <같이 가자요>. 이 노래는 서로 손잡고 부르는것이...》

그 바람에 은경이는 주저앉았다.

《뭐? 그건 안돼.》

그래도 막무가내다. 손을 잡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손은 잡지 않았다.

나는 이쪽으로 돌아서고 은경이는 저쪽으로 돌아서고... 거의 등을 마주 댄것처럼 되었다.

언제인가 나를 보고 함께 가자 하더니

(그때는 내가 함께 가자고 했지....)

오늘은 웬일인지 저 혼자 가는걸봐

(그런데 은경이가 혼자 가겠다고 했어. 아, 왜 이렇게 쓸쓸할까....)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다나니 한참후에는 가사를 잊어먹었다. 우왕좌왕하는데 앉아서 듣던 패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쳤다.

은경이는 얼굴이 새빨개서 갱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고말았다.

은경이는 그후부터 나를 보면 아무일 없던것과

같이,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지나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얼굴을 붉히곤 하였다.

이즈음에는 어쩐지 나의 눈길은 은연중 은경에게 자주 쏠리곤 하는 느낌을 느꼈다.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또 생소한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이악하게 노력하는 그에게서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때는 어제날 쌀쌀히 나의 청혼을 거절하던 모습도 떠올라 허거픈 웃음이 나기까지 하였다. 어쨌든 은경이는 성장하고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쁜 일이었다.

갱이 전진함에 따라 압축기와 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다른 대대에도 압축공기를 쏘주는 조건에서 압축기를 우리쪽으로 옮길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쪽저쪽에서 착암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비밀련락선도 용을 쓰지 못하였다.

한나절은 우리가 쓰고 또 한나절은 다른 대대가 썼다. 착암기가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수굴전을 벌렸다. 함마를 휘두르며 역사질을 하고나면 저녁에는 석수에 젖고 돌가루를 뒤집어쓴 옷과 머리를 빨 기운도 없었다. 처녀들이 매일 남자들의 옷을 빨아 밤새 아래목에서 말리느라고 저희들은 추운 옷목에서 꼬부리고 자곤 하였다.

우리는 갯 가까운 곳에 야장간을 설치하였다.

착암기를 만가동시키지 못하는 조건에서 본격적인 수굴전을 벌려야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오후 첫시간에 우리 갯에 압축공기가 들어왔다.

《어떻게 된거야 은경이가 뭘 좀 삭갈렸나?》

《췌, 조용하랴요.》

봉식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췌 알랴요.》

《응?》

나는 무엇인가 생각되는것이 있어 착암기를 멈춰세웠다. 지금 시간은 이웃갯에 쏘주어야 할 시간이다. 그러니 잠깐동안 쏘주다가 돌릴것이다.

그러니 첫 바람은 우리가 쓰고있다. 굴진에서 첫 바람은 어느 단위에서나 중시한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여도 그 몇분은 하루실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

그만큼 공기압력이 세며 누구든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귀중한 첫 바람

이 우리깡에 오는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중대를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야 누가 모르랴. 그렇지만 량심에 꺼리끼였다.

요즘 이웃깡에서 별스레 굳은 암질과 맞다들어 무척 애를 먹고있다. 어제 참모회의에서는 그곳 중대때문에 공사를 계획된 날자까지 보장하지 못하게 될가봐 매우 우려하였다.

그런데 자기 단위의 실적만 생각하면서 다른 중대가 써야 할 압축공기를 우리가 쓴다면 공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중대가 먼저 끝낸다고 하여 공사가 끝나는것이 아니다.

물길굴은 하나이기때문에 어느 단위에서든지 그 하나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추운 겨울밤 눈보라속에서 다졌던 맹세는 무엇이었던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냈던 그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던가. 그들처럼 살자고 하였지.

나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압축기장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나는 표표한 얼굴로 그와 마주섰다.

《압축공기를 이웃깡에 돌리오.》

《예?》

은경이는 천만뜻밖이라든듯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선뜻 말하기가 벅찼다.

그의 진정을 내가 너무 무시하는게 아닐가.

그러나 다음순간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남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성과를 바라지 않소.》

《뭘라구요? 이걸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 건설자들은 이곳에서 몸도 마음도 백두산처럼 커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 남을 욕되게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보오.》

나는 돌아서 문을 열고 나왔다. 길게 마주서야 그의 처지만 딱하게 만들것만 같았다.

그쯤만 이야기해도 그는 얼마든지 넘겨짚을 처녀가 아닌가. 뒤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마음도 좋지 않았다.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걸가지고... 우리의 관계는 왜 풀리지 않고 계속 격렬해지기만 하는가. 나의 방법이 서툰가. 아니면 은경이가 너무 도고해서인가.

그날 작업이 끝난 다음 나는 봉식이와 함께 무딘 정대를 안고 야장간으로 갔다.

그런데 은경이가 먼저 와서 함마를 들고있었다.

눈빛과 거동에서 랭기가 확 뿜겼다.

그는 불속에서 빨갛게 단 정대를 집게로 집어 내앞에 내밀었다. 그러니 나를 기다렸다는 소리다.

《잡으세요.》

《?... 처녀가 함마질을 할테요?》

《왜요, 체면이 꺾여요? 나의 체면은 생각지 않고 마구 두드려댔으니 이제 도루 맞아야지요.》

나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 말았다.

봉식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쪽저쪽 눈치를 본다.

탕 탕 탕...

야무진 함마소리가 야장간안에 메아리쳤다. 시빨갛게단 쇠가 불씨를 튀기며 날을 좁혀간다.

은경의 앙다문 입술이 파들파들 편다.

《몸도 마음도... 커지려 한다지요?》

나는 놀라운 눈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메만 휘두른다.

그러니 압축기장에서 벌어진 우리의 싸움이 이곳에서도 이어지고있었다.

헛참, 너자들이란... 독이 단단히 올랐는걸...

《그렇소.》

《내 보기엔 상당히 커졌더군요.》

《?》

《백두산에서 사랑을 배운다지요?》

《그렇소.》

《혼자 배우겠는가요?》

《우리 다같이 배우고있소.》

《그런데 왜 한사람은 빼놓고있어요?》

《?》

은경이는 함마질을 멈추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린다.

《용졸하군요.》

그는 휙 돌아서 나가버렸다.

《저 동무가...》

봉식이가 놀라서 하는 말이다.

《그 처녀 원래 그래.》

《예? 이미 전에 알고있었어요?》

《그건 몰라도 돼.》

봉식이는 알수 없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나는 멀어져가는 은경이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빨간 머리수건이 눈보라에 날린다.

전에 없이 어깨가 처져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왜서인지 가슴이 찢릿해났다.

그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정말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그를 따뜻하게 대해준 때가 있었던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결을 주지않았다. 다른 처녀들과는 끈질기게 섬쥘리고 이야기도 잘하였지만 은경이와는 철저히 사업을 위한 실무적인 이야기만 하였다. 언제한번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확실히 내가 옹졸하였다.

그러니 은경의 커가는 마음을 보지 못하였다.

높이 성장하려는 가혹한 마음을 보지 못하였다.

방금 은경이가 부르짖은 목소리가 그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그도 내가 성장한것을 찾아본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을 읽지 못했다.

진철이, 너는 뭐냐. 대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땅속에 굴을 뚫는단 말이나.

물길굴은 기계나 힘으로 뚫는것이 아니다.

대원들의 마음이 뚫고있다. 그 대원들을 아끼고 이끌어주어야 할 지휘관인 네가 그렇게 옹졸해서야 되겠느냐. 불현듯 은경이를 아끼고 걸음 걸음 도와주고싶은 강렬한 충동이 솟았다.

그러나 인차 도리머리를 저었다. 나는 그 하나만의 지휘관이 아니지 않는가. 어쨌든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불타는 지향대로 변모할것이다. 나는 그것을 굳이 믿고싶었다.

그제야 나는 여적 은경이를 사랑하고 있다는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그것은 까맣게 타버린 재리를 헤집어 보느라면 무릇 빨갛게 남아있는 작은 불씨와 같은것이였다. 그렇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 불씨는 비록 작아도 타오르면 세찬 불길로 될것이다. 그래. 나는 분명 그를 사랑하고있어. 또 사랑하고싶어. 열렬히!

은경이는 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빨간 머리수건은 내 눈앞에 점점 크게 확대되었다.

3. 말하라 심장아 (봉식의 이야기)

은경이에 대한 중대장의 립장은 어딘가 모르거나 나에게 석연치 않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지금까지 진철은 처녀들을 곰상하게 해주었다.

은경이처럼 그렇게 불꽃튀는 싸움을 하는 처녀도 없었다. 왜서일가?

은경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호감을 살지언정 영향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중대장도 별다른게 없지 않는가.

그에게는 가식이 없다. 좋은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것은 나쁘다고 한다. 일하자고 애쓴다.

몸을 아끼지 않는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궁도 하고 큰소리를 치긴 해도 지휘관이 그만 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진철이로 하여금 불만을 가지게 하였는가.

나는 혹시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랑도 있을수 있지 않는가.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별로 그런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사랑이라는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는것은 힘든 일이었다.

어쨌든 두사람은 미묘한 감정으로 엉켜있는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내가 풀어볼가?

그날저녁 나는 진철이가 벗어놓은 빨래감을 몰래 가지고 은경이를 찾아갔다.

석수에 젖고 돌가루에 범벅이 된 옷이었다.

《이건 누구거예요?》

은경이는 눈을 크게 뜨며 나에게 물었다.

《내거지요 뭐.》

《홍.》

그는 받아쥐었던 빨래감을 다시 내 가슴앞에 확 안겨주었다.

《왜 그래요?》

《가지구 가라요. <그림자> 같은거.》

그는 나를 쏘아보더니 방안에 들어가며 문을 꽁 닫아버렸다. 나는 켜켜서 한동안 서있었다.

녀자들의 예민한 감각은 놀랍기 그지없다. 옷가지만 보고도 누구의것이라는것을 알아맞히지 않는가.

나는 방문을 살머시 열고 빨래감을 열린 방바닥에 놓았다.

《부탁합니다.》

《가지고 가지 못하겠어? 난 오늘밤엔 시간이 없어. 식당근무를 서야 해.》

안에서 은경이가 하는 소리다. 그러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나는 큰일을 친것만 같아 흡족해서 돌아섰다.

오늘밤엔 내가 은경이의 식당근무를 도와줘야지.

래일아침엔 떡을 해서 식사를 시킨다니 일손이

모자랄거야. 요즘 취사원이 휴가를 갔기때문에
처녀들이 순번제로 식당근무를 선다. 래일은 오
래간만에 휴식하는것으로 하여 특식을 차린다.

나는 초저녁에 조금 눈을 붙이고 일어났다.

밖에 나오니 하늘엔 별이 짝 찼다.

파들과들 떨고있다. 나는 몸을 떨며 진저리를
치고는 취사장에 들어섰다.

은경이는 어데 갔는지 보이지 않고 김이 잔뜩
서린 부엌아궁에서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
고있다.

래일아침 특식을 위해서 무슨 찬거리를 더 하
려고 잠간 자리를 뜬게지....

그사이에 내가 떡살을 찌내고 찜기까지 한다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

나는 떡살을 여러개의 밥판에 얹히고 김이 서
리는 증기가마에 넣었다.

그때로부터 한참후에야 은경이가 도착하였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어디 가서 한아
름이나 되는 떡호박 몇개를 가져왔다.

《차, 이거 멋있는데.》

나는 환성을 올렸다.

그는 나를 보더니 눈이 둥그레졌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헐, 내가 뭐 누가 시켜서 할가? 시시하게.》

은경이의 얼굴에도 웃음이 어렸다.

시간이 한참 지난후에 나는 증기밥가마문을 열
었다. 순간 눈이 둥그레졌다. 밥처럼 되여야 할
찹쌀이 죽처럼 된것이 아닌가

《어마나, 이 일을 어찌나. 물을 얼마나 부었
어?》

《밥할 때만큼 부었지요 뭐.》

《찹쌀은 씻은 다음 물을 따 찌우고 찌내야
해.》

은경이는 금시 울상이 되었다.

나는 순간에 멍해져서 눈만 깜빡거렸다.

그런것을 내가 알수가 있다.

은경이를 도와주자던것이 랑패를 보았다.

행여나 하여 절구에 넣고 찜어보았더니 물엿치
럼 되고 말았다.

그날아침은 저가락으로 떡을 집어먹는것이 아
니라 물엿을 먹듯이 순갈로 퍼서 먹었다.

중대장똥이라고 밥 한그릇을 해놓았는데 그는
대원들과 똑같이 식사하였다.

전에없이 얼굴이 침통하고 말이 없었다.

그바람에 은경의 얼굴은 까맣게 질렸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은경이가 모두 뒤집어
썼다.

나는 그다음 이야기를 계속한다.

은경이가 울며 뛰어나간뒤 나는 전철이에게 떡
이 죽이 된 사연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알고있어.》

《예?》

그걸 어떻게 알았을가?

《중대장동지, 그는 동지들을 위해 애씁니다. 어
제밤에도 떡호박을 구해오느라고 심리나 되는곳
에 갔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얼면서 지고왔
...》

《안다는데.》

그래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중대장동지, 그를 돌봐조에...》

《차 이런...》

그는 귀찮은듯 손을 뻗뻗 내저었다.

나는 하는수없이 나오고 말았다.

그날밤은 누구도 인차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이 밤이 새면 봉락구간돌과전을 벌려야 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전투를 준비하고있다.
누구도 말이 없다.

누구인가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고있다.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이

헤여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였노?

이 시각 그 시가 왜 그리도 폐부를 파고드는지
...

선렬들이 싸워온 전구구, 그들의 청춘이 묻힌
땅에서 우리도 생명을 바칠수 있다는 생각이 들
어서인지 모른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있다.

다음날 아침, 누구도 구령을 친 사람은 없었으
나 중대는 모두 갯알에 모여섰다.

근엄한 얼굴이다.

파연 누가 돌파조원으로 뽑히겠는지...

어찌보면 가장 값높은 순간을 맞이할수도 있고
놓칠수도 있다. 그 순간이란 뜻하지 않게 차례질
수 있지만 누구나 몇몇이 맞이하는것은 아니다.

오직 심장을 내대는 인간들만이 빛나게 장식할 수 있다. 더우기 여기는 항일혁명선열들이 피흘리며 싸운 곳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려본 조국을 더욱 꽃피우기 위하여 이곳에 달려온 건설자들이다.

바로 그러했기에 누구나 다 그 순간을 희망하며 값높이 살려고 애쓴다.

그 첫 순서에 자기가 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두 긴장해서 서있다.

진철이가 엄숙한 표정으로 중대앞에 나섰다.

장내는 한순간 움찔 물결쳤다.

김병철, 리준모, 양혁춘, 오국성...

지명당한 대원들은 크게 대답하고 대오앞으로 간다. 나는 속이 빠질빠질 났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지주머니 옆에 붙은 손가락을 남이 보지 않게 하나하나 꼽아나갔다.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한명!

이번에만 내 이름을 짚지 않으면...

《서봉식!》

순간 번쩍하는 섬광이 내 눈앞에서 일었다.

《엣!》

숨을 죽이고있던 내 입에서 총알과 같이 여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온몸의 힘을 모아 활개치며 정보로 대오앞에 나갔다.

나는 어깨를 쭉 펴고 보란듯이 돌아섰다.

돌파조에 뿔히지 못한 동무들이 중대장앞으로 모여들며 저마끔 청원한다.

그러나 은경이만은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진철이를 쏘아보고있다. 불이 뿔어져나오는듯한 눈빛, 피가 지도록 깨물고있는 입술...

얼굴은 백지장같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녀자들에게서 그런 무서운 표정을 아직 본 일이 없다. 불현듯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은경이가 너무도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남자도 미처 뿔히지 못하는 돌파조에 어떻게 녀자가 뿔힐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봉락구간에서 녀자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없다. 그는 중대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명을 더 뽑겠소.》

한순간 또 긴장해졌다. 누구일까?

그는 왜 따로 이름을 부르는것인가?

중대장은 좌중을 한번 훑어보았다. 어느덧 그

의 눈길은 은경이에게 가서 멎었다.

《대원 류은경!》

《...》

대답이 없다. 모두 어리둥절하여 은경이를 돌아보았다. 은경이는 고개를 숙인채 서있었다.

가늘게 어깨를 떨고있다.

나는 아연해서 진철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어떻게 되어 은경이를 선정할수 있단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불꽃튀는 싸움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큰 믿음을 줄수있는가, 은경이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진철이는 천천히 은경이의 앞으로 다가갔다.

은경이는 머리를 들었다. 이전에 볼수 없었던 환희와 믿음이 뒤섞인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서 빛뿌리고있었다. 진철이는 그의 앞에서 멎어서서 이전과 다른없는 눈길로 은경이를 마주보았다.

《동무가 서야 할 위치는 나의 옆, 봉락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가운데요. 그곳에서 쾌불로 작업장을 비쳐주어야 하오. 어떻소. 해낼수 있소?》

표정과 달리 진철의 목소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디마디 울려나오는듯 웅글지고 뜨거워진것이 숨배여있었다. 은경의 입가에는 대답대신 고요한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행복감이 한껏 어려있었다. 진철이도 뜨거움을 삼키며 뒤를 돌아보았다. 갱입구보초를 서는 나이는 대원이 세워놓았던 해불대를 가져다. 진철에게 넘겨주었고 진철은 그것을 은경에게 내밀었다. 은경은 한발 내짚으며 해불대를 받아 가슴에 소중히 부둥키었다. 그리고는 빨강계 상기된 얼굴을 황황히 숙여버렸다.

나는 속으로 탄성을 올렸다.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 돌파조의 작업구간을 비쳐줄것이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말없이 우리에게 신심과 용기를 줄것이다.

그 불빛에, 그 마음에 떠받들려 우리는 더욱 용감해지려고 애쓸것이다.

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곳에 처녀를 불러세울수 있으며 처녀는 함께 서겠다고 행복에 넘쳐 말할수 있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직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알수 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죽음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믿음!

나는 그것을 여기 백두산에서 보았다.

그들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성장하는것은 보았다.

자주 다투긴 했어도 여기 백두산에서 몸도 마음도 커지려는 참된 인간들의 몸부림을 보았다.

그것이 며칠전 함께 가자고 한 은경이의 목소리가 말해주고있었다. 그 목소리에 진철이는 참된 사랑을 배우려는 은경이의 가룩한 마음을 읽었을것이다.

그래서 감동적인 이 순간이 있는것이 아닐가!

《돌파조, 나를 따라 앞으로!》

중대장이 구령쳤다. 앞에는 돌파조가 서고 그 뒤로 동발목을 멘 돌파조원들이 따르기 시작하였다. 갱입구를 지켜선 대원이 길을 내주었다.

저벽 저벽 저벽...

석수가 고인 갱도안에 발구름소리가 메아리쳤다.

번갯거리는 전지불에 암석이 들쭉날쭉한 갱도벽이 얼른거리며 다가오고 또 다가온다.

분락구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나는 그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나.

갱은 구원되었다.

한마디 부언하건대 우리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라는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인간들이 여기 백두산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성장했다.

오늘 삼지연군은 조명도 밭도 난방도 모두 전기로 해결하고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돌격대원들은 과연 무엇을 바쳤던가?

사랑이었다. 투사들이 지녔던 그런 사랑이었다.

나는 그것을 백두산식사랑이라고 말하고싶다.

이것이 내가 찾은 작품의 종자였고 주인공들이였다.

아! 불같은 인간들이 떠받든 조국이여!

행복한 인민이여!

삼지연에서

피줄기

박정애

울렁이여
마냥 벅차게 가슴 울렁이여
쫓아보노라
심산 외진 마을
비젖은 새벽길에 찍혀진 차바퀴자욱

이 나라 끝도 한끝
아직도 안개속에 산과 들 잠자고있는데
벌써 다녀 가신
장군님 야전차의 바퀴자욱

다시금 쫓아보노라
력력히 새겨진 그 자욱
상기도 야전차의 열기 흐르는듯
후더워
그이께서 가신 길 우러러 따라서노라

산넘어 들을 지나
천리 만리 굽이굽이
필필이 비단을 펴놓아드리고
알알이 보석주단 깔아드려야 할

장군님 가시는 길
내 몸의 피줄인듯 뻗어있구나

갈래갈래 뻗은 길우에
인민사랑 뜨겁게 흐르는 길우에
그이의 헌신의 자욱을 엿어보는 생각
조국이 크나큰 생명이라면
장군님은 그 생명의 심장
전선길은 우리의 피줄

오, 내 생명의 피줄
네우에 이어져있어라
진정 너의 한줄기라도 끊기운다면
조국도 민족도 나도 없을
운명의 피줄기!

내 몸의 한부분같은
뚜렷한 차바퀴자욱 정히 쫓아보니
이 몸의 피줄기되어 흘러드는
장군님의 전선길
운명의 피줄기여!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일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이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녀이 깃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선군8경》의 첫 순서로 꼽히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고 21세기의 태양이 솟아오른 우리 혁명의 성지 백두산의 숭엄한 모습이 집약된 천하제일절경이다.

장군봉을 위시로 한 백두련봉의 기암절벽과 천지의 푸른 수면, 아아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붉게 물들이며 시작되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순식간에 온 누리를 진홍빛노을로 뒤덮으며 장관을 펼쳐놓는다. 이글이글 타는듯 한 그 노을빛은 만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한껏 북돋아주는 열정미와 천하를 굽어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듯 한 인정미, 다듬고 씻은듯이 정갈하고 깨끗한 순결미로 하여 신비로움과 우아함, 장엄함의 최절정을 이룬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계절에 따라 그 양상이 서로 다르고 날씨에 따라 그 멋이 같지 않으며 보는 장소에 따라 느낌이 각이하므로 한번 보아서도 그 진미를 다 알수 없다.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탐험하고 그 변화무쌍한 일출장관을

제나름으로 그려보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우리 시대에 와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 풍경이다.

이 땅위에 백두의 메부리가 솟아 수백만년이 흘렀고 그 뿌리에서 뻗어간 조국땅에 겨레의 삶이 시작되기도 수천년이 지났다. 옛날에도 백두산의 해돋이는 있었고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민족의 기상으로 여기며 그 절경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백두산의 해돋이가 오늘처럼 우리 민족의 자랑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부각되어 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것은 백두산의 해돋이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상징하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의 해돋이에서 주체의 붉은 노을이 지구를 덮을 자주시대의 새 아침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원대한 뜻과 불타는 신념, 드높지 않는 담력과 뜨거운 인정미를 그대로 받아안고있다.

실로 백두산의 해돋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김일성** 민족의 제일절경, 영원한 선경으로 빛날것이다.

박길남

가사

선군 8 경가

김현호

백두의 해돋이로 이 강산 밝아오고
다박술설경으로 선군시대 펼쳐졌네
백승의 총대높이 장군님 빛내주신
에헤라 선군8경 내 나라 자랑일세

철령엔 추억깊은 철쭉꽃 붉게 피고
장자강 불야경에 내 조국 황홀해라
백승의 총대높이 장군님 빛내주신
에헤라 선군8경 내 나라 자랑일세

울림폭포 그 소리는 행복의 노래되고
한드레벌 지평선엔 지는 해도 멈추었네
백승의 총대높이 장군님 빛내주신
에헤라 선군8경 내 나라 자랑일세

대흥단 삼천리는 감자꽃바다 되고
범안리 선경은 강성대국 모습일세
백승의 총대높이 장군님 빛내주신
에헤라 선군8경 내 나라 자랑일세

백두일출에 대한 생각

최성진

행운이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백두산해돋이를 바라보던 때를 생각
하면 가슴 그들먹이 고여오르는 새로운 열정이 솟
구친다.

내 나라 삼천리에 억센 줄기를 뻗치고 만리장천
에 거연히 솟아 백발을 날리는 조종의 산 백두산의
해돋이는 볼수록 장엄하여 누구나 한번 보기를 고
대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인공지구위성으로 대기권
을 살살이 촬영하거나 관측하며 컴퓨터로 그 변화
를 산출해 내는 현대기상에보기술로써도 백두산의
변화무쌍함에는 어찌지 못한다.

백두의 해돋이를 보겠다고 찾아가서 여러날을 묵
으면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때문에 행운의 기회를 얻
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백두일출은 이 세상 그 어느 풍경도 견줄수 없는
장관중의 장관이다.

하기에 재능있는 미술가는 백두가 펼치는 해돋이
의 그 장엄하고 신비한 노을빛에서 가장 리상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를 찾으려 하고 역시 명망있는 음
악가도 백두의 노을빛에서 정화되고 여운깊은 명선
률을 찾으려한다.

나에게는 지금도 몇해전에 본 백두산해돋이의 풍
경이 눈앞에 삼삼히 안겨온다.

어둠의 너울이 드리운 아득한 천리수해의 한끝에
서 광막한 우주를 향하여 서서히 타오르던 신기한
빛!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단잠을 자고있을 새벽 4시
였다.

하늘에는 여전히 천지의 물에 씻어낸듯 싶은 반
짝이는 별들이 손을 들면 손끝에 닿을듯 가까이에
박혀있는데 분명 하늘과 땅이 맞붙은 아득한 수해
의 가장자리에서는 분명 빛의 조화가 느껴지는것이
였다.

우리는 초조했다. 이제 당장이라도 백두의 천기
가 룡트립하며 하늘을 가리워 버리지 않을가 하는
위구감이었고 어서빨리 거대한 해돋이를 보고싶어
지는 조바심이었다.

실상 해돋이는 시작되고있었다. 머리 우에서 반
짝이던 별들은 어느새 색이 바래졌으며 새벽빛이
우렁이 드러나던 장군봉과 향도봉의 우람한 자태는

거대한 붉은 기폭에 싸이는듯 노을빛에 물들어갔다.
이어 눈이 덮여있는 아근의 협곡들과 천태만상의
무수한 분출암들이 노을빛에 싸이였다.

빛의 신비한 변화에 어리둥절해지고 가슴 울렁이
는 그 시각에 아득한 수해너머에서 드디어 태양이
쭈욱- 솟아올랐다.

그 장엄함을 말로나 글로 다 표현할수 없는 순간
이였다.

해돋이가 시작되자 누리는 쇠물이 끓어번지는 로
안처럼 온통 타는듯 한 빛의 세계로 화하였다.

둘러보면 백두의 호위병인양 솟아있는 지척의 쌍
두봉과 대각봉이며 멀리 소백산과 간백산과 배개봉
이 그리고 북포태산과 남포태산의 웅자도 온 우주
에 짙 차있는 노을빛으로 번져가고있었다.

그때의 흥분을 어떻게 다 표현하라.

나는 그 시각 혈관속으로 격류와도 같이 굽이쳐
가는 피의 흐름소리를 들었다. 심장의 세찬 박동소
리를 들었다.

그것은 조종의 산 백두산이 높이 솟은 위대한 나
라에서 산다는 자람이며 궁지이며 행복감이였다.

그래서 백두의 해돋이를 한번 보면 삶의 희열이
넘쳐나게 되고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열정과 지혜
와 용맹의 바다가 열린다고 하지 않는가!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빛이 만사람의
가슴속에 삶과 투쟁의 의욕을 더해주는 백두의 해
돋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할
생각이 더 난다고 하신 깊은 뜻이 가슴깊이 젖어든
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의 해돋이를 누구보다도 사
랑하신다.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빛내여 가시는 나
날 그 장엄한 노을빛에서 내 나라의 광휘로운 미래
를 내다보시였다. 아니 무한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인민을 힘차게 이끌어가신다.

선군조선의 자랑으로 불리우는 선군8경중에서도
제일경인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일출》은 바로
우리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 우리 인민의 슬기가 비
껴있기에 더더욱 빛나는것이다. 언제나 그 언제나
나는 가슴에 가득 넘쳐나는 백두산의 해돋이를 안
고 산다.

내 한생 해돋이순간에 살리 외 1 편

박해출

백두산이 생겨 수백만년
백두산의 해돋이도 수백만년인가
너 백두의 해돋이여
무수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어느 시대에 오늘처럼 자랑했더나

누를수 없는 충동을 안고
백두산에 오르니
새벽녘의 어슴푸레한 기운이 걷히는 때다
련련히 파도쳐오는 못봉우리들
아득한 밀림의 바다 굽어보는 가슴속에
선군의 천만리가 뜨겁게 새겨지는데

불끈-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문을 열어제낀다
순간에 온 강산이 이글이글 타는듯
하늘도 땅도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드누나
장관도 이런 장관 세상에 또 있으랴
이런 신비로움 이 하늘아래 어디 있으랴
황홀경을 펼치는 불노을 불노을

저 불붙는 노을을

선군의 기발로 펼쳐드신 우리의 장군님
이 아침도 그 어느 고지에서 새벽을 맞으시며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백두령봉에 오르시여
해돋이를 손저어부르시던
그날처럼 그날처럼 뜨겁게 마중하시리
붉은 산악의 총대숲을 사열하시니

철령도 그렇게 넘으셨고
까치봉의 새벽안개도 그렇게 해치셨다
이 세상 그 어디나 해돋이는 있어도
내 나라의 해돋이는 장군님 불러오는 해돋이여서
저렇듯 열정이 넘치고
저렇듯 사랑에 불타고
눈부시게 눈부시게 빛나는것 아니나

아, 불타는 해돋이처럼
조국을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하리라
태양같은 고결함에 살고
새날같은 순결함에 살고싶어
날개라도 돋힌듯 달려온 백두산마루
내 한생 백두의 노을처럼 그렇게 빛나게 살리라
오,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여

철령의 철쭉꽃이 붉은것은

철령의 굽이굽이에
못잇을 사연안고 철쭉꽃이 폈네
산에 들에 피는 꽃과 다름없건만
어이하여 유별히도 붉은것이나

병사들의 고향소식 전해주시려
야전차 창가에 별빛을 싣고
밤도와 넘으시던 그날처럼 붉은것이나

동무들은 평양으로
나는 이제 철령을 넘을것이라시며
최전선으로 나가시던 장군님의 마음
네 다 안고 피여 그리도 붉은것이나

우리 장군님 열번도 더 넘으신 철령
철령은 참으로 뜻깊은 곳
령마루의 칼바람 맞으시면서
기다려 기다려
병사를 품에 안고 기념사진 찍으시던
환하신 그 미소 꽃잎에 어려 붉은것이나

아, 선군길의 붉은 꽃
장군님 두고두고 추억하시는 철쭉꽃
우리의 마음속에
사시절 피고피여
우리 마음 붉게도 물들이는 철령의 철쭉꽃은
장군님을 따르는 천만군민의 마음이어라

내 고향의 들장미

김철수

1

나는 부소장이 부른다는 연락을 받자 이것 참 야단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부소장은 틀림없이 자기가 출장을 가있는 사이 내가 이번 국토환경부문 경험발표회에 우리 연구소를 대표하여 출연할 토론문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가 알아보려고 찾는 모양인데 나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자료 하나가 보이지 않아 자료실에만 불박혀있다니니 그만 사흘이란 시간을 놓아버린 화살마냥 그냥 다 흘려보내고말았던것이다.

그 자료란 내가 5년전 산림과학원 ㄷ군분원 책임부원으로 있을적에, 구정이라는 마을에 한번 들렀다가 그만 산에 변변한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볼수가 없어(석회암 동공지대라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너무 가슴이 아파 직접 그 고장을 한번 본때있게 꾸러볼 결심밑에 생각했던것들을 일일이 정리해 놓았던 매우 소중한 자료였다. 결국 국토일군으로서의 나의 책임성과 애국심을 말해주는 자료여서 나는 런 사흘간을 어금이 잃은 사자마냥 찾고 또 찾았던것이다.

나는 이런 리유로 토론문이 늦어졌음을 그대로 보고하는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며 부소장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부소장의 얼굴빛을 보니 토론문의 진척정도나 알아볼 경황이 아닌듯 하였다. 무슨 상스럽지 못한 일이 불거졌는지 매우 무거운 표정이었던것이다.

나는 가슴속 신경오리들이 별안간 그 어떤 작은 틀개에 의해 바빠 조여지기라도 하는것 같은 심정을 느끼며 부소장앞에 조심히 다가왔었다.

부소장은 말없이 빼람을 열더니 그속에서 종이뭉테기 하나를 꺼내놓았다.

무심히 그것에 눈을 주던 나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굳어졌다. 그것은 여직껏 내가 모래불속으로 숨어버린 물방울만큼이나 찾기 힘들어 하던 그 자료였기때문이였다.

《아니 부소장동지가 그걸 어떻게?...》

나는 너무 놀라와 다소 격한 어조로 물었다.

《음, 전날 출장을 막 떠나려는데... 당장 이걸 우리 자료실 철게속에서 없애달라는 전화가 와서 그

만...》

《네에?》

나는 차라리 나를 없애달란다는 소리라도 들은듯 화들짝 놀라며 반문했다.

부소장은 진정하라는듯 한손을 들었다놓으며 자기는 그때 출장길이 바빠 우선 이 자료부터 찾아다놓았했다는것, 그래서 오늘은 돌아오는 길로 집필자와 합의를 하고 처리할 심산으로 나를 급히 부른것이라고 말했다.

한순간 타는듯 한 수치가 나의 온몸을 휩쌌다.

한참후에야 나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물었다.

《아마 어느... 간부동지가... 제기한... 모양이지요?》

《간부는 무슨 현지에 있는 한 녀성인데.》

《?》

나는 미궁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심정과 함께 칼끝같이 일어서는 반발심을 느끼며 다소 거칠게 물었다.

《도대체 그 녀성은 뭘하는 사람입니까?》

《짐작될텐데?》

《?》

《왜 우리 같이 ㄷ군 분연구소에 있을적에...》

《분연구소에 있을적에요?》

나는 금시 망각의 장막이 한겹 벗겨질것만 같은 심정을 느끼며 물음을 다시 되돌렸다.

《거 왜 라은희라구...》

《아!-》

드디어 추억의 밑바닥에서 수레 하나가 굴러나왔다.

라은희...

한순간 내 눈앞에는 그 처녀를 알게 되던 5년전 그날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2

...그날 부소장(그때는 분연구소 부소장이였다.)은 한 처녀와 함께 바빠 따라오며 지금 막 정문을 나서고있는 나를 찾았다.

《영철동무, 구정마을로 간다지?》

나는 바빠 돌아서며 그렇노라고 대답했다.

부소장은 내가 그사이 속이 설기떡같이 궁곤 구정마을 석회암돌산들에도 풀과 나무들을 자래울 방

도를 찾기 위해 도내 산림연구소들에는 물론 산림 경영소들까지 찾아다녔다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 한참 치하하고나서 뒤에 선 처녀를 가리켰다.

《이 동무하구 같이 좀 가줄수 없겠소?》

《아니 그건 뭇때문입니까?》

나는 그 처녀를 나의 조수로 붙이려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러 한길 뛰었다. 사실 연구사도 아닌 행정일군에게 처녀조수가 달린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불편한 일이기때문이었다.

부소장은 나의 마음을 휘저어 놓기라도 하려는듯 두손을 마구 흔들어 대며 성급히 말했다.

《아, 동무를 따라 구정마을로 가는건 아니구... 그너머 마을로 출장을 가는데... 길동무나 좀 해달라는거지. 며칠전에 전문학교를 졸업하구 우리 분연구소 부원으로 배치돼왔소.》

《아-》

그렇다면 질색할것도 없이 나는 서둘러 경계의 눈빛을 풀며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금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이거나 한 듯 눈이 부시게 아름다왔는데 구태여 결합을 들춰 내란다면 입귀가 너무 맷혀 오달져보이는것이였다. 그러나 오달지면 어떻고 야달지면 어떻단 말인가. 그저 한갓 길동무인데야...

나는 다시금 흥가분한 기분으로 돌아와 성큼성큼 걸었다. 열차에도 그렇게 올랐으며 구정역에도 그렇게 내렸다. 그러면서 길동무가 제대로 따라오는가 이따금씩 등뒤로 확인했을뿐이였다.

계절은 바야흐로 여름의 문어구에 들어서서 때여서 하늘중천에 뜬 해도 한결 붉은 혈기로 불타는듯 하였으며 푸른 비단옷으로 펼쳐입은 숲도 지금 막 좋은 계절을 만난 기쁨때문에 어쩔줄 몰라하는상 싶었다. 코가 저릴 정도로 질게 떠도는 숲향기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올라 노래라도 부를듯 하던 처녀가 불쑥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 혹시... 책임부원동진 무슨 장편소설을 구상하고있는게 아니세요?》

《영? 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요?》

나는 처녀쪽으로 급히 돌아서며 물었다.

웅달샘같은 처녀의 눈망울속에선 지금 나에게 대한 불만이 모래 샘바탕 바글거리며 끓어오르고있었다.

《같이 오면서도 별로 말은 없구 내내 사색만 하시니 말이예요.》

《허, 허허... 판데 가는 동무라길래.》

내가 입을 벌리고 웃자 처녀는 드디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제켰다고 확신하는지 밝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아이, 정말... 제가 가진 어릴 간다구... 책임부

원동지, 전 전문학교를 다닐 때부터 동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소?!...》

놀라와 눈여겨보니 신비스러운 정도로 아름다운 처녀의 쌍겹진 눈에 나에게 대한 존경심이 다래다래 어려있었다.

《신문에랑 오죽 크게 났다구요. 고향의 모든 산들을 푸르게 하기 위해 행정사업의 그 바쁜 때에도 시간을 내여 늘 현지에 나와 사는 동지라구요. 소문엔 출장가방에 바꿔신을 운동화까지 넣고 다닌다더군요.》

《허허허... 그런 소문까지 났던가요?》

나는 싫지 않아 찹찹 소리내 웃었다.

《그래서 제 언젠가... 우리 학급동무들한테 뭐했는지 아세요?... 그 동지가 훌륭한건- 당의 뜻에 생각만이 아니라 몸도 아낌없이 따라세우는것이다. ...》

《?》

같이 일어서는 반발심을 느끼며 다소 거칠게 물었다.

《도대체 그 녀성은 뭘하는 사람입니까?》

《짐작될텐데?》

《?》

《왜 우리 같이 ㄷ군 분연구소에 있을적에...》

《분연구소에 있을적예요?》

나는 금시 망각의 장막이 한겹 벗겨질것만 같은 심정을 느끼며 물음을 다시 되돌렸다.

《저 왜 라온희라구...》

《아!-》

드디어 추억의 밑바닥에서 수레 하나가 굴러나왔다.

라온희...

한순간 내 눈앞에는 그 처녀를 알게 되던 5년전 그날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부소장(그때는 분연구소 부소장이였다.)은 한 처녀와 함께 바삐 따라오며 지금 막 정문을 나서고있는 나를 찾았다.

《영철동무, 구정마을로 간다지?》

나는 바삐 돌아서며 그렇노라고 대답했다.

부소장은 내가 그사이 속이 설기떡같이 궁곤 구정마을 석회암돌산들에도 풀과 나무들을 자래울 방도를 찾기 위해 도내 산림연구소들에는 물론 산림 경영소들까지 찾아다녔다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 한참 치하하고나서 뒤에 선 처녀를 가리켰다.

《이 동무하구 같이 좀 가줄수 없겠소?》

《아니 그건 뭇때문입니까?》

나는 그 처녀를 나의 조수로 붙이려는 심산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러 한길 뛰었다. 사실 연구사도 아닌 행정일군에게 처녀조수가 달린다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불편한 일이기때문이었다.

부소장은 나의 마음을 휘저어 놓기라도 하려는듯 두손을 마구 흔들어 대며 성급히 말했다.

《아, 동무를 따라 구정마을로 가는건 아니구... 그너머 마을로 출장을 가는데... 길동무나 좀 해달라는거지. 며칠전에 전문학교를 졸업하구 우리 본 연구소 부원으로 배치돼왔소.》

《아-》

그렇다면 질색할것도 없이 나는 서둘러 경계의 눈빛을 풀며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금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이거나 한듯 눈이 부시게 아름다왔는데 구태여 결합을 들춰내란다면 입귀가 너무 땃혀 오달져보이는것이였다. 그러나 오달지면 어떻고 야달지면 어떻단 말인가. 그저 한갓 길동무인데야...

나는 다시금 흥가분한 기분으로 돌아와 성큼성큼 걸었다. 열차에도 그렇게 올랐으며 구정역에도 그렇게 내렸다. 그러면서 길동무가 제대로 따라오는가 이따금씩 등뒤로 확인했을뿐이였다.

계절은 바야흐로 여름의 문어구에 들어서서 때여서 하늘중천에 뜬 해도 한결 짧은 혈기로 불타는듯 하였으며 푸른 비단옷으로 펼쳐입은 숲도 지금 막 좋은 계절을 만난 기쁨때문에 어쩔줄 몰라하는상 싶었다. 코가 저릴 정도로 질게 떠도는 숲향기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올라 노래라도 부를듯 하던 처녀가 불쑥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 혹시... 책임부원동진 무슨 장편소설을 구상하고있는게 아니세요?》

《영? 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요?》

나는 처녀쪽으로 급히 돌아서며 물었다.

웅달샘같은 처녀의 눈망울속에선 지금 나에 대한 불만이 모래 샘마냥 바글거리며 끓어오르고있었다.

《같이 오면서도 별로 말은 없구 내내 사색만 하시니 말이에요.》

《허, 허허... 판데 가는 동무라길래.》

내가 입을 벌리고 웃자 처녀는 드디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제꼈다고 확신하는지 밝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아이, 정말... 제가 가긴 어릴 간다구... 책임부원동지, 전 전문학교를 다닐 때부터 동지를 잘 알고있어요.》

《그렇소?!...》

놀라와 눈여겨보니 신비스러운 정도로 아름다운 처녀의 쌍겹진 눈에 나에 대한 존경심이 다래다래 어려있었다.

《신문에랑 오죽 크게 났다구요. 교향의 모든 산

들을 푸르게 하기 위해 행정사업의 그 바쁜 때에도 시간을 내여 늘 현지에 나와 사는 동지라구요. 소문엔 출장가방에 바뀐신을 운동화까지 넣고 다닌다더군요.》

《허허허... 그런 소문까지 났던가요?》

나는 싫지 않아 찢찢 소리내 웃었다.

《그래서 제 언젠가... 우리 학급동무들한테 뭐겠는지 아세요?... 그 동지가 훌륭한건- 당의 뜻에 생각만이 아니라 몸도 아낌없이 따라세우는것이다. ...》

《?》

나는 끊임없는 치하의 보라속에서도 이런 찬사는 처음 들어 보는것이여서 얼마간 놀라기까지 했다.

《그 얘긴 사실 우리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

나는 예상치 않았던 할머니가 화제에 오르는바람에 다소 얼터름해졌다. 그러나 처녀는 더욱 진지한 낮빛을 지어보이며 뒤말을 잇대여나가는것이였다.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저에게... <당에서 하라는 애국은 생각이나 말로가 아니라 땀으로 할 일이야, 땀으로. 요즘 우리 탄광어른들처럼 마을의 모든 산들을 푸르게 하자는 소리를 몇십년째 외우기만 해서야 무슨 애국을 한단 말이나. 그런 말박사들은 아무리 많아두 밭 한가운데 세워놓은 허수아비 하나만 못해.> 라고 하군 하셨어요.》

《하-》

나는 할머니의 말이 걸작이여서 다시금 소리내여 웃었다. 은희도 내가 웃으니 기쁜듯 흰 이를 드러내고 깔깔거렸다.

한순간 이 숲속엔 취할듯이 흐르는 향기와 햇빛 그리고 우리 두사람의 웃음소리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였다.

잠시후 은희는 정색하며 계속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에두 그 말씀을 또 외우셨어요. -진짜 애국자가 되고싶거든랑 당에서 의도하는 일에 땀부터 바칠 결심을 해라. 그래야 말공 부쟁이가 안돼-》

처녀의 눈에 맑은것이 번쩍하자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 눈앞에도 뿌연것이 어려왔기때문이었다.

3

아홉개 우물을 파도 물이 안나왔다고 해서 구정이라고 부른다는 그 마을은 산들이 사방으로 둘러막힌곳에 들어앉아있었다. 어떻게나 비좁은 마을인지 누구를 소리쳐 찾는다면 싱거울상싶었다.

산허리마다에는 탄을 캐고 내다버린 버럭더미들이 또 하나의 작은 산들처럼 솟아있었다.

나는 은희더러 어서 해 떨어지기전에 아일령을 넘으라고 이르고는 탄광후방부지배인을 만나기 위해 청사쪽으로 부지런히 걸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후방부지배인에게 석회암을 화학적방법으로 분해하여 흙으로 전변시킬수 있는 방도를 일일이 깨우쳐주고 속히 대책을 세울데 대한 애기도 했던만큼 자못 희망에 넘친 얼굴로 걸어갔다.

그러나 식료공장앞에서 만난 후방부지배인은 나를 보자 낯빛을 흐렸으며 매우 난감한 어조로 말했다.

《토론을 여러날 했습지요. 왜 안했겠소. 우리 고장 산들에 푸른 옷을 입혀주겠다는데. 그러나 한결같은 의견이... 그 방법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순간 나는 피할수 없는 판가리싸움에라도 나선듯 한날카로운 흥분을 느끼며 후방부지배인을 향해 웨쳐물었다.

《그럼 돈이 아까와 산은 언제까지나 벌거숭이로 놔 두겠다는겁니까? 도대체 몇번을 더 다녀야 자기 사는 고장을 잘 꾸러볼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무슨 욕을 해두 할 말 없수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외화까지 써야 한다니...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 급한건 나무심기가 아니라 탄생산이다나니...》

나는 이 고장을 위해 한번 신나게 일해보려던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는것을 분명히 의식하며 부엌에 신경질을 부렸다.

《인민성들이 없습니다. 향토애마저 희박한걸 보니 승리에 대한 신념들이 부족한것 같단 말입니다.》

《-》

나는 피하듯 떠나는 후방부지배인을 향해 한마디 더땀잔 소리를 하려 했다. 그러나 형언할수 없는 절망감이 웨칠 기운마저 깡그리 앗아가는바람에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말았다.

고개를 떨구고 발길이 어디 놓이는지도 모르면서 터벅터벅 걷는데 누군가 곁에서 부축하듯 하며 따라왔다.

은희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가 좀전에 나와 헤어졌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것은 얼마간 더 그렇게 걸은후였다.

《가만... 내 그만 제 생각만 하다니니... 그런데 왜 아직 안떠났소?》

《저 ... 실은 그렇게 아니라...》

은희는 얼마간 바재이더니 결심한듯 말했다.

《전 애당초 책임부원동지를 따라온 사람이예요.》

요.》

《뭐요? 나를?》

어떻게나 놀라왔던지 나의 물음소리는 그 무슨 웨침처럼 울렸다.

《그래요... 곁에 어떤 조수처녀도 두지 않는다지, 그런데 저의 고향일때문에 간다지. 그래 부소장동지와 짜구 광대포를 한번 쓴거예요.》

은희의 얼굴에서는 열정이 사뭇쳤다.

《허허허, 그런걸 난...》

나는 이 처녀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과 나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운 심정때문에 꺼져내렸던 기분이 얼마간 살아오름을 느꼈다.

어쩐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도 이 처녀를 달고 온것은 다행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로부터 몇분 안되어 너무 나 좋을대로만 생각했다는것을 깨닫고 쓰겨운 웃음을 짓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은희가 내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이런 말을 했을 때부터 시작된것이였다.

《사실... 요즘 어디든 외화가 그리 있겠어요.》

그래서 발전소건설장에서 군인건설자들은 신발을 등불로 태워가며 굴을 뚫고있구 고속도로건설장에선 마대전을 벌리고있는게 아니예요? 이보세요, 우리도 그들처럼 한번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해보는게 어때요? 이왕 나섰던김에 한번 보란듯이 해보잔 말이에요!》

《?》

아마도 그때 나의 얼굴엔 잠깐 놀란 표정이 어리였을것이나 은희는 못본듯 계속하는것이였다.

《제 보기엔 마음만 도사려먹으면...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분홍꽃아카시아림을 몇백정보 잘 조성할수 있을것 같은데... 풀판도 물론... 그러면 아마 염소기르기도 좋구 꿀생산에도 좋아 구정굴도 천지개벽이될거예요.》

《...》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것이 부족한 오늘이라는것은 모르지 않았으나. 그처럼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없었기때문이었다. 게다가 오늘 후방부지배인한테서 배신을 당하고보니 이 고장을 위해 뼈심을 바칠 생각이더는 불타오르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나 은희는 열정으로 빨강게 달아올라 계속했다.

《그래 오늘은 이쪽 산밭에서부터 저쪽까지 쪽 한 번 밟아봤으면 해요. 정말이지 전 지금 막 방도가 떠오를것 같은게... 호... 책임부원동지도 그렇지요. 네?》

나는 얼굴에 번져오는 뜨스한 홍조를 감수했다.

얼른 대답을 할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잠시후 나는 이 처녀의 들뜬 말에 벌써부터 불안을 느끼며 허둥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자신을 타이르면서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둘이보며 딴 방도를 찾아보잔 말이지요? 그럼시다. 그러나 좀 서둘러야 할것 같소. 일이 이렇게 된바엔 속히 직장으로 돌아가 과학발표회에도 참가하구... 예견했던 바다가 마을로도 마지막출장을 가야겠으니까... 어쨌든 이 저녁으루 무조건 떠나야 한단 말ियो.》

은희는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와 그는 한시간가까이 산을 뚫었다. 그러나 석회암돌덩이들우에 풀과 나무를 심어 자래울수 있는 방도는 쉬 떠오르지 않았다.

산허리에 올라섰을 때 저 멀리 지평선너머로 빨간 저녁해가 오늘은 제 할 일을 다 끝냈다는듯 얼굴을 숨기고있었다.

마을골안으로는 벌써 어둠이 저녁안개에 실려 스멀스멀 밀려들고있었다.

나는 이미 더 돌아볼 생각을 거두었으나 은희는 여전히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길로 먼 산발들까지 둘러보고있었다.

나는 잠시 톱날들마냥 늘어선 산발들을 둘러보다가 은희를 향해 말했다.

《아무리 사생결단의 각오를 품구 나선대두 온 산을 흠으로 덮을수야 없지 않소. 계다가 워낙 흠이 부족한 고장이지.》

《알겠어요. 제 저쪽만 얼른 좀...》 하며 은희가 버럭산쪽으로 기어이 가려 하자 나는 그앞에 손목시계를 쑥 내밀었다.

《차시간이 다 됐소.》

은희도 시간을 재촉하며 바삐 돌아가는 초침을 보자 마음이 촉급해나는듯 성급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제 달려가보구 내려갈테니 먼저...》

나는 가슴속에서 내 의사가 무시된 섭섭한 마음이 슬며시 머리를 드는것을 의식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눌러 참고 말없이 산밑으로 내려가버리는것으로써 그불만을 표시했다.

예견했던대로 우리는 그 저녁에 차를 놓칠수밖에 없었다. 은희는 안타까이 발을 구르며 이제 또 몇시차가 있느냐고 했다. 나는 뜨적뜨적 분격을 씹어가며 대답했다.

《50리쯤 걸어... 다음역으로... 가면 새벽차가 있소.》

은희는 아찔해하는 낮빛이였으나 나는 성큼 자리를 떴다.

웅이에 마디라고 이 밤엔 우뢰가 울고 무더기비

까지 쏟아져내렸다. 하늘이 불칼질을 해덜적에 내 가슴속에서도 번뜩이는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밤의 비도 왜선지 먹물이 되어 내리는것만 같았다.

4

이튿날 나는 출근하는 길로 부소장을 찾아가 구정탄광 일군들의 무관심과 그로 인한 나의 달라진 계획에 대하여, 오늘 오후 바다가마을쪽에 한번 다녀온후부턴 행정사업에 전념할 나의 결심에 대하여 루루이 력설한후 오늘은 그 누구도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데리고 가지 않다니? 그렇게 될가? 일단 달라붙으면 재가 될 때까지 라는 처녀인것 같은데?》

내가 대척않고 자리를 뜨자 부소장은 나를 붙잡을듯이 따라 나오며 소리쳤다.

《그 동문 자기가 동무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고있단 말일세.》

나는 불쑥 우리들사이에 벌써 이처럼 신중한 의의를 로골적으로 부여하고있는 은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느끼었다.

아무쪼록 더 만나지 않기로 작정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 오후 참말로 그 처녀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결심으로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연구소를 나와 역으로 나갔다.

섭섭해할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심정이 느껴졌다. 그러나 하루를 놓고 뒀을 더 생각해준단 말인가. 게다가 간밤의 일이 다시 생길가봐 두려운데야.

그러나 역홈으로 들어서서는 순간, 먼저 나와 렬차승강대결에서 반가운듯 빙긋 웃는 그 처녀를 다시 보게 될줄이야 내 어이 꿈엔들 상상했으랴.

나는 고슴도치굴에 빗들린 범새끼마냥 당황해하며 어쩔줄 몰라했다. 은희는 그 꼴이 우스웠던지 배를 그리 안고 깔깔거렸다.

나는 한순간 처녀의 저 맑고 순진한 웃음과 눈빛속에 나의 순결치 못한 마음이 비끼기라도 할가봐 은희를 때버리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속으로 비껴드는것을 의식했다. 나는 얼굴에 끼여 어지는 뜨스한것을 느끼며 사죄하듯 입을 열었다.

《참 안됐소... 그런데 어떻게 알구?...》

《부소장동지가 살짝 일러줬어요. 책임부원동지의 현지출장길도 오늘로써 마감인것 같은데 배우려거든 체면볼것없이 선제공격으루 넘어가라구요... 어찌겠어요? 함께 가야지요? 만약 때버리겠다고 하면 전 여기서 진짜... 씹절테예요.》

《아, 됐소, 됐소. 오늘 아무리 고생한들 간밤같이야 하겠소. 간밤은 정말 좀 급했됐소.》

《호, 호호...》

이날의 출장길도 전날처럼 처음엔 즐거움으로 마냥 파도치는듯 하였다. 그러나 그 고장에서 할 일이 생기면 대적적문제까지 논의된후 떠나올무렵에는 다시금 어제 밤보다 더 놀라운 일이 터져오르고야 마는것이였다.

이 고장엔 다른 마을과 달리 옷나무들이 많이 자라고있었는데 그것들은 걸핏하면 알레르기성체질의 사람들의 피부에 불성사나운 병을 일으키곤 했다. 얼마전엔 한 어린애를 중태에 빠뜨리는 소동이 있어 당장 다 잘라버리려 한다는 소식이 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헛참, 나무를 자르다니... 게다가 약재와 고급칠감을 생산하는 나무를...)

나는 서둘러 송수화기를 들고 내 곧 내려갈테니 나무들을 그냥 놔두라고 얘기했었다...

나는 농장의 한 일군을 옷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나무를 함부로 없애선 안된다고 타일러 준후 울타리를 잘 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허, 나무울타리를 쳐야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하며 농장일군이 그저 없애치우는게 상수라는 낯빛으로 바라보자 나는 화내듯 말했다.

《그럼 마을에서 먼 곳으로 떠돌기십시오. 절대로 잘라버리진 못합니다.》

농장일군은 대답없이 서있었는데 그 낯빛에서는 어디 그럴 로력이 있는가. 하는 소리가 말에서보다 더 힘차게 울려나오고있었다.

내가 더 세차게 다블러델 차비로 농장일군에게 다가서는데 문득 뒤쪽에 서있던 은희가 나의 팔소매를 당기며 한쪽으로 끌고 갔다.

《농사일에 바쁜 사람을 두구 우리 일반 일이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저... 도올바엔 크게 도우했는데 우리가 아예 마을에서 먼데루 떠돌게주다가면 어떨가요? 한 서너시간! 불이 번쩍 나게! 옷을 안타지요?》

나는 은희한테 간밤의 열정이 또 되살아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잃지 말아야 할 자신의 처지를 상기하며 부러 현결스럽게 옷을 안타노라고 대답했다.

좀 후에 은희는 마을로 달려가 칼날처럼 번들거리는 샅들과 함께 몇명의 가정부인들까지 달고 돌아왔다. 그러나 일은 그가 줄잡았던 시간내로 도저히 끝낼수가 없었다. 옷나무들을 뜨는데만도 종이상시시간이 걸렸기때문이었다. 게다가 나는 그 육실한놈의 나무들을 건드린지 한시간도 못되어 온몸이 불개미떼에 휩싸이기라도 한듯 참을수 없게 가려워

나기 시작하는것이어서 통 제대로 일을 할수가 없었다. 옷이 올랐구나하는 생각이 여러차례 심장을 채찍마냥 후려했으나 나는 다시금 점잖은체 할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열심히 샅질만 했다.

너무 말없는 내가 이상스러웠던지 은희가 내 귀 밑으로 얼굴을 들여밀었다.

《왜 그리 우황품은 황소처럼 씨근거리세요?》

나는 지금 한창 일하고있는 사람이 해해거리겠는가고 얼굴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은희는 잠시 웃는 기색이더니 다시금 속삭이기나 할때처럼 내 귀가에 대고 소곤거리었다.

《저... 오늘로 현지출장을 단념하는건... 평양으로 소환이 예견되기때문이라는게 사실이에요?》

순간 나의 눈길은 그의 얼굴로 활촉같이 날았다. 내마음을 투시해보는것 같은 처녀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이이상 더 분격을 공기총마냥 다져갈수만 없다고 단정했다.

《부소장동지가 그러니까?》

나는 내 말에서 풍기는 싸늘한 랭기에 가볍게 전를하며 계속했다.

《그랬을테지. 그래, 구정사람들도 반가워하지 않고 해서 인젠 론문이나 좀 생각하면서 오라면 가하는데... 여기에 뭐 잘못된거라도 있소?》

나는 가슴속에서 어떻게나 폭풍같은것이 일어번지던지 참기 어렵던 가렴증마저 다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부지중 나는 분한 생각이 흉벽을 쿵 치받는것을 느끼며 따지듯 물었다.

《도대체 뭇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가 말이요?》

《아이, 성내지 마세요... 어쩐지 결승전은 아직 먼데 물려있는 감, 후련을 마저 부르지 않고 노래를 끝내는것 같은 심정... 그런게 있지 않아요? 네? 정녕 그런게 책임부원동진 느껴지지 않는단 말인가요?》

《...》

가슴속에선 여전히 격랑같은것이 일어번졌으나 나는 왜선지 갑자기 혀끝이 굳어져와 변변한 말한마디 제대로 뱉어낼수가 없었다.

피로왔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존심이 어떻게까지 상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러나 은희는 나의 고통은 표출만큼도 알은체 않고 계속 말하는것이였다.

《소환도 되구 론문도 써야지요. 남자는 명예가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한테 더 바쁜거야 그것보다 고향땅의 흙집을 고쳐냈다는게 아닐가요? 남의 고향보다 못한

내 고향의 모습앞에서 가슴들을 치며 어깨를 내대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싫어두 제 전날 한 애길 한번만이라도 상기해줬으면 하는거예요.

-우리 진정 애국자로 살려면 당이 의도하는데까지 육신부터 따라세우자.-》

순간 내 눈앞에는 까닭없이 전날밤 먹물이 되어 내리는것 같던 비가 떠올랐으며 틀림없이 오늘의 불미스러운 결과를 암시하는것이였다는 생각이 뇌리를찔다.

(우리는 역시 지향을 같이 나눌만 한 사이가 아니였어. 섭섭은 해도 오늘로서 끝을 보게 된건 다행이랄밖에...)

은희는 나의 얼굴에서 이런 생각을 그대로 읽기라도 한듯 더욱 바투 다가들며 앞뒤를 꼭꼭 눌러놓는것 같은 어조로 말했다

《누구보다 향토애를 지니고 살아야 할 우리이기에 그 어떤 리론이나 론문보다 실천을 더 중시해야 한다구 전 생각해요. 사실 판데보다 못한 제 고향을 놓고 론문을 쓴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구, 발전을 한들 그게 무슨 온전한 발전이겠나요?》

자기 말이 그 어떤 결론이나 되는듯이 력설하는 은희의 태도는 드디어 상급으로서의 나의 궁지와 인간됨 존엄을 아주 문칠러놓고말았다.

《도...대...체... 동무가... 나를 얼마나 안다구 지금도 온몸에...오른 옷때문에 내 어떤 고통을 이겨내고있는줄 알기나 하길래...》

나는 말을 끝까지 이어낼수가 없었다. 은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기때문이었었다.

《아니 일없다더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 마디마디에서 울분이 설설 끓는 어조로 대답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러지 말아야 할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너무 완성된체 하는거요. 그건 자신뿐만아니라 상대방도 진실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요.》

나는 은희가 또 뭐라 주장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더엄하게 그루를 박았다.

《그렇소. 동무역시 이 땅에선 필요가 없는 말박사요. 자신부터육신을 끌어올리구서 남한테 이래라저래라 훈시를 하란 말이요!》

은희는 절망적이라는듯 어깨를 떨구었다.

론쟁이 격려했던만큼 우리 사이에 드리운 정적도 아주 싸늘했다. 아니 그 침묵은 그냥 말하고있는 침묵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열흘나마 집에 박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간 연구소에서 병문안을 왔고 동무들이 여러차

례 다녀갔다. 은희는 죄스러워선지 저녁에 달빛처럼 조용히 찾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손엔 약으로 쓸 답이 들려있곤 했다.

나는 진실로 피로운 심정에 싸여 내가 다 나아서 출근할 때까지만이라도 가만 좀 놔둘수 없겠느냐고 간청했다. 나는 은희가 무안해할줄 알았는데 기다린듯 이러는 바람에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아이, 그러지 않아두 량해를 구하려던차였어요. 래일부터 며칠간 성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말이에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성에는 왜 가느냐고 물었다. 은희는 주저주저하더니 그저 불일이 좀 있어 그런다면서 대답을 피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가 당분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것만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부터 나는 마음 편히 론문집필을 할수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일감을 퍼놓았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은희의 초롱초롱한 눈길이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있는것만 같아 도저히 문장하나 제대로 이어갈수가 없었다. 은희가 어느결에 벌써 내 몸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던가싶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나는 다음날부터 자료로나 남길 글을 하나 써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속에 펜을 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럭저럭 치료며 집필까지 끝내고 직장으로 나오니 그사이 우리 분연구소에는 달라진것이 너무도 많은듯했다. 우리 분연구소가 모기로 옮겨가며 부소장과 나는 산림과학원으로 옮기도록 조동지시가 내려와있었던것이다.

소환이 아니여서 다소 섭섭했지만 구름길에라도 오른듯 한 기쁨만은 금할수가 없었다. 더우기 부소장과 같이 떠나니 떳떳했다. 환희의 선풍이 가슴을 흔들고 지나간뒤 그래도 제일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은희였다.

(그 동문 아마 모기로 옮겨가게지.)

섭섭한 생각이 들어 이동준비로 봄비는 사람들속을 은근히 눈주어 살피였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성에 올라간다더니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는가싶어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그는 이미 평양에 다녀온지 며칠되며 지금은 구정산림경영소 부원으로 배치를 받고 그곳에 인사를 하러 갔다고 했다.

(고향으로 갔군. 조동시켜주지 않아 섭섭했던 모양인가? 훗아, 성에도 그래서 올라갔겠을거야.)

못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위로라도 한마디 해줄가하여 구정경영소에 전화를 거니 그는 벌써 일을 시작했으며 요즘은 산에 올라 아주 산다고 했다. 나

는 한순간 내 품에 절로 찾아들었던 종달새가 다시 절로 날아가버린듯 한 허전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내가 너무했던 모양이군. 하긴 말을 좀 한다고 말박사라고까지 했으니... 무슨 새나 꽃에라도 비해 줄걸... 콧속 쓰기 잘하니 들장미가 어울리는걸 그 만... 이제 모든걸 다시 시작할수만 있다면... 아, 후회란 역시 뒤에 오는것인가?)

평양으로 가는 열차칸에서 부소장이 갑자기 생각 난듯 품속에서 은희가 남기고 간 편지라면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여 내밀적에 나는 드디어 영원히 가 버린 한 녀동무의 존재를 실감했다.

이윽고 나는 은희의 오달진 성미가 그대로 내려 앉은것만 같은 편지를 퍼들었다.

《축하합니다. 중앙연구소로 간다니 정말 기쁘 니다. 저때문에 그간 고생한걸 생각하면 어떻게 사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 고향을 다른 고향 못지 않게 꾸리고싶은 생각이 앞서 그만 덜통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별인사겸 한마디만 더하려고 합니다.

영철동지, 참말이지 동지가 훌륭했던건... 애오라 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안고 자기 한몸을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아낌없이 고여오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참말로... 우리 인민모두에게 유족한 생활과 무릉도원을 안겨주시려고 쫓겨와 폭압으로 이어가시며 조국사랑의 길을 끝없이 가시고 또 가시는 우리 장군님과 보폭도 숨결도 사색도 같이 하려는 선군시대 열혈충신의 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다시 그 모습을 되찾아주세요.

말이 또 길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린 그간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실천이라는 한쪽 생활이 너무 크게 남았어요. 점령하지 못한 그 큰 생활, 생각만이 가닿은 그 끝점, 이제 우리는 거기에까지 속히 행동도 가당게 해야 할 의무밖에 없다고 전 주장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삶이 빛나 지 않고, 우리조국이 자라지 못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은희 썼습니다.》

나는 잠시 그 편지가 주는 모욕감과 아픔을 안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가슴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찔렀던 서운하던 심정은 어느새 바람에 불린 락엽처럼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어제날의 현지출장길에서 체험했던 격렬한 노여움만이 다시금 일어받지 기 시작하는것이 뚜렷이 알렸다.

(중앙으로 가는 사람앞에서두 혼시로군.)

《왜? 섭섭한 소릴 한 모양인가?》

부소장이 묻는 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나며 그렇게 아니라고 당황해했다. 부소장은 다 안다는

듯 빙그레 웃어보이며 계속했다.

《쉽지 않은 처녀라는것만은 알아두라구. 그 동문 이번에 우리와 같이 조동되게 돼있어.》

《?!》

나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거지. 본인이 성에까지 올라가 꼭 남게 해달라구 떼를 썼어.》

《!...》

나는 커다란 복채로 가슴을 치는듯 한 충격을 안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나는 불쑥 은희가 내가 알았던 녀성들중에 가장 훌륭한 처녀라는 생각이 뇌리속으로 번개처럼 비껴 드는것을 의식했다. 그러나 어찌랴. 인젠 다시 만나 기조차 어려운 사이가 돼버렸으니...

다시금 숨통치 같은 공허가 느껴졌다.

나는 그후 한동안 그와 더 가까워지지 못했던것을 후회하면서도 한편 그것을 다행으로도 생각하는 미묘한 기분속에서 살았다. 사실 더 가까워졌다면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것인가.

이런데다 세월이 화살처럼 한해를 누비고 두해를 누비니 어느덧 은희에 대한 기억은 점점 해묵은 사진마냥 희미해져버리고 마는것이였다.

아마 재작년 어느날엔가 구정탄광에 석탄을 실러 갔던 우리 과학원운전수가 나를 찾아와 요즘 탄광에선 탄배정원 일을 산림경영소 라은희라는 부원에게 맡기다싶이 했는데 그 리유는 지금 석회암바위 들우에 절구확같이 수없이 파놓은 구멍이들마다에 채워넣을 흙을 얻기 위한것이라는것, 처녀는 흙을 끌어올릴 삭도까지 놓고 흙을 싣고 오지 않는 차에는 절대로 탄을 반출하지 않는데 특히 우리 과학원들에 대한 요구성은 더 높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은희는 다시 내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았을런 지도 몰랐을것이였다.

(관을 벌린 모양인데... 탄광지배인이나 부지배인이면 몰라도 한갓 경영소 부원 그것도 처녀의 몸으루 그 거창한 일을 해낼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로군.)

나는 그가 고생할것을 생각하니 어제날 그 고향의 흙집을 놓고 문제를 세웠던 자신이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그 다음엔 조개가 벌렸던 입을 다시 다물듯 그에 대한 추억의 문은 쉬 닫기고 마는것이였다.

그후부터 은희가 내 눈앞에 다시 떠오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5년세월이 흐른 오늘 그 처녀는 우린 서로 그렇게 쉬 잇을 사이가 아니란듯 된주먹부터 안 기며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것이였다.

5

나는 부소장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부소장이 나의 방으로 전화를 걸어왔을적에야 나는 그의 말을 채 다 듣지 않고 나와 버렸다는 생각이났다.

《거 썩습해만 말구 한때 동무가 다니던 현지들에게서 어떤 전변이 일어났는지 한번 가보고 오는게 좋겠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희에 대한 원망만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도대체 일을 했으면 얼마나 큰일을 했다고 룡가 재미에서 알을 뽑아내듯 남의 소중한 창조물까지 문서고에서 축출하자고 든단 말인가. 내가 그사이 자기가 것처럼 고생하는데 관심이 덜했다고 화풀이를 하는건가?

설혹 그렇다 한들 이거야 너무하지 않은가?...

부소장은 이런 생각을 더듬고있는 나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기라도 한듯 저으기 안타까움이 어린 어조로 계속했다.

《어쩌면 그리도 짐작을 못하오? 은희동문 그사이 동무가 진단만 내리고 온 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룩해 놓은것 같단 말이요!》

나는 심장의 박동이 멎는듯 한 충격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놀라운 일이라니? 그럼 그 구정땅에 전변을? 믿을수 없는걸. 그한테 무슨 용빼는수가 있다가?...)

끝나면 방아를 더 잘 찧는다고 나는 그 길로 출장수속을 해가지고 구정마을을 향해 렬차에 올랐다.

레루의 이음짬들을 타고넘을 때마다 쿵쿵 울리는 차바퀴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제가 뭐길래,》 《제가 뭐길래.》 하 고 끝없이 웨쳐대는것만 같았다.

나는 어떻게나 은희에 대한 섭섭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렬차가 구정마을이 멀지 않은곳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곁에 누가 앉았는지, 그들이 무슨 말들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렬차원이 앞으로 다가오며 지금 렬차는 구정탄광에서 탄을 싣고 오는 렬차와 어겨야 하므로 한 20분간정차하게 된다고 청높은 목소리로 알렸을적에야 주위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처년 요즘 이 마을로 옮겨왔다는거겠소?》

누군가 차창밖을 내다보며 이러자 내앞에 앉았던 손님이 그쪽에 눈을 주며 응수했다.

《그렇지요, 불품없는 잠관목들만 자라던 저 산에

썰광이 나무들을 심는답니다.》

또 다른 객이 흥이 나 꺼들었다.

《수림화 겸 마을사람들의 심장도 보호하기 위해 썰광이산까지 꾸린다니 이거야말로 사회주의락원이 아니겠소.》

귀익은 옛 생활의 메아리가 분명히 심장을 두들기고있는것이어서 나는 짜릿한 향수를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 여기도 내가 밟았던 고장?)

홀연 풀리려던 추억의 실꾸리를 희열에 넘친 한 객의 말이 중단시켰다.

《가만, 거 혹시... 구정탄광마을의 산들도 멋들어지게 꾸려놓았다는 산림경영소 그 처녀가 이곳에도 온게 아니요?》

《웁습니다. 오늘 저 <썰광이산> 꾸리기만 끝내면... 이 주변 모든곳이 다 지상락원으로 된다는군요.》

(아, 은희에 대한 얘기다!)

격랑같은것이 흥벽을 세차게 내쳤다.

《평양으로 가게 된것두 싫다 하구 스스로 내려와 5년이나 굶은 일감들을 걸머졌다니!...》

《처녀의 몸으루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소중한 시절을 다 바친셈이지요.》

은희에 대한 객들의 말은 한없이 친근했으나 나의 귀전에는 천하를 꾸짖는 퇴성처럼 울렸다.

종전부터 내릴 차비를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한 점잖아 보이는 손님이 희소식을 알리게되는 기쁨때문에 환한 낮빛을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끼여 들었다.

《그처럼 훌륭한 동무이길래 어버이장군님을 뵈옵는 영광까지 지녔지요.》

《아니?》

《장군님을?》

《그 처녀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어제 저녁에 바로 저 <썰광이산> 에서 만나 뵈웠습니다.》 하고 그 손님은 자기는 이곳 군산림경영소 소장이라 했다. 나와 객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하나의 격동으로 끓어올랐다. 나는 내 한생에서 다시없을 뼈아픈 후회의 시각이 몸가까이로 다가오기 시작하는것을 분명히 의식하며 물었다.

《사실입니까?》

소장은 자기손을 불들고 떨기까지 하는 나를 잠시 이상스런 눈길로 바라보더니 계속했다.

《여러날에 걸쳐 최전선에 계시다가 평양으로 돌아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도의 막바지인 구정탄광마을걸로 지나시다가 그 고장에 펼쳐진

희한한 풍경을 보이자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한참이나 그곳 산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더니 <멋있소. 한쪽의 그림 같구만.

꼭 떼서 가져가고싶을 정도요. 구정이라면 척박하기로 소문난 고장인데 누가 이렇게 꾸렸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곳 지대를 잘 아는 한 일꾼이 나서며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 물론 탄광사람들이 모두 떨쳐나 수고를 했지만 그 앞장에는 이곳 산림경영소 부원 라은희라는 처녀가 서있었습니다. 그 동문중앙으로의 소환두 마다하구 이 땅에 내려와 청춘시절을 다 바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척 놀라시더니 그런 처녀가 있었는데, 어서 그 부원처녀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탄광당비서가 그 처녀 몇달전에 이웃마을도 본때나게 꾸리겠다고 옮겨갔다는 말씀을 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이웃마을이면 멀지 않겠구만, 우리 아무리 바빠도 그 동물 찾아가 만나보고 갑시다.>…》

소장은 솟구쳐 오르는 걱정을 누를수 없는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은희동무를 소문없이 큰일을 한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어떻게 되어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물으시었습니다. 은희동무는 장군님께 …자기에게 늘 힘을 주던 할머니에 대하여, 몇년동안 이 고장을 메주밟듯 다니며 이곳 산들을 연구한 김영철책임부원에 대해서 다 말씀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부원이 시대적결합들을 알아내구 그 결합들을 고쳐내겠다고 것처럼 아글타글했기에 자기가 오늘과 같은 일을 할수 있었다고, 자기 사는 고장을 잘 꾸리고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데 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비하면 자기가 한 일이 너무도 적다고, 이 고장의 모든 산들을 다 장군님의 의도대로 꾸리자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희동무의 말을 다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은희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로 오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동무입니까, 고향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니… 정말 이 동무는 당의 뜻을 자기의 신념과 의지로 새기고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려는 오직 하나의 생각속에 살아온 마음이 보석같은 우리 당의 순결의 동지입니다, 참으로 동지도 고향도 사랑할줄 아는 동무입니다, 나는 이런 동무들을 만나는 기쁨때문에 쉽없이 인민군부대를 찾아가고

인민들을 찾아잡니다, 정말 생활의 굶인들이마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소원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이런 크고 작은 기적을 만나는 행복때문에 혁명을 하며 사는게 아니란 말입니까…》

소장은 하고싶은 말은 많고많지만 갈 길이 바빠야만하겠다고 하고는 열차에서 서둘러 내렸다.

나는 한동안 크나큰 걱정애 싸여 멍하니 앉아있었다.

아, 그는 끝내 해내고야 말았구나.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자기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은희… 그를 한시바삐 만나고싶었다. 만나서 그를 못미더워하고 오해도 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싶었다.

헐거워졌던 열차 런결부위들이 헤당겨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어서 그 소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떠밀리며 내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는 이미 속력을 내고있어 나는 승강대에서 뒤로 멀어져가는 소장을 향해 웨칠수밖에 없었다.

《그 동물 만나면…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인사들전…》

기적소리가 내 말허리를 끊어버리고 눈을 크게 뜨고 섰던 소장의 모습도 사라져 버리자 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아쉬움을 안고 산중턱으로 눈길을 옮기던 나는 흠지계를 지고 이쪽을 돌아보는 은희의 모습이 눈에 띄우자 돌처럼 굳어졌다.

처녀는 지나가는 차가 반가와 선지 아니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라도 보았는지 방긋 웃어 보이며 가볍게 손을 짓고있었다. 처녀의 그 동작에도 이룰수 없는 행복이 실려있는듯 하였다.

혹시 나를 알아본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심장은 천길 락차를 가진 폭포마냥 쿵쿵 소리를 냈다.

은희는 여전히 지나가는 열차안에 큰 기쁨을 실어보내고싶어 견딜수 없는듯 정다운 웃음을 함뱉 짓고 서있었다.

이윽고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중충한 신발들만이 눈앞으로 흘러갔다.

나는 어떤 힘엔가 이끌리며 맨뒤 열차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별이 내려앉아 가닥가닥 기쁨에 뛰고있는 두 줄기 궤도가 그리고 그결 철쭉에 은희의 마음인듯 무더기로 피어나 꼭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화염덩어리처럼 보이는 빨간 들장미덤불이 보일뿐이었다.

6

나는 어떻게 구정역에 내려 마을로 달려갔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분홍색구름을 온몸에 휘감고 신비스런 모습으로 서있는 산발들을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며 바삐 걸음을 휘몰아갔을뿐이었다.

정녕 나의 싸늘한 발자국이 어려있는 저 골안에 우리 장군님을 그처럼 기쁘게 해드린 기적과 같은 변혁이 펼쳐져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그 전변의 모습을 상상해낼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후 산발들마다 휘감고있는 분홍빛 너울이 실은 구름이 아니고 만첩으로 핀 분홍꽃아카시아 화원이었다는 생각이 뇌리를 치자 나는 그만 그 자리에 돌미륵처럼 굳어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아, 저 돌산에 어떻게 저 많은 분홍꽃아카시아를 심었을까? 돌틈에서도 잘 자라는 아카시아라지만 그저 돌을 뿌지고 심지만 않았을것이었다.

확을 파고 거기에 흙을 일일이 날라다 붓지 않고 서는 절대로 저렇게 싱싱하게 자라지 못할것이었다.

더우기 산허리에 보기 흉하게 솟아있던 버럭산들을 헐어 평평하게 만들고 흙을 날라다 다져 조성한 풀밭들이 보이는 순간 나는 목구멍을 메우며 덩이 저울라오는 뜨거운 심정을 이겨낼수가 없었다.

풀판들은 규격화되어있어 꼭 푸른주단들을 퍼놓은듯한데 거기서는 실하게 자란 온갖 풀들이 이마를 맞대고 지금 한창 자기들에게 생을 안겨주느라고 갓은 고초를 다 겪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들 소곤소곤 나누고있는것같이 생각되었다.

그우로 염소들이 구름처럼 밀려다니며 대를 두고 불려오면서도 싫증을 모르는 그 두음뿐인 《매에-》 노래를 오늘도 불려대였으며 끝벌들은 그 노래가 너무 단조로와 반주라도 좀 해줘야겠다는듯 분홍꽃아카시아나무들사이를 날아다니며 《붕- 붕-》 날개 풍금들을 탔다.

저기 산쪽에 바짝 붙어지는 온실들과 젓가공실들도 이 고장의 대변혁의 화폭을 위해서는 하나도 없어서안될 존재들인듯 했다.

어떤 승엄한 심정에 휩싸여 발걸음을 옮기던 나는 한쪽에 《...한차 두차 싣고 온 흙, 살점처럼 귀하게 여기며...》 라고 써여있는 속보판이 눈에 띄우는 순간 전기에라도 닿은듯 우루루 몸을 떨며 굳어졌다. 거기에는 그의 말로 할수 없는 고생이, 불길은 향토애가, 조국에 바친 청춘이 그대로 다 응축되어있는것 같이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그의 이런 아름다운 심정과 건인불발의 의지도 모르고 한몸에 닥칠 수고만을 걱정하며 켄렁켄렁 살던 자신이 돌이켜지자 나는 그만 이 자리에 었

리며 통곡을 하고싶은 심정을 이겨낼수가 없었다. 고향땅의 흙집을 자기몸에 생긴 상처처럼 아프게 여기며 허구한 날 오로지 나서자란 고장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온 처녀 그에 비하면 나라와 인민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어쩌면 이리도 가랑잎처럼 가볍단말인가. 이런 사람이 설사 어제 저녁 그 곁에 있었다한들 위대한 장군님앞에 나설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였을것인가?

나는 이에 대한 대답이 어쩐지 여기 어느곳에나 다 한자한자 써여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눈길을 들고 사위를 휘 둘러보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놀랍게도 그 대답을 어느 구호나 속보판에서가 아니라 지금 몰라보게 변모된 여기 산천에서 읽을수 있었다.

승리자마냥 거연히 솟아 굽어보는 이곳 산발들마다에서는 은희가 자주 외우던 《리유야 뻔하지요. 동무는...애국자라는 이름은 자기 한몸뿐만아니라 한생마저 아낌없이 조국에 바쳐야 얻게 되는것이라는 단순한 리치를 몰랐어요.

그 리치만이 장군님 보폭결에 우리의 걸음도 따라서게 한답니다.》 하던 호소가 말에서보다 더 힘차게 울려나오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때 나의 걸음을 그처럼 달게 받아주던 이 고장 모든 산천이 나를 향해 《하던 일을 중도에서 췌버린 놈!》 하고 입모아 꾸짖는 소리도 명백히 들었다.

문득 먼 산발너머에서 렬차소리가 들려오는것은 다행이 아닐수가 없었다.

나는 급한듯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며 급히 자리를 떴다.

은희를 만나지 못한것이 한견으로는 섭섭하기도 했고 또 다행스럽게도 생각되었다.

은희... 그는 정녕 제나서 자란 고장을 비길데 없는 아름다움과 향기로 한껏 채우며 피여오른 한송이 들장미와 같은 처녀였다. 정녕 그는 불가능을 모르는 삶을 낳는 리치를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깨우쳐준 선군화원에 핀 아름다운 한떨기 꽃이었다.

부지중 은희의 좌우명이 드디어 나의것으로도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텅기는 사랑의 불꽃을 분명히 느끼였으며 삽시에 온몸을 휩쓰는 그리움도 절감했다.

불현듯 그와 함께 있던 어제날들이 그리고 심장을 따듯이 감싸주는것 같던 그의 미소가 가슴아프도록 그리워났다.

아, 나는 왜 그처럼 살지 못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자기의 신념과 의지로 새기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지 못했던가.

그래 이제라도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 길에서만 이 우리는 다시 만날수가있어. 땀땀하게, 웃음속에, 기쁨속에...

나는 흠으로 렬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으나 서둘지 않고 스택스적 걸었다. 그냥 이렇게 명상에 잠겨 차를 놓치고서 언젠가처럼 먼 역으로 걸어가 고싶고 먹물처럼 느껴지던 비도 맞고싶었다.

누군가 역쪽에서 왜 빨리 오지 않고 어물거리는 가고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를 아는 사람도 불러줄 사람도 없기에 그것이 나를 찾는 소리일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대중으로 여드레 팔십리걸음만 했다.

더 크게 찾는 소리가 들리고 그에 합세하듯 짚은 호각소리가 들려올적에야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나는 저쪽 렬차승강대결에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으로 서있는 정다운 나의 너동무를 분명히 알아보았다.

아마도 군산림경영소 소장이 내가 웨치는 소리를

그대로 알아듣고 그에게 전한 모양이었다.

별에 타고 일에 지쳐 불이 펴 수척해 보였으나 그는 여전히 금시 봉오리를 터치고 피어난 들장미 마냥 아름답고 청신했다. 더우기 눈동자는 이 산골 풍경이 통채로 다 비길만치 깊고 맑아보였다.

이 순간에도 어제날처럼 아무런 변함이 없이 나를 찾아준 그 티없이 순결한 마음이 너무도 고결하게 안겨와 나는 그를 제대로 바라볼수가 없었다.

그러나 은희는 나의 눈길을 한사코 붙들려 하며 웃었다. 눈물이 있는 웃음이었다. 나 역시 그의 모습이 별안간 뿌연게 멀어져 보이는것을 느끼며 웃었다.

차는 떠났으나 우리는 잠시 더 그 모양으로 서있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 그날밤처럼 걸어갈것이었다. 그러나 서쪽 렬마루우에 붉은 저녁노을이 불타고있는것으로 보아 이 밤엔 그때처럼 먹물같은 비를 맞지 않아도 될것 같았다.

민요

민요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인민들이 자신의 로동과 생활속에서 체험한 사상감정을 반영하여 창작한 노래로서 혁신과 내용에 민족적특성이 풍부하게 담긴 인민적인 노래이다.

우리 나라 민요는 해당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예술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서도지방민요, 중부지방민요, 남도지방민요, 동해안지방민요, 북부지방민요들로 나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서도지방민요와 남도지방민요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민요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서도민요는 예술적정서와 선률적구성이 매우 우수하며 밝고 류창한 선률, 경쾌한 리듬이 특징적이며 민족적정서가 풍부하여 사람들이 리해하고 부르기도 쉬운 노래이다. 우리 나라 서북부지방에서 불리워온 서도민요에는 《룡강기나리》, 《룡강타령》, 《양산도》, 《연파만리》, 《장산꽃타령》 등 농업로동과 어로로동생활을 반영한 로동민요들과 사람들의 세태풍속생활을 반영한 서정민요들이 많다.

우리 나라 중부이남지방에서 불리워 온 남도민요에는 지방적특성이 살아나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인 생활감정을 반영한 노래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썩소리로 부르는 고티나는 판소리풍의 민요나 시조풍의 민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것으로 하여 알려지지 않고있다.

우리 창작가들은 민족음악을 서도민요를 표준으로 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서도민요들이 가지는 우수한 특징들을 살리면서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음악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한 좋은 실례로는 《룡강타령》의 음조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관현악과 합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들수 있다.

우리는 민요의 우수한 특징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 우리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선군 조선

존 폴 커프

1. 결사전의 서곡

조선 만세!
자유 만세!
이라크의 피맺힌 교훈을
평양은 잊지 않고있으며
우리모두 눈길모아 평양을 주시하네
조선 만세!

2. 위대한 사상

위대한 사상은
엎어매지 못하네
원자탄도 이기네
위대한 사상은
대중을 각성시켜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네

3. 총대를 앞세우고

정의의 투쟁에서
양보를 모르시는
불굴의 투사 **김정일**원수
그이는
군대를 앞세우고
국민의 일심단결 이룩하셨네
새로운 선군투쟁방식 창조하셨네

4. 시대의 향도성

김정일평도자
가장 엄혹한 시대를 선도하시는분
그이는 전무후무한 희세의 령장
그이는 인민대중의 희망과 꿈
김정일평도자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는분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시는분
인민은 충성다해 결사옹위하네
청년들 그이를 육탄되어 지키네
조선은 지주적인 나라

김정일원수
그이는 자주정치의 화신
우리 존엄의 상징

우리 운명의 향도성
그이앞에 악마 부쉬 쫓쫓 매네
선군위력앞에 기절초풍하네

5. 미제에게 주는 경고

서방을 중시한다면
알라
조선은 이라크가 아니라는것을
자국의 아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명심하라
조선은 이라크가 아니라는것을

6. 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은 하나다
북남이 떨어져나 미제를 몰아내라
미군은 인두겁을 쓴 승냥이, 인간쓰레기
무주고혼이 되지 않겠거든
조선에서 물러가라
병사들을 바다 건너 제집으로 보내라

7. 적과 테로

적들이 《반테로전》을 선포했네
하나 진정 테로를 없애려면
부쉬와 램스펠드부터 제거해야 하리
이것은 력사가 주는 교훈
김정일원수 가르치시여라
원칙을 양보하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고
김정일원수
그이는 새 세계를 안아오시네
오늘의 선군시대를

8. 미국은 인권유린자

파쑈는 지옥을 낳거니
그것은 사막이나 묘지와 같은 곳
마약중독자들 거리에 넘치고
로동자들 무리로 거지되는 곳
하나 자본가들 아랑곳 않네

보라
비참한 교역에 쓰러지는 인민들
불쌍한 품팔이군들을
미국 너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자

누가 너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느냐
경찰국가 미국
감옥엔 반인종주의 투사들 차넘치나니
미국- 너는 부인할수 있느냐
병마에 신음하는 인민들
집없이 방황하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누나
범람하는 헤로인과 코카인, 크리스탈 메스
이는 조선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미국의 실체

9. 반미대결전에서 단결하자

우리모두 조선을 지지하자
로동계급의 권리를 옹호하자
반미대결만이 세계의 자유를 보장하거니
결사적반미투쟁 힘차게 벌리자
아, 유럽의 인민들이여
세계각국의 인민들이여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려
성조기를 불사르자
적백청색의 가증스러운 악의 기발을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자!

10. 군사선행

선군은 승리의 길
선군후로는 최상의 국책
대포와 탱크
각성된 인민 나라를 지키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교수하네
선군과 주체
그것은 사상강자들의 손에 쥐여진 총탄
김정일원수는 가르치시여라
절대로 총을 놓지 말라
사상을 중시하라
이는 항일유격대원들 피의 교훈으로 새긴 진리

조선은 언제나 이를 지침으로 삼네
그이의 가르치심 끝까지 따르네
조선은 용감하게 단신으로 전진하네

세계는 조선을 축복하네
김정일
그이는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자
우리 그이를 존경하고 사랑하네

11. 선군련대성

선군련대성이 강화되고있네
조선과 련대성이 강화되고있네
선군의 우월성을 인식한 세계인사들
선군연구소조를 결성하네
우리는 조선과 일심동체
우리 선군정치 연구하네
선군정치 제일이다!

12. 다시 솟아오른 붉은 태양

김일성주석은 영생하시네
서거하신지 10년이 되었건만
그이
자신의 하느님인 인민들과 함께 계시네
오늘도 조선을 이끄시네

그이는 우리모두의 태양
그이 없으면 우리 갈길 잃고
의지가 지는 방랑아되리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그이와 함께 있으리

김일성주석은 영원한 주체의 태양
사람에 대해 정의의 내리신분
미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신분
일제를 징벌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지키신분

조선의 통일은 그이의 목표
조선은 6. 15선언아래
반드시 통일돼야 하리
오늘도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
그이는 자주성의 상징
우리 투쟁의 기치
련전련승속에
붉은기가 휘날린다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그분은 곧 **김일성**주석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조용한 골짜기

손광영

월봉역에서 내려 대동강지류를 따라 얼마쯤 올라가느라 하면 그 골짜기가 나진다. 유구한 세월의 흐름에 둥그래진 강자갈들이 쭉 깔린 그 골짜기의 입구에 잠깐 서서 주위를 둘러보느라 하면 아아한 련봉들을 날개처럼 펼치고 장쾌하게 굽이쳐 간 울창한 수림의 계곡이며 골짜기를 누비는 청신한 강바람에 마음이 무척 상쾌해짐을 느끼게 된다. 만일 봉이라면 강바람은 대기를 진동하는 진달래꽃향기를 날라올것이지만 무더운 여름이면 숲을 통채로 줄이는듯 진한 송진내며 싱그러운 이끼냄새를 그리고 가을이면 온갖 산열매의 무르녹는 냄새를 실어와 기분이 절로 동동 뜰것이다.

조용하다. 마치도 이 세상 한끝에 서있는것만 같다. 이따금 나무숲을 누비는 바람도 정적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골안의 정적에 시샘이 난듯 어디선가 딱따구리 한마리가 궁글은 나무통을 잣은가락으로 두들기며 기관총런발사격소리를 내지만 그것은 교요를 더욱 질게 하여줄뿐이다.

석양이 드러눕는 저녁이면 저기 산기슭을 굽이돈 소로길을 따라 이동방목하는 염소들이 길라잡이염소를 앞세우고 배부른 몸을 뚱기적거리며 게으르게 지나가지만 그 수백마리 염소들이 일제히 석비레땅을 밟는 발굽소리조차도 여기서는 도리어 정적을 강조해주시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골짜기가 조용한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가 아닌가.

허나 나에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갓 끝났던 1953년도 가을을 나는 이 골짜기에서 보냈었다. 약초들을 채집하여 부족되는 약품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내가 월봉기계공장 진료소장으로 와서 시작한 첫 사업이었다. 물론 나의 계획은 당위원장(당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기일이 촉박했다. 언제 추위가 닥쳐올지 모르는 늦가을이었다. 지배인은 나의 일이 걱정스러운듯 한참이나 생각해보더니 두사람을 데리고가는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로력이 긴장

한 때에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강변에서 넘죽한 돌들을 날라다가 구들을 놓고 천막을 쳤다. 우리는 이른아침에 약초채집도가 든 배낭을 메고 이슬을 차며 산으로 올라다가 어슬턱에야 계곡을 따라 숙영지로 돌아오곤 하였다.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약초채집작업은 보름도 못되어 전부 끝났다. 천궁이며 단너삼, 마가목, 오미자, 세신... 등 천막앞에 무저놓은 약초는 거의 한차분이나 되었다.

그 많은 량을 나르자면 공장에서 자동차를 보내주어야 하였다. 그런데 련락떡웠던 정식이라 부르는 청년이 그냥 돌아왔다. 전쟁통에 한대밖에 남지 않은 자동차가 소개하였던 중요설비를 실으려 장거리운행을 떠나고 당장 보내줄 차가 없다는것이였다.

지배인은 우리가 이곳에서 거둔 성과를 축하해주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표창휴가》를 받은셈치고 자동차가 도착할 때까지 며칠간 폭쉬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 일행에게 필요한 보충량식과 더덕을 박은 맛나는 고추장까지 잔뜩 지워보냈다. 그리하며 우리는 온 나라가 재더미를 털고 일어서는 복구건설시기에 느닷없이 차례진 《휴양》의 나날을 될수록 의의있게 보내게 위하여 날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천막안의 식구는 셋이였다.

나를 내놓고는 열일곱곱에 잡히는 책상올림청년 정식이와 경리부에서 나온 엄아바이가 전부였다.

정식이는 개인철공소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 들어온 청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의 리상은 장차 지질학자가 되어 온 나라에 석탄을 대주교도 남을만큼 굉장한 큰 탄맥을 찾는것이였다. 그는 강가에 텅구는 조약돌에도 화강섬록암이란 이름을 달아주었으며 우리가 숙영하는 골짜기는 신생대에 단렬지피운동으로 생겨난 습곡산지라고 하였다.

물론 그의 지식과 지질가다운 분석이 배낭에 넣고온 두툼한 책에서 보충된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우리는 어딘가 들뜬듯 한 그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매번 감탄하듯 입술을 벌려 그

를 흐뭇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서른아홉 나이보다는 턱수룩한 구레나룻으로 해서 아바이라고 불리우는 경리부의 엄아바이는 해방전 공사관에서 《나그네질통》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큰 질통을 지고 언제에 오르다가 다친 허리때문에 인민군대에는 비록 나가지 못했지만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어 고문받은것을 그 어떤 《위훈》처럼 여기며 자신을 위안하는 사람이었다. 이루지 못한 소망과 세울수 없었던 위훈때문에 날마다 당하는 자존심은 마침내 그 위안으로 떨어지곤 하였으니 원썬들의 모진고문을 이겨낸것도 사실상 그의 견해로 볼 때 위훈이라면 《위훈》인 것이다.

나의 경력은 어떠한가?

물론 나는 군의로 전쟁에 참가했던 제대군관이다. 포성이 멎은뒤 인차 군복을 벗게 되어 저으기 서운하였지만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투쟁에 의료일군으로 복무하는것도 중요한 일이어서 나는 인차 자기 직무에 마음을 불일수 있었다.

내가 이 글에서 이렇게 경력부터 소개하는것은 자동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골짜기에서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졌으리라는것을 독자들이 충분히 짐작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낮에는 소일삼아 산에서 약초들을 채집하거나 너럭바위에 앉아 자작 만든 낚시로 산천어를 낚았다. 저녁이면 식후의 거느죽한 기분에 잠겨 강변을 거닐며 폐허를 헤치고 일떠설 조국과 이땅을 락원으로 꾸리기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동시대인들의 힘찬 로력투쟁을 두고 열에 떠서 이야기관을 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삼라만상이 어둠속에 삼석들어 《론쟁》도 지칠무렵이면 강가에 널린 통나무들을 주어다가 톱으로 켜서 우등불을 지피고 순번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돌렸다. 화광으로 해서 더욱 두터워진 어둠의 장막을 뚫으며 무수한 불티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라갔다.

밤이면 가뜩이나 조용한 골짜기의 정적이 더 깊어지곤 했다. 무슨 말이든지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수 없는 산촌의 고요다. 고막이 웅-울리도록 적막한 강변에서 우등불을 마주하고 앉아있노라면 마치도 도도히 굽이치는 시대의 격류에서 밀려난것만 같아 더구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뉘우

칠만 한것은 조금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차례진 강변에서의 산책이 좋았다. 가을밤 이야기를 엿들으며 총총한 별빛아래로 성급히 흘러가는 열정적인 강물이 마음에 들었다. 푸른 하늘이 그대로 물든듯 파아란 강물속에서 급류에 속달된 산천어를 잡자면 미끼들 켜 주낙이 아니라 흘림낚시를 써야 한다는것을 골짜기에 머무르는 그날 우리는 경험으로 터득하였던것이다.

우리 천막에서 멀지 않은 곳- 강물이 산굽이를 휘우듬히 안고돌면서 쌓아놓은 후미진 모래톱에는 얼크러진 물버들숲을 배경으로 얼주 세워놓은 《人》 자형의 초막이 있다. 그 초막은 우리기 골짜기에 자리잡은지 얼마 안되어 생긴 이상한 집이었다.

초막주인은 서른쯤 나보이는 젊은이였다. 관꼴이 두드러지고 별과 바람에 그슨 그의 얼굴은 그 어떤 슬픔을 안은듯 무척 어두워보였다.

젊은이가 이 골짜기에 처음 나타난것은 약초채취작업이 한창인 때였다.

연장자리 푸릿한 군복을 입고 역시 물낚은 배낭을 맡아진 그가 우리 천막가로 다가와 하루밤 묵자고 할때 나는 령너머 림산사업소에 배치되어 가는 제대군인인줄 알았었다.

한적한 골짜기에서 손님을 맞는것도 반가운 일이어서 우리는 극진히 대해주었다. 그런데 하루밤 쉬고난 젊은이는 령너머쪽으로 가지 않았다. 온종일 강변을 오르내리며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넣곤 하였다. 그날저녁 느지막에야 강변을 떠났던 젊은이가 이틀후 중낮쯤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잔등에 더질듯 평평한 배낭을 지고 있었다.

아마 식량이며 취사용도구들을 준비해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젊은이는 그날부터 초막을 지어놓고 모래톱에 머물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는 우리와 한강변에 류속하면서도 곁을 주지 않는 이상한 이웃이었다. 천막신세도 다 잊은듯 하였다. 아니면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지...

일과는 무척 단조로웠다. 강류역에 널린 통나무들을 끌어다가 초막앞에 무쳐놓는것이 하루일과의 전부였다.

강기슭에는 장마에 떠내려 오다가 걸린 통나무들이 적지 않았다. 범람하는 물결우에 높이 뻗던 통나무들은 강녘에서 먼 산자락에까지 걸려있었으며 지어 어떤것들은 자연의 무서운 힘과 기개를 인간앞에 시위하려는듯 집채같은 바

위우에 넉넉 올라 앉아있기도 하였다. 류벌 당시 홍수에 흠어졌거나 조국해방전쟁때 류실된 나무들이었다. 그런 나무들까지 회수하느라고 품을 들이기에는 당면한 채벌과제가 너무도 아름찬 림산 사람들일것이다.

해뜰무렵, 골짜기에서 하루밤 쉬고난 첫빛안개가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산릉선을 향해 기여오를 때면 이웃의 그 젊은이는 끝바를 한쪽 어깨에 메고 우리 천막앞을 천천히 지나가군 하였다. 잠을 설쳤는지 약간 부석부석해 보이는 얼굴에는 아직도 다 가지지 못한 피로가 력연하였다. 그는 해가 머리로 높이 떠오른 때에야 끝바에 련결한 통나무를 끄느라고 물걸을 차며 흐름을 거슬러 힘겹게 걸어오는것이였다.

그가 언제 자고 깨는지 누구도 몰랐다. 그렇게 하루동안 몇탕째나 통나무를 끌어오는지 우리는 알수 없었다. 다만 나날이 늘어가는 초막가의 통나무들만이 젊은이의 헌신적인 노력을 말없는 웅변으로 묵묵히 알려줄뿐이였다.

하루는 크게 지퍼놓은 우등불가에서 그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다.

손바닥으로 한쪽 불을 누르고앉아 골똘한 표정을 짓고있던 정식이가 두눈을 이상스럽게 빛내이며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게 아닐가요?》

《허, 참 너석두...》

엄아바이는 담배말던 손에서 씨레기를 흘리며 느슨하게 웃었다. 물론 복구건설이 한창인 지금 어디서나 필요한것이 통나무이다. 통나무를 구하려고 림산에 왔다가 빈손만 들고 돌아서게 된 사람들에게 흥정을 걸면 톡톡히 한몫 볼수도 있는것이다. 하지만 정식이의 말에는 감정이 다분히 깔려있었다. 아침에 그 젊은이와의 사이에 있었던 언짢은 일때문에 그러는것이다.

이 하루의 첫 해살이 강물우에 뿌려져 무수한 거울조각처럼 반짝거릴 때 우리는 뿔나무로 쓸만 한 통나무를 끌어오려고 강상류쪽으로 갔었다.

나무는 대체로 강 웃쪽에서 끌어왔다. 세사람이 힘을 합쳐 물우에 띄우면 통나무는 능실거리는 물걸을 타고 잘도 떠내려갔던것이다. 그런 때면 준마를 길들인 기수처럼 통나무머리에 올라 삼바줄을 한손에 감아챈 정식이가 기분이 흥떠서 걸음마다 장단을 치면서 《진군 또 진군》을 불렀고 우리는 전시가요의 선률에 맞춰 발을 번갈아 내짚으며 그의 뒤를 즐겁게 따르곤

했었다.

그런데 통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실망했다. 이웃의 그 젊은이가 먼저 와있었던것이다. 그는 물푸래장대로 둔장질할 통나무를 이리저리 여겨보며 어느쪽으로 굴릴가 궁리하는듯 하였다.

《이건 어제저녁에 내가 봐두었던 통나무인데...》

정식이는 고집스레 중얼거렸다. 그가 들으라는것이다.

젊은이는 장대를 놓고 언짢은 눈길로 애송이 청년을 돌아보았다.

《어디 표적이라도 있나?》

《표적?!...》

그만 말문이 막힌 정식이는 구원을 청하듯 우리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했으나 나는 지원포를 쏘줄수 없었다. 젊은이의 말이 옳았기때문이다.

그러자 정식이는 이마를 가리웠던 머리숱을 휩쓸며 취율리며 《차, 이 형님 바라.》 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젊은이는 동생의 버릇없는 행동을 대수로와하지 않는 형처럼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이거 좀 안됐지만 양보하라구. 뿔나무로 쓰기엔 아까운 기둥감들이 아니냐.》

《쳇, 기둥감들이라구요?》

정식이는 휘우듬한 나무통을 발로 짚으며 빈정거리듯 두손을 벌려보였다.

《그래, 나무가 없어서 이따위로 기능을 세운단 말이에요?》

《거야 생각하기에 달린거지. 바라, 얼마나 미끈한가를... 이젠 전쟁도 끝났는데 집을 짓자구 해두 그래, 어디서나 필요한게 바로 이런 통나무들일게다.》

젊은이는 비로소 얼굴색을 풀며 탐나는 눈길로 다시금 통나무를 더듬어보았다.

욕심이 크면 그닥 신통치 않은 나무들도 다 기둥감으로 보이기마련이다.

젊은이는 더는 우리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끝바에 련결된 고리못을 통나무머리에 박으려고 돌을 높이 쳐들었다.

텅! 텅!

나무살을 헤집으며 깊숙이 들어가는 금속음이 이상하게도 나의 가슴을 울리었다. 더할나위도 없는 젊은이의 승리였다. 그의 고집스런 행동에서는 힘으로는 결코 건드릴수 없는 그 어떤 정의감이 력력히 느껴졌다. 하여 우리는 상류쪽으

로 조금 더 올라가서야 마음에 드는 통나무를 골라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웃의 젊은이를 화제에 올린 지금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 정식이가 골을 널만도 하였다.

통나무는 다른데 가서 또 찾으면 되겠지만 《무슨 표적이라도 있니?》 하고 묻던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분명 우리에게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 한 일은 없었다. 오히려 비오는 날 성냥에 누기가 들면 나의 라이터가 젊은이의 초막앞에 화톳불을 지펴주었고 천성이 무뎠던 엄아바이는 《고생을 사서 하지 말구 아예 우리 천막으로 옮겨오게나.》 하고 진심으로 권고하기도 했었다. 《그럼 나한테 형님이 하나 생기겠는데.》

정식이는 어쭙은 표정을 지으려다가 잘 안되자 보던 책을 탁 접으며 하하 웃었던 것이다.

《아닐세.》

엄아바이가 걱정 어린 눈길을 어둠의 장막너머 사위여가는 화톳불이 별경게 보이는 초막쪽으로 보내며 정식의 견해를 일축해버렸다.

《기분이 좀 나쁘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쓰나. 내 생각엔 장사군 같지 않아.》

《어쨌서요?》

《음, 장사밀천을 마련하기에는 그 일이 너무도 고달파 보이거든.》

《그럼 아바이가 맞춰보지요.》

아바이는 불무치를 두지던 나무꼬챙이로 담배불을 붙이고 나서 뜨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필시 미제놈들의 폭격에 집이 불타버렸을테지. 전쟁기간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재더미로 됐다구. 그게 아마 전쟁말기에 있는 미제놈 비행기들의 맹폭격때 일인지두 몰라. 그래 온 집안이 한지에 나앉았을테지. 물론 이웃들이 어련히 돌봐줄테지만 어디 생각해 보게. 당장 겨울이 닥쳐오는데 집이 없으면 야단이 아닌가.》

《소장동지는요?》

정식이가 조바심을 치며 묻는 말이다.

이런 경우 나는 종종 난처한 립장에 놓이곤 했다. 내가 누구한테 지지표를 던지는가에 따라 다수가 결정되고 승부가 갈라지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다소 랑만적인데가 었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바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그 견해를 따르면 이웃의 젊은이가 처음 우리한테로 왔을 때 얼굴에 담았던 어두운 빛갈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비행기의 맹폭격 당시에 필시 가슴아픈 손실도 있었으리라.

《이건 너무... 한데요.》

어느덧 우리 둘이 공모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식이가 억울한 듯 부르짖었다.

《설사 제 집을 짓는대두 그렇지요. 그래,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슬픔을 누르고 복구건설에 떨쳐나선 거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집이나 짓자구... 아바인이 골짜기에 올라오더니 해이됐거든요.》

《저런...》

엄아바이가 덴갑한 듯 찢찢매는 시늉을 하였지만 정식이는 그의 편역을 든 나에게도 가차 없었다.

《이제 두고보지요. 래일부터는 철저히 표적을 해놓지 않나.》

불빛때문인지 손바닥을 고였던 그의 한쪽 볼이 그때까지도 빨개 보였다.

과연 정식이는 다음날부터 에누리 없었다. 전 날저녁에 상류쪽으로 올라가서 끌어내리기 쉬운 통나무들에 도끼로 미리 표적을 해놓았다. 그리고 아침이면 이웃보다 한발 먼저 닿아서 는 다가오는 젊은이를 승리자 연한 눈길로 응시하는 것이 었다.

《지질가》 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떨쳐나서 복구건설을 위해 애면글면하는 시기에 제 집이나 짓자고 극성을 부리는 젊은이의 행동에 진정 분개한 모양이었다. 거듭되는 《승리》는 애젊은 청년을 도취되게 만들었다.

하여 그는 통나무를 물결우에 띄우고 내려올 때면 이웃이 들으라는 듯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진군이다 진군이다 앞으로 친구 또 진군

...

어처구니없는 노릇이었지만 그렇다고 나무라도 할 수 없었으니 이웃의 젊은이를 좋게만 보려던 우리의 견해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었다.

통나무를 《장사군》 한테 순순히 넘길 수 없다는 정의감때문인지, 아니면 넘쳐나는 힘을 어디든지 소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청춘의

헐기때문인지 정식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상류 쪽으로 올라가 통나무를 끌어오곤하였다. 그 젊 은이못지 않게 극성을 부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강웃쪽에서 끌어올만 한 나무가 더는 없 게 되었다.

덕분에 우등불은 더 크고 더욱 뜨겁게 타올랐 으며 우리는 철수할 때까지 땀감걱정을 하지 않 게 되었다.

그대신 이웃젊은이의 처지는 날로 어렵게 되 어갔다. 상류쪽에서 더는 나무를 끌어올수 없게 된 그는 다음날부터 하류쪽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통나무가 바르기는 하류목도 마찬가지 였다.

사태에 묻히거나 홍수에 떠박질려 바위쪼에 들어박힌 통나무를 끌어내자면 때로는 한것이나 역사질을 하여야 했다. 하여 해질무렵이 다되어 서야 겨우 강흐름을 거슬러 천막부근까지 올라 온 그는 끝바를 쥐고 우리앞을 지날 때마다 생 각깊은 눈길로 활활 솟구치는 우등불을 바라보 는것이였다.

가을날답게 멀썩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 니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골짜 기는 삽시에 뽕안 비발속에 잠겼다.

산골물이란 폭우에 민감한 법이다. 불어난 강 물은 기슭을 밀고 올라왔다. 저기 아래쪽 여울 목에서는 격류와 바위들의 대적전이 벌어진듯 장쾌한 물소리가 산발을 쿵쿵 울리였다. 마치도 그 울림으로 골짜기에 깃들었던 고요를 영영 깨 치기라도 하려는듯...

이웃의 젊은이는 나무를 끌다가 소나기를 맞 았다. 끝바를 힘껏 당겨 통나무를 기슭으로 바 싹 올려붙인 그는 온몸을 휘감는 비발속에 서서 도도히 굽이쳐가는 강물을 덤덤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갑자기 당황한 빛이 어리 기 시작했다.

한대...

또 한대...

굽니는 물결을 타고 떠내려오는 통나무들을 본것이였다. 모래톱에 무저 놓았던 통나무들이 기슭을 밀고 올라오는 탕수에 뜨기 시작한 모양 이다.

젊은이는 누가 미처 어쩔새도 없이 사뭇치는 물결속으로 뛰어들었다.

널어놓은 약초들을 천막안으로 날라들이던 우 리가 젊은이를 발견한것은 바로 그 순간이였다.

《아 아 이 사람아, 죽자고 그러나? 어서... 나

오라구.》

엄아버이가 한손을 내저으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으나 그 목소리는 물가에 미쳐 이르 기 도전에 소연한 물소리에 삼키우고말았다.

우리는 강가로 달려나가 소용돌이치는 물결우 에서 가랑잎처럼 오르내리는 젊은이를 안타까이 지켜보기만 하였다.

광란하는 자연에 비하면 그의 용단은 너무도 어리석고 보잘것없어보였다. 승산도 없었다. 그 런데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솟구치면서 통나무 를 향해 자꾸만 헤엄쳐가지 않는가.

허나 나무를 붙든다는건 어림도 없는 일이였 다.

실사 잡는다 해도 기슭으로 끌어낸다는것은 더구나 불가능한 일이였다.

물결은 자기와 겨루자고 나선 그를 조롱하는 듯 손끝이 자칫거리게 통나무를 밀어보내기도 하고 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솟구치는듯 두 사이를 허양 갈라놓기도 하면서 젊은이를 떠실 고 여울쪽으로 갔다. 여울턱에 이르면 사람이고 통나무고 바위에 부딪쳐 끝장을 낼 판이였다. 그 광경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쭉- 돋았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수 없었다. 포장용으로 준비했던 바오래기를 허리에 차고 지체없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한동안 고생끝에야 겨 우 위기에 처한 젊은이를 구원해낼수 있었다.

그런데 강녘으로 나오게 된 젊은이는 아직도 미련을 버릴수 없는지 이번에는 기슭을 따라 달 리기 시작하였다. 어디에 세팔게 부딪쳤는지 다 리를 몹시 절였다. 그러면서도 뛰고 또 뛰였다.

며칠이나 품들인 노력을 다 건어가지고 창황 히 떠내려가던 통나무들이 여울턱에 이르러 재 주넘기를 하듯아슬하게 일떠섰다가 아래로 곤두 박질치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를 때에야 모든 것을 단념한듯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았다.

폭우는 인차 멎어버렸다.

젊은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화가 천둥같이 나 서 나는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하려고 했 다. 했으나 지칠대로 지친 그의 초췌해진 얼굴 을 보자 노여움은 대번에 가라앉고말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의 눈가엔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 얼마나 분하고 안타까웠으면 젊은이의 눈 에 눈물까지 다 어렸겠는가. 도대체 그 통나무 들이 무엇이기에...

나에겐 그것들이 사나운 격류속에 생명을 걸

고 나설만큼 그렇게 귀중한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한데 그는 잃어버린 몇대의 통나무를 두고 마치 자기 살점이라도 뭉쳐 떨어져나간것처럼 정도이상으로 피로와하고있었던것이다.

그날밤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길 없이 나는 천막앞으로 나왔다. 별빛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자갈을 밟으며 저도 모르게 초막쪽으로 걸어갔다.

젊은이는 초막앞에 지펴놓은 화톳불가에 앉아 있었다. 별절게 사위여가는 불빛이 쌓아놓은 통나무더미며 얼크러진 버들숲을 희미하게 비추고있었다. 아직도 마르지 않은 물날은 군복에서 누긋한 땀내가 배인 끈김이 문문 서려올랐다.

젠장, 불무지라도 좀 크게 만들노릇이지... 통나무 하나가 아가와 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그가 용렬하게 느껴졌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초막앞에서 우등불이 기세중계 타오른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강류역에 널린 삭정이나 검불들을 모아다가 화톳불을 지피면 지켰지 우등불을 놓은적은 결코 없었던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굶은 날 불무지 하나도 크게 만들지 못하는 젊은이, 피로가 력연한 그 얼굴이 어쩐지 측은해보였다.

나는 문득 그에게로 다가가 위로해주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잃어버린 통나무들이 너무도 아쉬워 저처럼 피로와하는것이 아니라.

나는 굳게 믿었다. 젊은이의 저 피로움이 마침내 반성으로 끝나리라는것을, 그가 노호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던것처럼 언젠가는 복구건설로 들끓는 시대의 격류속에 주저없이 들어서리라는것을...

천막가로 돌아오니 우등불을 손짓하며 엄아버이가 정식이를 훈계하고있었다.

《태일부턴 나무를 좀 아껴야 하지 않을가. 웬간하면 삭정이두 주어다 때구.》

《차, 이런... 오늘은 왜 자꾸만 이래요? 책두 못읽게스리. 내가 뭐 삭정이불이나 지피자구 통나무를 힘들게 끌어온줄 알아요?》

《글쎄, 내 말을 마저 들어보라니까. 자넨 이제부터 일체 면제야. 땀감은 어련히 내가 마련하지 않으리. 고추도 작은게 더 맵다구 화톳불은 작아두 땀이쭉- 난다네.》

《땀이 쭉- 난다구요?》

《그렇잖구. 한데 이진 덩지가 잔뜩 커가지구 아까운 통나무만 태워버린단 말일세.》

《쳇, 내가 뭐 모를줄 알구. 아바인 저 통나무

들을...》

《그래, 아까운 기둥감들이지.》

《야, 정말...》

나는 어둠속에 서서 빙그레 웃음지었다. 역시 엄아버이다운 수완이었다. 어떻게든지 구슬리고 야 마는 그 수완앞에서 정식이의 도교하던 기세가 죽치고있지 않는가. 그러자 문득 자동차가 몹시 기다려졌다. 적막하기 그지없는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고작그게 다였던것이다.

잡자기 기온이 쭉- 떨어졌다.

높은 산정에 서리가 내렸는지 찬기운이 으스스- 쓸어들어왔다.

물이 차지자 산천어들도 더는 홀림뉘시를 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젊은이의 일과는 변함없었다. 아니, 날이 차지자 그는 더 초조히 서두르는듯 싶었다. 젊은이는 퍼렇게 질린 입술을 감쳐물고 물살을 거슬러 그냥 나무를 끌었다.

통나무는 워낙 사람이 강벌속에 들어서서 끌어야 물가운데를 타고 끌려왔다.

게다가 둔하기 짝이 없어서 걸핏하면 돌부리를 들이받으며 젊은이를 끌탕먹었다.

큰 나무일수록 똥힘이 커야 하는것만큼 깊은 데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젊은이는 될수록 안쪽으로만 들어서서 나무를 끌었다.

물살은 지긋게도 애를 먹었다. 우에서 내려오던 속도 그대로 허벅다리를 들이치고는 인차 물결을 모아가지고 나무통에 달려들었다. 미끄러운 돌을 밟고 넘어지면 패재를 부르듯 연신 물마루를 추켜올리며 젊은이를 떠실고 아래로 내려갔다. 하여 그는 물살에 지지 않으려고 넘어지면 재빨리 일어서곤 하였다.

그런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이 뻘근해지곤 하였으나 그때 우리는 젊은이가 뻘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물속에서 얼마나 완강한 의지로 걸어야 했는지를 다는 알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그것을 홀연 깨닫게 되었다.

골안을 누비는 찬바람에 락엽들이 새뎌처럼 날아오르는 저물녘이었다.

츠렁바위쪽에서 갑자기 환성이 울렸다. 온종일 헛탕만 치던 엄아버이의 홀림뉘시를 쏘가리란놈이 넘적 받아물었던것이다.

그런데 만회할길 없는 실책을 깨달은 그놈이 물밑바위쪽에 들이박혀 좀처럼 뉘아낼수가 없었다. 아바이는 줄을 늦춰도 보고 당겨도 보다가 잘 안되니 한발을 들었다놓으며 그저 《이놈!

이놈!》 하고 소리만치르고있었다.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옷동을 벗어 던진 정식이가 강우로 몸을 날려 아바이를 흐뭇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진것은 그 다음이었다.

허리치는 물속에 들어서자마자 뼈마디에 강직이온듯 그는 돌연 굳어진 자세를 취하더니 재채기를 하듯 《엑, 차거워!》 를 연발하며 기슭으로 뛰쳐나와 이발을 딱딱 마주쳤던것이다.

그바람에 그만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엄아바이가 두눈을 굴리며 짹 소리쳤다.

《예끼, 비겁한 녀석같으니라구. 그만한것도 참지못해.》

그런데 주눅이 들줄 알았던 정식이가 지지 않고 맞받아 응수하는것이였다.

《아바인... 쳇, 알지두 못하면서 큰 소리네. 아바이가 한번 들어서보라요. 물이 얼마나 찬가. 온몸이 막 가드라든것 같아요.》

《으흠, 가드라든단 말이지.》

아바이는 갑자기 한대 얻어맞은듯 신음소리까지 냈다.

《그런 물속에서 그 젊은인 나무를 끝지. 온종일 나무를 끈단말이다.》

고통스러운 그 목소리는 나의 가슴도 크게 울려주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한 일에 절대로 자기를 바칠수 없다. 왜냐하면 리기의 목적이 일신의 안락과 영달에 있는데 자기를 바치고나면 남는것이 없기때문이다. 하고 보면 그 젊은이의 헌신적소행의 근저에는 자신을 초월한 그 무엇이 분명있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천막가의 우등불은 어느때보다 더 크게 타올랐다. 기세좋게 타오르는 우등불빛에 타르처럼 검은 빛갈로 번들거리는 강물이며 그 너머 대안까지도 환하게 드러났다.

그래도 성차지 않는지 정식이는 뜨거운 불속에 나무토막을 자꾸만 집어넣었다. 찬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되게 혼란 봉창을 하려는것 같았다. 혹은 우리의 면전에서 드러낸 자신의 약점을 활활 솟구치는물길로 연소해버리고싶어 그러는지도 몰랐다.

엄아바이는 우등불이 지내 크고 요란한데 질겁한듯 하였으나 강물이 얼마나 찬지도 모르고 다불러땀던 자신이 돌이켜져 차마 추궁은 못하고 저으기 걱정어린 목소리로 《아직두 몸이 채 녹지 않았나?》 하고 묻곤 하였다.

《덜었어요.》 정식이의 덜통스런 얼굴은 이렇게 대답하고있었는데 불기운에 질려 뒤로 나앉으면서도 우등불을 향해 장작개비를 던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덜었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혹시 그동안 엄아바이한테 놀리기만 했던 봉창을 불무지에 나무토막을 던지는것으로 다하려는 뻔뻔해진 심사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로 해서 녹아나는건 애매한 장작개비들뿐이었다.

불무지가 어방없이 커졌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엄아바이를 대신하여 나서야 할 사람이 다른아닌 자신임을 깨달았다.

내가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였다.

불가에 뜻밖에도 그 젊은이가 불쑥 나타났다.

산에서 내려왔는지 바지가랭이에는 풀씨들이 잔뜩 매달려있었다.

젊은이는 곧바로 단단히 묶어 잔등에 걸머졌던 나무단을 툭씩 내려놓고 약간 망설이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 보았다.

젊은이의 출현을 제일 반가와한것은 엄아바이었다. 마치 불을 크게 지핀것이 그때문이기나 한듯 저으기 변명조로 입을 열었다.

《마침 잘 왔네. 자, 어서 이리 가까이 와서 몸을 덥히라구. 인차 훈훈해질거야.》

젊은이는 가볍게 사양하였다.

《난 몸을 녹이려고 온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왔어요?》

정식이가 나무토막을 하나 집어들며 참견했다.

그제야 우등불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깨달은듯 젊은이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며 정식이쪽으로 아주 돌아섰다.

《이보라구, 사실 땀나무로 쓰는 저 통나무들이 부러워서 왔어.》

《아니, 부러워서 왔다고요?》

정식이는 차마 믿어지지 않는듯 두눈을 뜨부럭거리었다. 통나무를 《집채같이》 모아들인 그가 불감으로나 쓰는 저런 나무들까지 부러워하다니... 그의 지나친 욕심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수 없었다.

정식이는 한풀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요, 어찌자는거예요?》

《음, 난 저 통나무들을 이 나무단과 바꾸었으면한다.》

《그럼 이런 삭정이나 때란 말이에요?》

《작으면 래일부턴 넉넉히 해줄테다.》

《참 그게 좋겠구만.》

엄아바이가 무턱대고 지지해나섰다.

《소장동지는요?》

정식이는 미타한듯 나를 돌아보았다. 무슨 의견이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정식이가 아니라면 저 통나무들을 그냥이라도 주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니 삭정이와 바꾸자는건데...》

정식이는 마음이 유쾌해진듯 들고있던 나무토막을 우등불을 향해 또 던졌다. 탁, 잉결들이 흩어지며 무수한 불티들이 어두운 증천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그 불티들사이로 정식이의 승리자연한 목소리가 울려갔다.

《하긴 찬물에 들어서는것보다 그게 더 나을거예요. 생각같아서는 거저 주고싶지만 그럼 우린 한지에서 떨게 될거구. 그러니 신용을 지켜야해요.》

《약속한다.》 하고 젊은이는 약속했다.

다음날부터 저녁이면 어김없이 나무단을 한짐 가득 해진 젊은이가 우등불가에 나타나곤 하였다. 그러면 정식이는 통나무무지들 깔고앉아 나무단을 무겁게 지고 걸어오는 그를 쫓난 눈길로 여겨보는것이였다.

정식이는 이웃과의 흥정에서 조금도 밀지려고 하지않았다. 그닥 신통치 않은 통나무에도 이웃으로서는 너무도 야박한 《값》을 매겨놓고 나무단의 가치와 대등한것을 하나씩 내주었다.

엄아바이나 나는 아예 비치지도 못하게 하였다.

《너무하다니요. 이걸 제 리속이나 채우려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로동계급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였지만 그렇다고 정식이를 꾸짖을수도 없는 노릇이였다. 그런대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천막가의 나무들이 또 초막쪽으로 옮겨지곤 하였기때문이다.

젊은이는 정식이와 《물물거래》를 시작한 다음에도 통나무 끄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날마다 아침이면 끝바사리를 한쪽어깨에 메고 우리의 천막앞을 지나가곤 하였으며 해빛이 좀 파스해지는 한낮 때면 통나무를 끄느라고 물결을 차며 흐름을 거슬러 힘겹게 걸어오는것이였다.

초막가의 나무무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집을 지으려면 몇채를 짓고도 남을 량이였다. 그런데도 매일 나무를 끄는 젊은이의 행동에서는 리기를 초월한 무엇인가 숭고한것이 느껴졌

다.

요즘 젊은이는 자주 물판에 넘어지곤 하였다. 기운이 진해서만이 아닌것 같았다. 약초배낭(그가 우등불가에 나타난 다음 다시 시작한 일이였다.)을 지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또다시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나는 그의 신상을 두고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일행이 모두 달라붙어 그날분 통나무를 모래톱까지 끌어다주니 그는 무척 고마와하였다. 고맙다니... 도대체 무엇이 고맙단 말인가?

나는 격해진 눈길로 젊은이를 보았다. 그의 창백해진 얼굴에는 진땀이 한벌 덮여있었다. 참을수 없는 진통을 의지로 눌러야 하는 야전병동환자들의 얼굴에 저런 진땀이 내뻐다는것을 나는 화선경험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동무, 혹시 어딘가 몸이 불편한게 아니요?》

《아마 지쳐서 그렇겠지요.》 하고 그는 시들하니 웃었다.

《아니, 내 눈은 못속이오. 안되겠소. 이러다가는...》

《하지만 겨울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종일 주눅이 들어있던 정식이가 한마디 했다.

《형님, 그 몸에 어떻게 일한다구 그래요. 일을 제끼자면 체격이 나만은 해야지요.》

《나두 동무만 못지 않았어.》

《쳇, 그래서 호랑이두 잡았겠어요?》

호랑이란 말에 기운이 난듯 젊은이는 어깨를 들썩거리더니 솔직히 실토했다.

《아니다. 호랑인 잡지 못했지만 그 대신 미군놈을 뒤통을 잡았지.》

《미군놈을 뒤통이나요?》

《그래, 이걸 정말이다.》

나는 젊은이와 헤어져 천막쪽으로 걸어가다가 지긋게 달라붙는 불안을 덜수 없어 고개를 돌려보았다. 젊은이는 그때까지도 초막가에 서서 우리쪽을 하염없이 보고있었다. 순간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 그 눈길에는 얼마나 크나큰 부러움이 실려있었던가.

하지만 그때 나는 알수 없었다. 어찌하여 그가 그토록 한없는 부러움속에 눈물까지 담고 우리 일행을 바라보았던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형세가 기울어진 뒤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우등불가에 둘러앉았으나 누구도 말이 없었다. 점차 잉결불도 사위여갔지만 불무지에 나무토막을 넣지 못했다.

산촌의 어둠은 머리위에 바투 드리워 끝없는 적막을 부르는듯 했다. 고요로 충만된 그 어둠조차도 누군가를 기다리는듯 했다. 했으나 나무단을 진 젊은이는 끝내 불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는 강변에서 끌어온 통나무를 땔나무로 쓰지 못했다. 마치도 골짜기에서 초조하게 보낸 날들이 자동차때문이거나 한듯 깊은 밤중에도 설핀 잠을 털어버리며 천막밖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그러면 차고 습한 대기를 누비는 강물소리가 어둠속에서 울려와 허전해진 가슴을 조용히 달래여주는것이였다. 산촌의 고요를 더욱 짙게 해주면서 총총한 별빛아래로 사품쳐가는 여울물소리는 신통히도 자동차의 발동소리와 꼭 같았었다.

지배인이 자동차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때로부터 한주일이 더 지나갔으나 공장에서는 아직도 종무소식이였다.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라도 생긴 모양이였다. 그런데 강여울쪽에서는 날마다 통나무를 끄는 젊은이의 모습이 나타나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졌다.

나는 자신을 미덥게 여기는데 습관된 사람이였다. 그것은 포연탄우를 뚫고 불비속을 달려야 했던 전화의 나날들을 궁지높이 회억할수 있기 때문이였다.

하기에 군인초대소에서 새로운 파견장을 받았을 때 군복을 벗어야 하는 나의 마음은 그지없이 서운하였으나 전후복구건설에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투쟁에 의료일군으로 복무하는것도 중요한 일이어서 나는 인차 자기 직무에 마음붙일수 있었던것이다.

내가 월봉기계공장 진료소장으로 와서 처음 시작한 약초채집전투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도 실은 만난속에서도 버릴수 없었던 그 차공심 때문이였다. 그런데 강변에서 통나무를 끄는 젊은이의 눈길은 조용한 골짜기에서 흘러보낸 우리의 나날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나의 자부심이 어떤것인가를 돌연 깨닫게 해준것이였다.

습기찬 바람이 골안을 누볐다. 눈부신 번개가 물채찍을 들어 맞은편 산허리를 후려치며 누리를 태울듯 확- 밝히였다. 뒤이어 산발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 요란한 천둥소리가 골짜기를 따라 달음쳐갔다.

하늘을 확 뒤덮은 재빛구름장들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어디론가 창황히 흘러가기만 했다. 차라리 비라도 확 내렸으면... 닥쳐올 폭우를 두려워하면서도 이제나저제나 가슴조이며 기

다리게 되는 어느날 오후였다.

행여 자동차가 올라 하여 령길쪽으로 나갔던 정식이 천둥소리에 얼혼이 나간듯 천막안으로 달려들어오며 소리쳤다.

《큰일났어요.》

《큰일나다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쓰러진것 같아요.》

《어디에?...》

《저기.》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자락사이로 강여울쪽을 다급히 손짓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천막안으로 뛰어들다니... 순간 나는 화가 굴뚝같이 치밀었으나 애써 누르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럴 경황조차 없었던것이다.

아닐세라... 젊은이는 천막에서 멀지 않은 곳-강물이 사품쳐 흐르는 여울가에 쓰러져있었다. 바위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급류에 말려들어 위험할번 하였다.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마가 땡- 해치도록 차디찬 물결이 쓰러진 그의 어깨를 타고 넘으며 아래쪽으로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어찌나 꼭 쥐고있는지 한참이나 신고해서야 손에서 바오래기를 겨우 풀어 던질수 있었다. 통나무는 바줄이 늦춰지기 바쁘게 물살에 떠밀려 가며 여울락쪽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다.

《이 사람 젊은이, 정신차리라구.》

엄아바이가 두손으로 꼭 부둥켜안으며 금시 흐느끼듯 한 목소리로 웨쳤다. 허나 젊은이는 기척이 없었다. 차거운 강물이 그의 체내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운까지 다 뽑아버렸는지 꼭 다물린 입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를 천막안에 들여다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였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통나무를 끄느라고 끝바가 파고들었던 부위는 어디라 없이 피부가 벗겨지고 통통 부어올랐으며 피멍이 들어있었다. 가슴 오른쪽 쇄골밑에는 굵아 터진 상처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총탄이 뚫고 지나간 관통상자리였다. 상처가 독을 쓰는지 검붉은 빛갈을 띠고있었다. 위급한 패혈증세였다.

《형님, 정신차리라요. 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놈이었어요. 아, 내가 왜 그따위짓을 하였을가.》

《떠들지 말구 어서 나가 불이나 때라구. 빨리 환자의 몸을 덮혀야지.》

정식은 나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손으로 입을 막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아바이는 고개를 숙이고 오래도록 불가에 앉아있었다. 가마안에서는 물이 끓었으나.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아마 우는것 같았다.

상처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구급약으로 가져왔던 강심제와 항생제를 주사하였다. 하지만 맥박은 점점 미미해져갔다.

수혈이 필요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의 피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수도 있는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서 채혈을... 더는 주저할것도 없었다. 나의 피형이 0형이었던것이다.

수혈을 끝내자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갑자기 앞이 막막하여 천막을 들치고 밖으로 나와 버렸다.

세찬 강바람이 옷자락을 잡아채며 상류쪽으로 달음쳐갔다. 금시 퍼부을듯 하면서도 퍼붓지 않고 으르르딱딱 버리기만 하던 하늘에서 물기를 머금은 이해의 첫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했으나 나는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평평 내리는 눈발속에 덤덤히 서있기만 했다.

나는 전쟁 전기간을 군의로 복무한 의료일군이었다. 최전방의 야전병원에서, 때로는 파편이 우박치는 불타는 고지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하지만 화선의 나날에 쌓은 귀중한 립상경험도 그 젊은이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있었다. 이때처럼 자신의 무능을 통탄한적은 일찌기 한번도 없었다.

환자의 상태를 보면 과로와 패혈로 인한 전신중독으로 병세가 이미 기울어져있었던것이다.

어쨌든 소생을 위해 가능한 대책을 다 취해야 한다.

나는 광술불심지를 돈구며 환자의 곁에서 밤을 꼬박새웠다. 엄아바이와 정식이기도 밖에 우등불을 놓고 불둘도 달구고 미음을 썼다. 새벽이 되자 젊은이의 미미하던 맥박이 빨라지며 체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만 어찌할바를 몰라 환자를 덤석 끌어안았다. 불덩이를 안은듯 했다.

《동무, 맥을 놓으면 안되오.》

제발 이 고비만 무사히 넘겨주었으면... 환자의 의지에 대고 호소하는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곤난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던 육체가 아닌가. 차디찬 강물과 중첩되는 피로 앞에서도 뒤걸음질칠줄 모르던 그가 아닌가.

돌이킬수 없는 후회와 자책으로 어깨를 떨며

엄아바이가 너두리했다.

《이 사람아, 이제 일어나라구. 조금만 있으면 새날이야. 날이 밝으면 또 나무를 끌어야 할게 아닌가응? 자넨... 어둡새벽부터 나무를 끌곤했지.》

약기운이 심장에 가닿았는지, 아니면 엄아바이의 얼토당토않은 너두리가 효험을 냈는지 그의 눈시울이 가들가들 떨리며 힘겹게 견혀올라갔다.

《여기가 어... 디...》

젊은이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이다가 곧 모든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두손으로 바닥을 누르며 몸을 일으키려고 헛되이 애를 썼다.

《나를 좀... 일으켜주십시오. 강이 얼기전에... 통나무를...》

《나무를 끌다니, 나무를 끌어? 아 아, 이 사람아, 몸이 어떤 지경인데 나무를 끈단 말인가.》

엄아바이는 젊은이의 의식을 두드려 깨운 자기의 너두리를 잊어버린듯 필쩍 뛰며 이렇게 웨쳤다. 마치 그가 성한 사람이거나 한듯.

젊은이는 무엇인가 잡으려는듯 자꾸만 손을 내저었다.

《나무를... 동발을... 아, 세포위원장동지, 저를 쟁으로...》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것은 헛소리였다. 지나친 정신력의 소모때문인지 젊은이는 또 혼수상태에 빠졌다.

토막토막 이어지는 말마디들을 추려보면 젊은이는 월봉탄광 사람이 분명했다. 월봉탄광이라면 강흐름을 따라 60리쯤 내려가야 나지는 중소규모탄광이었다. 우리 공장은 탄광과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었다.

새벽에 탄광으로 떠나갔던 정식이 그날 저물녘에야 나타났다. 마치를 타고 왔다. 산골짜к 황토길을 줄창달려온 땀투성이 가라말이 천막앞 자갈속에 네굽을 뿌듯이 박으며 끝안이 떠나가게 호응을 하였다. 마차우에서는 탄광사람들도 함께 내렸다.

그들중 자기를 세포위원장이라고 소개한 나이지숙한 장정이 젊은이를 보자 그만 억이 막히는듯 두눈만 습벅거렸다.

《사람두... 지금쯤은 전상자병원에 가있는줄 알았는데 여기에 누워있다니... 누가... 누가 동무더러 동발을 모아달랬소. 응?》

탄부 특유의 창백한 얼굴에서 두줄기 봄빛이 번쩍거렸다. 이윽고 마음을 진정한 그는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동무, 정말 고맙소. 급한 고비를 넘겨주어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나는 갑자기 격해지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물었다.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쳐든 탄광사람들이 리해되지 않았던것이다.

세포위원장은 눈시울을 찔프렸다.

《음, 이 사람은 한때 탄광에서 소문난 채탄공이었수다. 전쟁때는 군대에 나가 훈장두 많이 탔구. 전쟁말기에 전선중부에서 부상당하여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정전이 되자 석탄을 캐겠다구 침상에서 뛰쳐나왔지요. 하지만 어떻게 그의 간청을 받아줄수 있겠소. 그의 몸에 아직 두 뿔치 못한 파편이 두개씩이나 박혀있는데... 그래서 전상자병원으로 되돌려보냈던것인데 하, 글썄 이 골짜기에서 만나게 될줄이야.》

나는 탄광사람들앞에서 얼굴을 들수 없었다. 조국앞에 늘 뿔뿔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공민적인 자각과 량심을 그들앞에 검증받는 심정이였다. 언제나 부끄럼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그 젊은이결에, 이 골짜기에 세워보니 너무도 보잘것없었던것이다.

젊은이를 싣고 산굽이로 사라지는 마차를 오래도록 바라왔다.

×

그후 젊은이가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우리는 더는 자동차를 기다리지 않았다.

젊은이가 잡았던 골바를 쥐고 강기슭에 널려있는 마지막동나무들을 끝었다.

그다음은 그 통나무들을 어떻게 탄광까지 나르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크게 걱정할건 없었다. 탄광사람들이 와서 떼목을 무었던것이다.

1953년 12월 초순,

전후복구건설장으로 가는 이해의 마지막떼목들이 립산물동을 떠날 때 약초를 실은 우리의 떼목도 강물우에 등실 뻗다.

떼목이 물동에서 불어난 급류를 타고 여울목

을 나는듯이 내달릴 때 나는 그만 걱정을 이길수 없어 인생의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골짜기를 눈물너머 바라보았다.

허나 골짜기는 너무도 빨리, 너무도 서운하게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새로운 골짜기들... 새로운 경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 와서 나는 그 골짜기들을, 아니 산이 많아 골도 많은 이 나라 강산의 무수한 골짜기들을 무심히 볼수 없다. 승리한 이 땅우에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고귀한 생을 아낌없이 바친 불굴의 인간들의 고결한 투쟁정신이 어려있어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떨치는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젊은이에 대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것은 온 나라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1959년 여름이였다.

그때 도일보의 3면에 갱목생산을 위한 전망적인 립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애써 일하고있는 한 산림보호원에 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바로 《동발》이였다.

사진속에서는 산림일군복을 입은 너무도 낮은 얼굴이 조용한 웃음을 짓고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동발... 어쩐지 그에게 꼭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장구한 세월의 흐름도 골짜기에 드리운 정적만은 감히 깨치지못한듯 싶다.

골짜기는 오늘도 조용하다. 봄이 오면 취할듯한 진달래꽃향기가, 새소리, 물소리 즐거운 여름이면 숲을 통채로 졸이는듯 진한 송진내며 이끼냄새가 그리고 풍요한 가을이면 온갖 산열매의 무르녹은 냄새가 풍겨올뿐...

인생의 잊을수 없는 추억을 떠실은 그날의 물결은 세월과 함께 아득한 저 멀리로 흘러가버렸다. 허나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서 밝은 태양아래 우뚝 솟아있는 아아한 산정을 본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며 선군의 기치아래 강성대국의 눈부신 현실을 이 땅우에 펼쳐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높은 모습을 본다.

장군님 뵈온 병사 제일 행복해 외 3 편

류동호

꿈에도 뵈고싶던 그리운 장군님
병사는 전호에서 만나뵈웠네
자나깨나 기다리던 행복의 순간에
군복입은 병사의 심장은 뻐쳤네
아 장군님을 만나뵈온 병사
세상에서 병사가 제일 행복해

어버이 야전복에 얼굴을 묻고서
명사수 그 자랑도 말씀드렸네
자동보총 안은 가슴 눈물로 적시며

장군님을 모시고 사진도 찍었네
아 장군님을 만나뵈온 병사
세상에서 병사가 제일 행복해

초소는 그 언제나 장군님 모신 날
흐르지 않는 명절 전선에 있다네
행복도 만장탄 승리도 만장탄
결사옹위 총대우에 태양은 빛나네
아 장군님을 만나뵈온 병사
세상에서 병사가 제일 행복해

태양의 제일성새 공군이라네

맑고 푸른 하늘높이 날아오르며
비행사는 거수경례 날개로 드리네
사랑하는 조국이며 넘려 마시라
우리 태양 제일결에 공군이 있네
우리 태양 제일성새 공군이라네

비행사들 지켜가는 하늘의 전호
결사옹위 붉은 성벽 날개로 쌓았네
사랑하는 조국이며 넘려 마시라

우리 태양 제일결에 공군이 있네
우리 태양 제일성새 공군이라네

백두산의 불벼락칠 육탄용사들
위훈많은 승리보고 날개로 드리네
사랑하는 조국이며 넘려 마시라
우리 태양 제일결에 공군이 있네
우리 태양 제일성새 공군이라네

고지의 비둘기

비둘기때 날아예네 고지의 하늘에
병사의 총창우에 나래를 펼쳤네
평화를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
고지의 비둘기때 정답게 속삭이네

비둘기때 내려왔네 고지의 전호에
병사의 총창아래 나래를 접었네
평화의 보금자리 어디인가를
고지의 비둘기때 정답게 속삭이네

비둘기때 노래하네 고지를 감돌며
병사의 총대찬가 목메여 터치네
평화는 무엇으로 수호되는가
고지의 비둘기때 정답게 속삭이네

비둘기야 넘려 말아 전쟁의 불구름을
평화의 총창으로 다 막아주마

해병은 선군갈매기

내 나라 푸른 바다 한푼에 안고
세찬 파도 길들이는 선군갈매기
바다를 사랑해 바다에 정든
아 해병은 선군갈매기
평양의 첫 관문 바다에서 지키네

태양의 그 빛발로 깃을 다듬고
폭풍속에 담을 키운 선군갈매기
바다를 사랑해 바다에 정든

아 해병은 선군갈매기
평양의 첫 관문 바다에서 지키네

용맹과 위훈으로 끓는 바다에
결사옹위 나래펼친 선군갈매기
바다를 사랑해 바다에 정든
아 해병은 선군갈매기
평양의 첫 관문 바다에서 지키네

위대한 당의 품속에 영생하는 삶, 불멸하는 노래

최언경

조국에 바쳐진 시인의 삶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고 영웅이 남긴 시는 시대와 더불어 불멸한다.

공화국영웅 리수복의 시는 수십년세월이 흐른 선군시대 오늘에도 조국결사수호의 노래로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

공화국영웅 리수복은 열여덟 꽃나이청춘을 조국에 바치고 우리결을 떠났어도 그가 심장으로 새겨 쓴 시로 하여 조국과 인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고 있으며 오늘도 선군시대와 함께 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포화의 그 시절과 함께 영웅전사가 결을 떠난지도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갔건만 사랑하는 전사를 두고두고 못내 잊지 못해 하시며 리수복영웅을 세기를 두고 자랑할만 한 영웅으로 그 이름 귀중히 불러주시고 영웅이 남기고간 시를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래일도 영원히 되새겨 부르도록 가슴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의 시인의 보람을 두고 많이도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는 이보다 값 높은 삶, 이보다 더 큰 행복을 알지 못한다.

리수복공화국영웅의 시가 세기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추억속에 있고 인민의 심장속에 살아있는것은 한생을 조국을 위해 어떻게 참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히 가르쳐주기때문이다.

어머니조국의 품,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삶의 요람이다.

공화국영웅 리수복의 시는 영웅전사가 어머니조국에 드린 가장 열렬한 사랑의 송가이며 그것은 조국애로 불타는 심장의 노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공화국영웅 리수복의 시는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웅전사의 심장속에 것처럼 뜨겁게 굽이친 순결한 애국심의 결정체이고 정화이며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조국에 드린 아들의 고결한 맹세이다.

시의 자자구구마다에는 애국으로 끓는 영웅의 붉은피가 스며있고 사람들을 조국 결사수호에로 부르는 영웅의 심장의 고동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다.

하기에 준엄한 전화의 그날 영웅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불뿜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으며

소리높이 웨치고 간 그 심장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선군시대의 영웅,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은 그 얼마였던가.

바로 여기에 영웅은 갓어도 인민의 심장속에 세기와 더불어 영원한 시의 값높은 가치와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이 우리에게 남기고간 그 심장의 웨침소리를 가슴속에 되새겨보며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번영하게 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영웅의 시는 짧다.
그리고 더없이 소박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참된 애국자-영웅전사의 고귀한 한생이 비껴있고 심오한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바로 여기에 이 한편의 짙막한 시가 그대로 천만 사람의 심벽을 세차게 두드리는 불멸의 조국송가, 훌륭한 시로 되는 근거가 있다.

짧다고 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도 크고 소박하다고 하기에는 그 철리가 너무도 심원하다.

흔히 하고 듣는 말이기 하지만 참된 시는 말마디가 아니라 그 뜻속에 있고 시재의 높이는 손끝재간이 아니라 시인의 뜨거운 심장속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해야 할것이다.

그 아무리 아름다운 천만마디의 말로써도 몇줄밖에 안되는 영웅의 시처럼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뜻

을 것처럼 참답게 깨우쳐주지는 못할것이다.

인생의 참된 보람과 가치는 그 어떤 재부나 영예에 있는것이 아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 영생의 참된 길은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바쳐진 삶에 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천년을 살라, 만년을 살라.

짧게 살아도 값높이 산 삶, 몸은 비록 죽어도 당과 수령,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바쳐진 빛나는 삶은 참으로 영광에 넘치고 영생한다.

바로 여기에 인류가 오랜 세월 이처럼 바라마지 않던 참된 삶의 길이 있고 값높은 인생의 가치가 있다.

리수복영웅은 열여덟의 짧고도 빛나는 생으로 이 고귀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삶의 참된 의미를 시에 담아 노래하였다.

생의 마지막순간에 영웅이 되새겨 보았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생명의 귀중함, 찬란한 래일의 희망과 행복의 귀중함을 잘 알고있었다.

하물며 그는 열여덟 꽃피는 청춘의 언덕에 서있었다.

생을 여기서 마치기에는 두고온 고향과 어머니 그리고 학창시절의 귀중한 동무들, 이 모든것이 너무도 사무치게 그림고 귀중하였으며 오늘의 행복도 귀중하지만 희망의 저 언덕너머 펼쳐질 래일의 행복, 그것은 정녕 한가슴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벅찬것이였다.

허나 영웅은 사람들에게 두번다시 주어지지 않는 이 귀중한 모든것이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할수 없음을 온몸으로 체득하였다.

한것은 조국없는 생명, 그것은 설사 목숨은 불어있어도 상가집 개보다 못한 신세이며 조국없는 청춘에게는 아름다운 사랑도, 래일의 찬란한 희망도, 삶의 참된 행복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그가 뼈저리게 체험하였기때문이다.

조국은 곧 수령, 수령은 곧 조국이라는 투철한 혁명관이 서있었기에 그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었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을 바치는 이 길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을 보았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숭고한 혁명적인 생관과 하나로 통일된 영웅의 투철한 조국관, 열렬한 애국의 념이 있다.

하다면 조국은 과연 무엇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것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리수복영웅은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을 목숨바쳐 결사 수호한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열여덟살 홍안의 청년에게 조국과 인생의 참뜻을 가르쳐주시고 가장 값높은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아버지이시였다.

영웅은 그것을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라는 한줄의 시구속에 영원히 아로새겨놓았다.

해방된 조국은 영웅에게 귀중한 모든것을 주었다. 조국은 망국의 설움안고 자라온 그에게 땅을 주고 배움의 권리를 주었으며 인간에게 귀중한 모든것을 다 안겨주었다. 이 고마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새 나라를 세워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영웅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 조국, 그것은 곧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시였던것이다.

하기에 영웅은 불뽕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는 생의 마지막순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갔다.

이처럼 공화국영웅 리수복은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목숨바쳐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조국의 참된 애국자였다.

영웅은 비록 우리결을 떠나갔으나 그 고결한 애국의 념은 그가 심장으로 새겨 남긴 시와 함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며 아버지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으로 선군시대 군대와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참으로 리수복영웅이 남긴 시는 비록 몇줄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뜻을 가장 빛나게 가르쳐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명시중에도 가장 훌륭한 명시로 된다.

공화국영웅 리수복의 시는 명시가 갖추어야 할 사상예술적 풍격을 가장 훌륭히 체현하고있다.

여기에는 시문학의 생명인 서정이 줄기차게 흘러 넘치고있다.

영웅의 심장의 도가니속에서 터져나온 활화산과도 같은 이 서정의 분출은 단순히 서정의 흐름이라기보다 용광로의 쇠물과 길은 격류의 흐름이며 활활 타오르는 화불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시는 비록 짧아도 기승전결에 따르는 감정조직이 있고 빈틈없이 짜인 구성으로 하여 정교하다.

시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있고 생명, 희망, 행복, 이 귀중한 모든것보다도 조국의 운명이 더 귀중하다는 시인의 열렬한 웨침, 사상과 서정의 절정이 있으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 청춘

을 바치는것보다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은 없다는 사상적결론이 있다.

시를 이룬 자자구구마다에는 시인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가득찬 진실하고도 심오한 철학적 사색이 비껴있다.

영웅-시인은 바로 생명, 희망, 행복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택함으로써 생의 귀중함과 삶의 가치를 다른 설명과 긴 형상적표현이 없이도 그렇듯 집약적으로, 가장 뜻깊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시인은 이 생의 귀중함을 조국의 운명의 귀중함에 비기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것처럼 귀중한 생명, 희망, 행복, 이 모든것이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하지 않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영웅-시인의 철학적사색에 어울리게 시어들은

가장 적중하게, 가장 뜻깊게 취사선택되고있다.

생명, 희망, 행복-이것이 시인의 철학적사색에 의하여 생에서 가장 귀중한것으로 선택되었다면 시인은 여기에 가장 적중하게 어울리는 규정어들을 골라쓰고있다.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 이보다 더 적중하고 아름다우며 뜻깊은 시어들을 다시 고르기 힘들것이다. 특히 《위대한 행복》은 영웅-시인의 시적발견이 깃든 표현으로서 여기에는 시전체의 거대한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것이다.

이 모든 사상예술적풍격으로 하여 리수복영웅의 시는 오늘도 래일도 선군의 기치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줄것이다.

당원에 대한 생각

김성혜

아직은 누구에게도 보인적 없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둔 말이 있어라
조선로동당원!
언제면 나도
영광스러운 그 이름 지닐수 있으랴

그러면 너무도 엄청난 생각에
서둘러 마음의 대문을 닫았고
허물많은 차림새로
맑은 거울앞에 선것만 같아
남몰래 얼굴을 붉힌적은 그 얼마...

하지만,
하지만 그대에게만은 꼭 보이고싶어
여기로 왕노라
오늘도 열여덟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
어제날의 민청원 그대앞에

불을 토하는
원쑤의 화점도
쓰러뜨릴수 없었던 리수복영웅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있는가

물어 무엇하랴
영웅은 지금
당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있다
영웅이 남긴 심창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가 진정
그의 입당청원서가 아니란 말인가

아,
이런 영웅들
목숨을 바쳐 들어서는 당
이 위대한 당에
심장을 앞세움 없이
어찌 들어설수 있으랴

내 다시 새 출발의 먼길을 가리라
당원으로 가는 길을
가장 가깝게 깨우쳐주는
리수복영웅과
매일 매 순간 심장의 말 나누며
나의 심장의 뚫는 피가
우리 당기폭의 붉은 빛갈과
비로소 갈아질 때
천겁만겁으로 접어둔 생각
그때에 조용히 펼치리라
파연 나도
조선로동당원이 될수 있을가

그 길에서 가다가 쓰러진다면
쓰러져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 해도
마지막힘을 모아
소리쳐 부를
아, 조선로동당원, 조선로동당원이여!

뜨거운 쇠돌

리극

무산은 추운 곳이다. 나는 무산에서 20년나마 살았기 때문에 무산 하면 저도 모르게 (무척 추웠지.) 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무산에 살고있는 막내동생과 전화로 만난 기회에 문안삼아 물었다.

《그래 요즘도 몹시 춥겠지?》

《춥다니요? 온 무산땅이 쇠돌중산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언제 추워볼새가 있어요...》

고지예선(그들은 철산봉쇠돌밭을 그렇게 불렀다.) 숨이 다 막히는것 같아요. 하긴 광부들의 심장이 얼마나 뜨거워졌다고요.》

통속인 말이었으나 그 어조에는 무산광부의 안해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그래 매부는 잘있느냐?》

《예, 그저 막 뛰어나니지요, 얼굴이 불길불길해서... 쇠돌은 저 혼자 다 캐는것처럼 으쓱해서 말이예요. 호-》

매부는 광산에서 대형 굴착기운전공으로 일한다. 조국보위초소에서 곧장 철산봉으로 탄원해간 제대병사이다.

《오빠, 한번 무산에 오세요. 좋은 글감을 얻을수 있을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달렸으니깐요.》

통화는 끝났으나 나는 쉬이 발걸음을 데수 없었다. 방금전에 들은 동생의 말이 가슴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었기때문이다.

광부들의 심장이 뜨거워졌다!

눈앞에는 한톤의 쇠돌이라도 더 캐내기 위하여 뛰어나달 무산의 광부들의 모습이 삼삼히 그려진다. (아무렴, 무산이 어떤 곳이라고, 무산의 광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구...)

나는 무산의 광부들을 잘안다. 그들은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한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며 지어 투박하고 거칠게 말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처럼 아름다우며 풍만한 정서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도 흔히 없을것이다. 그들은 대지를 흔드는 발파소리를 강성대국건설의 장중한 교향곡으로 의미있게 감상할줄 알며 쇠돌을 가득 싣고 떠나는 기관차의 기적소리를 하루계획을 넘쳐난 광부의 희열에 찬 환성처럼 흐뭇하게 느낄줄 안다. 그들은 거짓이나 두려움을 정녕 모른다. 모진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도 썩지않는 쇠돌처럼 그들은 동요와 변심을 모른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들은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않지 않았으며 전투장을 단 한시각도 비우지 않고 더 높은 쇠돌중산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왔다.

그들이 바라보는것은 오직 하나 더 많은 쇠돌생산으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그들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

되어있는 보석같이 귀중한 신념이 있는데야...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오직 장군님만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량심의 붓으로 심장속깊이 새겨넣은 그들의 신념이다.

그들은 잘알고있다.

그 옛날 비천한 돌쟁이로 버림받던 무산의 광부들이 언제부터 나라의 주인이라는 존엄을 가지게 되었으며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자주적인간으로 사느냐 하는 판가름의 길에 섰던 《고난의 행군》시기 로동계급, 자신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대하여...

해방직후, 분초를 쪼개며 새 조국을 일떠세우는 그 분망한 속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조국의 한 끝 무산의 광부들을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과 몇년 전 북방의 땀뻘 칼바람을 맞으시며 광부들을 찾아오시여 따듯이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아, 그때 무쇠같은 가슴들을 뜨겁게 적신 우리 광부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늘끝에 닿은 철산봉마루에 오르시여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사람도 자원도 모두 청춘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신념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장에 불을 달았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철정광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올해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무산의 광부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투쟁의 앞장에 세워주시었다.

그러니 어찌 사람도 쇠돌도 뜨거워지지 않을수 있으랴, 혹 어떤 사람들은 내 동생의 말을 억지라고 할수있다. 억지임이 분명하다.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 날씨가 더워진다는것은 자연의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굳이 믿고싶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무산의 광부들이 있고 광부들의 가슴속에 자나깨나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열같은 충정만이 차넘치거늘,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광부들의 심장속에 지퍼진 불은 온 나라에 거대한 불길로 타번질것이다.

무산의 광부들의 심장에 달린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것이며 뜨겁게 뜨겁게 타오를것이다!

나의 가슴은 어느때 갈지 않게 서서히 달아올랐다. 온 나라의 관심속에 더 많은 쇠돌생산을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낮익은 광부들속에 서고싶은 욕망이 불쑥 치솟는다.

(가자! 그들속에 들어가 땀도 흠뻑 들리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좁은 글도 쓰자!)

나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진다.

백두가 보이는 마루에서

정동찬

북변의 한끝
두만강가의 쇠돌산마루에서
한발과를 끝낸뒤
멀리 푸릿한 산발너머 떠오르는 백두산,
백두의 바람을 마시며
내 여기서 보노라

그리움에 젖어
백두령봉을 우러러 보노라면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 어려와
절로 송엄해지고 깨끗해지는
철산광부의 이 마음

날마다
시각마다
백두산을 마주하고사는 이 광부
좋은일 곳은일도 다 아뢰이며
스쳐가는 바람결에서조차
백두의 목소리를 가려들으며 사노라

때로는 문득
착정기를 다루는 내 손에 덧놓이는
백두산주먹의 힘을 느끼며 머리 들고
발과심지에 불을 다는 순간이면
내 가슴 두드리며
백두대산줄기를 타고오는 크나큰 울림을
백두의 령으로 내 듣노라

-너, 백두가 보이는 마루에서 사는 광부이거든
백두산배짱으로 철산을 타고왔으라,
너 선군시대 공격서렬의 앞장에 서려거든
백두의 근위병자세로 서있으라!

오 백두의 피로써 얻어진 이 땅
그 한 봉우리를 지켜 살면서
내 어이 백두의 뜻을 모르랴
선군시대의 가슴벅찬 나날에
백두가 보이는 마루에서
나는 백두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노라

나는 조국의 불을 단다

주경

안전등 밝은 불빛에 드러난
기름진 탄벽을 살펴보며
환희로움에 부풀어오르는
탄부의 이 가슴이여

날마다 열여가는 탄벽이건만
날마다 마주할 때면
봄날의 화원을 안은듯
마음은 이리도 울렁이는것이나

두류산마루에 둥근달 걸어놓고
첫 사랑 속삭이던
그 밤도
이 탄벽에 거울마냥 비껴오나니

우리 옥이 학교가는 길녘에 곱게 핀
민들레꽃들도
이 탄벽에
뿌리를 둔듯
교대를 마친 탄부들을 반겨주는
영양제식당 아주머니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이 탄벽에서
피어나는듯

비둘기바위를 지나 들려오는
밤빛크링카를 구워내는
소성로의 고르로운 동음도
이 탄벽에서 울려가는가

저 멀리
화력발전소의 타빈을 안고도는
불의 거세찬 격류도
행복의 창가에서 흐르는 불빛들도
이 탄벽에서 시작되는가

오, 땅우에 흐르는 조국의 숨결을
이 탄벽에서 안아보며
불의 고향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나는 땅우에 불의 교향악을 울려주는
조국의 아들

땅속에 이글거리는 불을
채탄기의 억센 정날로 터쳐
나는 불을 단다
우리 장군님 선군의 총대로 이끄시는
조국의 이 하루에
나는 불을 지핀다!

새로운 풍경

공천영

어느 농장도 다 그렇지만 내가 현실체험나갔던 장장군의 어느 한 협동농장에는 어느 작업반, 어느 분조에 가나 콩밭이 많다. 지난해보다 콩밭면적이 두세곱으로, 어떤 작업반에는 열곱으로까지 불어났다고 했다.

한데 종자도 새 종자를 받아들이고 심는 방법도 달라 씨불임철과 애벌김매기때만 해도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포기당 대수와 포기사이 간격을 놓고 의견들이 많았다.

《룩십이 가까와오도록 콩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심는 콩종자는 보지 못했어요. 포기사이 간격도 이전과는 다르니...》

넓어서는 분조장을 여러해동안 한적이 있는 둔덕집녀인은 올해 처음으로 분조일을 맡아보는 총각분조장의 새 품종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그런 일은 김매기때에 또 한번 있었다. 넓은 이랑에 콩씨가 드문드문 보이는데 그 콩씨가 아무리 싹하게 자란들 발을 뒤덮을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되었으니 둔덕집녀인은 더욱 그랬을 것이었다.

녀인은 밭이 아깝다고 하면서 콩포기사이사이에 팔을 심으려 했다. 그러다가 총각분조장에게서 또 경을 치르었다.

《어머니, 이 콩종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길에서 몸소 마련하여 보내주신 종자입니다. 우리 장군님의 은정어린 귀한 종자로 더 많은 수확을 내야지 않겠습니까.》

《분조장, 수확을 많이 내야겠기에 나도 그러는거야.》

이때 작업반기술지도원이 다시금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콩밭이어서 나는 가을에 꼭 다시 가보리라 속으로 별렀었다.

가을절기에 접어든 어느날 나는 시간을 내어 애벌김을 땔 때 갔던 그 콩밭꼴을 찾았다. 실은 작년까지 피나무꼴로 불리우던 골짜기인데 올해 봄부터 골안의 포전이 전부 콩밭으로 전환되면서 골이름도 콩밭꼴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개울이 흐르는 골안 좌우의 평퍼짐한 등성이밭에 콩쭈이 어우러졌다.

이쯤 되었으니 종자를 묻을 때 마음을 못놓던 둔

덕집녀인은 콩농사에서조차 종자가 기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더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콩밭머리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그리고는 분조원들앞에서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콩농사의 새 력사들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마운 은덕에 대하여 자기 심정을 터놓았던것이다.

정녕 이 콩밭풍경을 보니 콩농사를 잘하여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에 보다 뜨겁게 새겨진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콩, 우리 민족고유의 장수식품으로서 맛이 좋고 영양가높은 콩음식.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콩으로 기름과 두부와 순두부, 비지와 콩나물을 비롯한 콩음식을 즐겨 만들어 먹었으며 발전시켜왔었다. 콩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은 그맛이 고유하다. 콩으로는 축산과 양어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시려는 결심과 의지로 《이민위천》의 정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콩농사를 적극 장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좋은 콩종자를 여기 북방의 산골농장에까지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것이였다.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선군의 기치높이 수천수만리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고 긴장한 속에서도 식료공장들의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하여주시고 공장의 연간 장생산에 필요한 콩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보내주신 장군님의 그 은정 잊을수 없다.

그런데 오늘 골안가득 펼쳐진 콩밭머리에 서니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더욱이 가슴에 젖어든다.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콩농사도 인민군대처럼 짓자고 펼쳐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기띤 얼굴들도 콩밭이랑마다, 콩포기마다에 어려온다. 피나무꼴이란 골짜기이름이 콩밭꼴로 고쳐진 한가지 사실만 놓고봐도 콩농사에서 일어난 전환에 대해 잘알수 있는것이다.

이 골짜기만이 아니다. 정녕 선군의 빛발아래 어딜가나 콩밭이 늘어나고 콩쭈이 우거졌다.

불수록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콩밭풍경... 손바닥처럼 넓죽한 잎사귀들이 푸르싱싱한 기운을 한껏 풍긴다. 그 잎들사이로 아지마다 다닥다닥 붙은 손가락같이 살이 진 퍼런 콩꼬투리들이 탐스럽게 보인다. 이제 저꼬투리들이 누렇게 익을 날도 멀지 않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푸르싱싱한 둥근 잎사귀들이 설레인다. 콩대마다 아지마다에 주련이 붙은 꼬투리들도 잎을 따라 흔들거린다.

은 콩밭이 춤물결을 이룬다. 거기에 저녁노을빛이 발기우리 번져가니 끝가득 펼쳐진 콩밭은 더욱 장쾌하고 아름답다.

어찌 강반에 새로 일어난 발전소마을이나 닭공장 전경만이 사회주의선경이라. 예 펼쳐진 아름다운 콩밭경치도 선군의 해빛이 가꾸어놓은 새로운 풍경, 새 세기의 선경이 아니랴.

정녕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식탁에 오른 맛좋은 두부국, 토장국이며 갖가지 영양가높은 콩

음식들이 눈에 선히 보인다. 거리와 마을을 누비며 오가는 사랑의 콩우유차도 보인다.

신선한 저녁바람이 싱싱한 콩잎들과 꼬투리들을 정답게 어루만지며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농장처녀들이 부르는 구성진 노래소리도 바람에 실려온다.

우리를 잘살게 하여주시리
수령님 한생 맞으신 눈
오늘은 장군님 헤쳐가시니
이 가슴 젖어옵니다

은은한 노래선율을 타고 끝안가득 발기우리한 노을빛에 물든 콩숲이 걱정에도 젖어 더욱 설레이는듯 실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의 해빛아래 이 땅 어디에나 생겨난 내 조국의 장쾌한 경치이거니 푸르른 콩잎새들 끝없이 설레인다, 내 마음도 따라 설레인다!

류 행 가

류행가란 말그대로 광범한 대중속에서 널리 류행되어 불리우던 노래라는 뜻을 담고있다. 다시말하여 류행가는 일정한 역사적시기에 새로운 노래양식으로 나타나 광범한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급속히 창작보급된 통속적인 노래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류행가라고 하면 해방전시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던 계몽기가요나 신 민요를 비롯하여 해방한 역사적현실과 시대정신을 반영함으로써 대중적 보급력이 강하였던 노래들이 다 포괄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류행가란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것은 1930년대초를 전후하여 많이 성행하였던 레코드(소리판)를 통하여 신 민요와 대중가요들이 널리 창작 보급 되면서부터였다. 그 당시

소리판들에 류행가라는 명칭이 붙은 노래들에는 신민요들과 대중가요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서 들어온 류행가요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류행가라는 용어는 해방전시기에 사람들속에 널리 보급된 대중적양식의 가요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취급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류행가》라고 불리운 노래들속에 일제가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사상과 고유한 민족성을 거세말살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순종시킬 목적 밑에 만들어 퍼뜨린 퇴폐적인 노래들이 뒤섞여있다보니 사람들에게 류행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것이다.

해방전시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운 류행가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봉선화》, 《황성옛터》, 《눈물젖은 두만강》, 《타향살이》를 비롯하여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울분, 고향을 잃은 설움을 비탄하고 당시의 썩어빠진 사회를 개탄하는 노래들이었다.

류행가들가운데는 우리 인민의 민족생활과 향토예를 민족적 정서가 풍만한 조선민요의 형식에 담아 만든 《노들강변》,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 《배꼭새》, 《평북령변가》와 같은 신민요에 속하는 노래들도 있으며 오늘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휘파람》과 같이 로동당시대에 창조되어 우리 인민들이 널리 부르고있는 대중적양식의 좋은 노래들도 류행가에 속한다.

원한의 부두가에서

김상조

잔교에 철썩이는 물결
웅어리진 이 마음 두드리는가
생각만 해도 이 갈리고
끓는 피 거꾸로 솟게 하는
원한의 제련부두가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포악한 쪽발이무리와 맞서
젊은이들 징용딱지 찢어버리며
피투성이되던 곳
마을의 곱단이, 보패...
치마폭 찢기운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던 울음의 부두

바로 여기서
왜놈들에게 아들 머느리 빼앗긴
대추나무집 어머니
머리태 풀고 바다물에 몸을 던졌고
가대기군할아버지
너 죽고 나 죽자
총권 놔 걸어안고 바다에 떨어졌다

아, 살아 바라볼 하늘 없고
죽어 눈조차 감지 못하던 세월
침략자 일제를 저주하며
원한의 부두가를
세차게 때린것은
파도가 아니라
깃뽀한 이 땅의 눈물이었다

얼마더냐
꽃나이청춘을 지리뽀히며

짐승처럼 끌려간 젊은이들은
다시 오마 눈물속에 헤어졌다가
돌아온이 몇이며
못온이는 얼마더냐

세월은 세기를 넘어 흘렀어도
이 가슴 세차게 울려준다
피서린 부두가에 메아리친다
치솟는 증오
복수를 부르는 이 제련부두가

골수에 사무친
침략자후예들이
오늘은 재침의 검은 칼 빼들고
이 땅을 노리고있다
부두가에 쌓인 어제날의 원한을
또다시 쌓으려 한다

알아야 하리 침략자들은
이 땅의 총대들이
무엇때문에 잠들지 못하고있는지
백년숙적과의 결산을 위해
분노에 떠다 몸부림친다

원한의 눈물만이 쌓여있는
부두가가 아니다
쌓이고쌓인 피눈물을
천백배로 결산할
조선의 분노가
이 부두가에서도 터지리라
우리의 선군이 무엇을 위해 다져졌는지
오, 침략자들은 알게 되리라

장령의 경력

대 도
채근수역

그는 1949년에 입대하였다. 군복을 입은지 얼마 안되어 그는 압록강을 건너 조선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에 달려나간것은 전투에 참가하여 위훈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령원은 그를 사령부 정문보초를 서게 하였다. 그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군인인것만큼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령원은 시무록해 하는 그에게 《꼬마동무, 지원군 전사답게 보초를 잘 서라구.》 하는것이였다.

그는 매일 윤기나게 닦은 총을 잡고 차렷자세로 사령부 정문보초를 섰다. 사령원을 비롯한 군관들이 사령부를 드나들 때마다 그는 규정대로 차렷자세를 취하고 손을 눈섭옆에 가져다대며 절도있게 경례를 하군 하였다. 사령원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였다.

하지만 맥이 풀려서 정신을 다룬데 팔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먼산을 바라보군 하였다. 그 먼산쪽에는 상감령이 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그는 흥분해서 사령부에 뛰어들어와 가까운 곳에서 적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보고하였다, 사령부성원들이 급히 나와 그가 가리키는쪽을 살펴보니 신호탄인것이 아니라 반디물이였다.

조선전쟁은 3년만에 끝났다. 그의 지원군전사생활도 3년동안 고스란히 보초근무를 선것으로 끝났다. 사령원은 그가 보초근무를 잘 섰다고, 절도있는 동작과 그 림름한 모습이 조선인민군군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칭찬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보초만 서다가 돌아가는것이 못내 유감스러워서 어깨가 축 처졌다. 조국에 돌아온후 그는 인차 군관으로 승급하였다. 이제는 보초를 서지 않아도 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신하여 보초를 섰다. 하지만 여전히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 사무실에 앉아 작전훈련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고작이였다. 1970년대말에 이르러서야 그는 비로소 소원을 풀게 되였다. 남부국경산악지대에서 진행된 전투들에 참가하였던것이다. 개선한후 그는 어엿한 장령으로 되였다.

그에게 있어서 그 시기가 가장 보람찬 시절이였다.

보람찬 시절은 몇년 가지 못하였다. 군복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던것이다. 군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으기 서운했다. 두려워하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았다. 상부에서 그를 찾아 담화를 하였다. 일생동안 총을 잡고 많은 공을 세웠다고 높이 평가한 다음 군건설과 관련하여 제대하여야 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섭섭하였지만 어쩔수 없었다.

장령은 이어 부대간부휴양소에 배치되였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호화주택에 옮겨앉았다. 독립가옥으로 된 주택은 그야말로 호화스러웠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갑갑해서 죽을 지경이였다.

그래서 태극권도 하고 새도 길러보고 꽃도 가꾸고 금붕어도 길러보았다. 하지만 그 어느것도 그에게 정신적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후 장령은 로병회의에 참가하려 사령부로 들어가거나 문건들을 보러 사령부로 들어갈 때 정문을 지켜선 보초병이 그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그 순간이 마음을 더없이 즐겁게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불일이 있건 없건 매일 사령부로 나갔다. 하지만 며칠 지나서 너무 자주 나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한것은 그가 나갈 때마다 전우들과 아래일군들이 그를 접대하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그는 사령부로 자주 나가는것을 삼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보초병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미칠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매일 사령부정문 먼발치에 서 남몰래 보초병을 바라보고 돌아와야 마음을 놓군하였다.

...

그후 부대내 생활향상을 위한 바람이 불게 되었다.

부대간부휴양소에서도 뒤질세라 대외봉사초대소를 나오게 되었다.

대외봉사초대소조업식을 하는 날 부대장을 비롯한 부대군관들이 나왔다. 차에서 내려 초대소정문으로 들어서던 그들은 모두 굳어졌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한 늙은이가 제깃옷에 넥타이까지 매고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글발이 썩여진 붉은 멜퍼를 어깨에 메고 차렷자세로 그들

을 마중하고있었던것이다.

《장령동지!》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불렀다. 이어 부대장일행은 스스로 렬을 지어 초대소로 들어가면서 정령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왜들 이러시오. 내가 먼저 경례를 해야겠는데.》하면서 장령은 그들을 향하여 절도있게 경례를 하는것이였다.

장령의 절도있는 경례동작과 자세는 병사시절과 다름이 없었다.

토막이야기

시상의 벗

시쓰기를 좋아하는 한 청년이 책상에 앉아서 쓰기는 많이 썼지만 좋은 시가 나오지 않아 모대기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길거리에서 마야콥스끼를 만났다.

그는 인사말도 없이 《시인선생, 듣건대 당신은 매우 풍부한 시상을 가지고있다는데 나에게는 왜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이미 그를 알고있는 마야콥스끼는 《오, 그렇소? 아마도 시상은 책상머리의 어리석은것과는 벗으로 사귀기 싫어하는가부지? 내 경험에 의하면 현실에 발을 붙이니까 시상이라는 <물건> 이 내 머리에서 요동을 치더구만 친하자고 하는것 같애.》하고 말하며 눈을 껌뻑하였다.

비방자에 대한 공격

1917년 10월혁명전야 마야콥스끼는 바야흐로 터질 폭풍우를 안고있는 뻔뻔르부르그(당시)의 뉘스끼거리를 거닐고있었다.

문득 좀 떨어진 앞쪽에서 웬 녀인의 악에 치받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눈여겨보니 자그마한 모자를 빼딱하니 쓰고 손에는 손가방을 든 녀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뭐라고 악담을 퍼붓고있었다.

잠시 귀를 강구던 마야콥스끼의 얼굴이 분격으로 하여 순간에 이그러졌다.

《불쉐비크들은 비적이고 날강도들이예요. 그자들은 진종일 살인과 방화, 겁탈을 일삼고있어요.》

지독스런 비방중상이였다. 마야콥스끼는 곧 두손으로 사람들을 헤가르며 곧바로 녀인한테로 다가갔다.

《이 녀자를 잡아주시우. 이 녀자가 어제 나의 돈가방을 훔쳐갔습니다.》 마야콥스끼가 소리쳤다.

뜻밖의 일을 당한 녀인은 당황하여 급히 변명하였다.

《아니,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아니요, 바로 이 녀자요. 자그마한 모자를 쓰고... 나한테서 25루블을 훔쳐갔소.》 마야콥스끼는 확신성있게 말했다.

그의 일을 듣고 모여선 사람들이 녀인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는 침을 뱉으며 뿔뿔이 흩어져갔다. 녀인은 억이 막혀 부르짖었다.

《아이구 하느님! 나를 좀 자세히 보세요. 난 정말 당신을 처음 봅니다.》

마야콥스끼는 그제야 녀인에게 충고를 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불쉐비크를 처음 보면서도 그 무슨 불쉐비크의 죄행에 대해 떠들었지요? 이제 집에 돌아가거든 하녀에게 뽕풀이를 하지 마시오.》

미친사람의 충고

어느날 《보수서옥》 이라고 부르는 책방에서 적막감에 사로잡혀 옛 비문을 베껴쓰고있는 로신에게 옛 친구인 어느 한 잡지의 편집자가 찾아왔다.

《요새 뭘하나? 아니 그런걸 써서는 뭘하나?》

《아무데도 쓸데 없네.》

《그럼 무슨 뜻에서 그걸 베끼나?》

《아무 뜻도 없네.》

《내 생각엔 자네가 글을 쓰는것이 좋을것 같네.》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붓을 든 로신은 오래전부터 구상만을 해오던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으며 1918년 처녀작 단편소설 《미친 사람의 일기》를 창작발표하였다.

그가 미친 사람을 원형으로 하여 소설을 쓰게 된 것은 1916년 10월말 산서성 태원의 어느 관청에서 일하다가 《피해망상증》에 걸려 로신에게 왔던 그의 사촌동생을 만난것이 동기로 되었다.

그때 사촌동생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하면서 베이징으로 도망쳐왔고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 한다고 하면서 불안해하였다. 치료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어느날 거리에서 보초를 서는 순경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이미 정신착란이 왔다는것을 안 로신은 사람을 시켜 그를 고향의 집으로 보냈다.

여기서 충동을 받은 로신은 미친 사람의 행동과 말을 빌어 변태적인 중국봉건사회와 그가 빚어낸 《국민성》의 본질을 예리한 풍자적필치로 비판한 단편소설 《미친 사람의 일기》를 썼던것이다.

로신은 이 소설과 고골리의 단편소설 《미치광이의 수기》를 대비하면서 고골리는 작품에 랑만주의 적정서를 부여하였다면 자신은 랑만주의적창작방

법과 사실주의적창작방법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 작품에 《고골리의것보다 울분을 더 깊고 폭넓게 토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후 로신은 단편소설 《고향》을 내놓은데 이어 같은 해에 중편소설 《아큐정전》을 완성하였다.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중국대륙을 뒤흔들어놓았으며 세계 여러나라말로 번역출판 되어 널리 알려졌다.

중편소설 《아큐정전》은 당시 중국인민의 의식을 좀먹던 정신적병집, 《침울한 국민의 녀》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이었으며 자주적인 중화민족의 녀를 부르는 웨침이었다.

《중국사람들은 감히 이모저모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기만과 속임수로 도망갈 묘한 길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옳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에서 국민의 비겁성, 나약성, 라태성 그리고 교활성이 증명된다. 그날 그날을 현실에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타락해 가면서도 오히려 영광의 날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로신은 이러한 저렬한 《국민성》, 봉건사회가 빚어낸 병집을 파헤쳐 날카롭게 비판하고 중국인민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아큐정전》을 썼던것이다.

중편소설 《아큐정전》의 창작으로 하여 로신은 중국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로신이라는 이름은 그가 문학활동의 전기간에 썼던 140여개의 필명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래 쓴 필명인것으로 하여 본명 주수인보다 더 널리 알려지게 된것이다.

로신이라는 필명에서 《로》자는 어머니의 성에서 딴것이라고 한다.